



9

199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3. 9호

(루계 551)



◆◆◆◆◆◆◆◆◆◆ 차 례 ◆◆◆◆◆◆◆◆◆◆

조국찬가	4
그이의 품속에서	5
수령님의 10 대강령 해불을 따라.....	5
우리의 생명수	6
빛내이세 5 대명언	13
백가지 도술.....	14
불바다속에서.....	15
명언	21
명당자리	22
타향의 봄날에	24
가사혁명의 불길속에서 (1).....	25
조선의 국화 목란꽃	27
쌍무지개 비낀 내 조국.....	28
빛나는 아침	29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문화론》에서 밝히신 주체의 문학형태리론에 대하여.....	30
끝까지 가리	36
명제해설	37
들국화 핀 언덕에서	38
따스한 바다.....	40
새 인간들의 탄생앞에	50

휘황한 미래	51
전사의 신념	56
쌩	57
애국렬사비가 서있는 마을	64
아름다운 꿈을 꾸네	66
고향의 모래불	66
위원장어머니	67
력사적인물의 성격창조와 언어형상의 평이성	73
초불과 길가의 조약돌	78
나를 찾아주세요	79
그 시절의 추억	79
고개들어 조국의 하늘아래	80
평양성	80

조국찬가

문동식

하늘은 희망처럼 푸르고
대지는 꽃바다로 설레인다
거리마다 흐르는 환희의 물결
집집의 창가마다 피어나는 웃음엔
한점의 그늘도 걱정도 없다

얼마나 좋으나 나의 조국은
봄이 오면 시내가 실버들가지에
파아란 꿈을 안고 새싹이 움트고
눈석이 맑은 물 흐르는 들가에선
풍년씨앗 뿌리는 처녀들의 봄노래
아지랑이 타고서 올려퍼진다

높은 산 기슭의 외진 이랑에도
험준한 계곡의 그 어느 구석에도
그늘없고 눈이 없고 찬바람없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무르익어
기쁨이 한껏 넘치는 나라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산천이 아름답고 생활이 환희롭고
내딛는 걸음걸음 더 좋은 앞날이
손저어 웃으며 마중오는 이런곳이
신심과 락관에 가슴 부풀어
사람마다 위훈의 날개를 펼친 나라

부를수록 자랑차다 나의 조국은
둘러보면 지구의 곳곳에서
빛을 잃고 길 잃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절망의 한숨소리 들려와도
이 땅에선 승리의 노래소리 드높거니

백두산의 뿌리로 흔들림없고
정일봉의 기상으로 흐려질 줄 모르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 푸른 들 푸른 바다
여기서 내가 산다 인민이 산다
창창한 미래의 푸른 빛에 휩싸여
여기서 아이들이 활개치며 자라난다

태양의 해빛에 향도의 별빛에
행복이 무성하고 후손들이 꽃피는
이보다 좋은 나라 더 좋은 품이 없어
머리 들고 웃어도 태양을 향해
걸음을 걸어도 향도의 별을 따라
수천만이 일심단결 한뜻으로 숨쉬며
목숨으로 지켜가는 인민의 우리 세상

해와 별이 낮과 밤을 자애로이 비치여
그 어느 외진 기슭 그 어느 골짜기에도
찬바람 눈서리 깃들지 못하는
해해년년 레사로운 날과 날들이
사랑과 우애와 애정으로 뜨거워
온 나라가 화목하고 단란한 한가정
이것이 나의 조국 부강한 조선

시를 지어 칭송해도 그 시가 무색하고
노래 불러 자랑해도 그 노래 무색한
은덕의 나라, 사랑의 나라, 만복의 나라
아, 이것이 인류가 갈망하는 리상향
주체의 등대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절세의 나의 조국 사회주의 조선이다

그이의 품속에서

리용

아직은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작은 섬마을이건만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오래도록 지도에서 시선을 못떼시여라

오늘은 9월 초하루
온 나라 학교들이 수업종을 울릴 때
여기 몇명 아이들만
선생이 없는 빈교실에
앉아있어야 한단 말인가

어찌하면 좋으랴
개학준비로 물에 나갔던 녀선생
사나운 풍랑에 배길이 막혔으니
이 뜻깊은 날 하염없이
빈 교사를 지키게 될 세 아이들...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
갈매섬에도 온 나라와 똑같은 시각에
개교의 종소리를 울리게 하자고
부관을 불러 긴급히 대책을 세우시려는데
아, 수화기를 타고 울려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에 넘치신 그 음성
...

-수령님
갈매섬의 녀선생을 위하여
당에서 이미 직승기를 띄웠습니다

순간 아버지수령님의 안광에는
밝고밝은 해빛이 한가득 실리여라
잘했다고 아주 잘했다고 거듭 외우시며
기쁨의 바다를 펼치시여라

어찌면 아, 어찌면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렇듯 아버지수령님의 깊은 심정도
남먼저 헤아려 체때에 풀어드리실가

아, 인민을 위하는 생각 하나같으시기에
정녕 그 마음 꼭같으시기에
순간에 세기를 앞당기시며
수령님 바라시고 구상하시는 모든것을
빛나는 실천으로 받드시는 지도자동지

매없는 하나의 자연현상속에서도
수령님의 사색과 의도를 헤아려
뜨거운 사랑 불타는 예지로
머나먼 조국의 작은 섬기슭에
사랑의 새 전설을 꽃피우시여라

가사

수령님의 10대강령 해불을 따라

최로사

겨레의 피눈물이 아직도 적다더냐
동족을 외세의 희생물로 떠맡기랴
생존이나 죽음이나 관가리 이 시각에
7천만은 나서자 통일의 한길로
수령님의 10대강령 해불을 따라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을 이루자

정견이 다르다고 한민족이 아니더냐
무산자 유산자라 한피줄이 아니더냐
반목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7천만은 나서자 애국의 한길로

수령님의 10대강령 해불을 따라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을 이루자

우리 겨레 단합하면 당할자 있으랴
하나의 강국으로 대번영하리라
통일된 조선의 그날을 위하여
7천만은 나서자 북과 남 해외에서
수령님의 10대강령 해불을 따라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을 이루자

(1993. 4. 9)

우리의 생명수

한원희

1

방금 태양이 솟으려는 때와 같이
세상만물이 환희에 설레는 그 순간과 같이
온 나라 로력혁신자대회 참가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을 기다리는 사진촬영장

순간 폭풍처럼 터져오르는 환호속에
천천히 나오시는 거룩한 모습
그이께 달려가 꽃다발을 드리며
마디마디 감격에 목메이는 한사람
2천리 물길에 놓아야 할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보냈다는 그 보고

자나깨나 보고싶던 아들을 만나신듯
기다리고기다리던 소식을 받으신듯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는 수령님

《동무로구만!
락원사람 장문주...
웁소 그때 그 장동무요!》

깊은 감회에 젖으시는 그 음성
만족하시여 끝없이 대견하시여
한품에 껴안아주시누나
수고했다고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고

《락원동무들이 또 큰일을 하였습니다
이동무들은 언제나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기에 모인 대회참가자들의 이름으로
락원로동계급에게 감사를 줍시다!》

아, 우뢰처럼 터져오르는 박수
바다처럼 설레이는 촬영장의 환호
고마워 고마워 목메여 흐느끼는
장문주의 손을 높이 들어 흔들어주시며
기쁘시여 기쁘시여 웃으시는 수령님

정녕 누가 드려야 할 감사인가
감사라면 락원의 진정을 다 모아
우리 수령님께 드려야 할것이언만

오히려 락원로동계급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믿음의 한계는 어디인가

끝없이 일고이는 박수와 환호를
인젠 됐다고 손들어 눌러잡히시며
수령님 조용히 하시는 말씀
락원동무들이 2천리 물길에 놓아야 할
그 많은 양수기를 만들어보냈다는 보고를 들으니
전후에 처음으로 대형양수기를 만들던
그때가 생각나신다고

장문주동무의 머리에 흰서리 내렸건만
그날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난날이 더 생각난다시는 그 말씀

못잊으시여
못잊으시여
서른해도 넘어흐른 오늘도 못잊으시여
마디마디에 뜨거이 어려드는
깊고깊은 회억의 정

빈터에서 일어서던 이야기
제힘으로 산악같이 일떠서는 그 정신
세상이 열백번 뒤바뀐다해도
그 하나만은 변함없이 안고 갈
자력갱생의 그 신념을 부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이야기

천만금을 다 준대도
바꾸지 않을 그 하나
우리의 심장처럼 우리의 생명처럼
어제도 오늘도 둘도 없는 그 하나

오늘 로력혁신자들의 대회를 가지는것도
화산처럼 용광로의 쇠물처럼
자력갱생의 불길 더 세차게 지펴가기 위해서라고
어려웠던 지난날을 추억하시네

아, 우리 수령님의 이야기
잊지 못할 그날의 그 사연이
어제런듯 눈앞에 떠올라
장문주는 또다시 목메여 흐느끼고
수령님을 우러러

사람들도 눈시울 적시누나

2

전쟁의 불구름이 지나간 땅
아직은 어디가나 못다메꾼 폭탄구멍이들
깨여진 벽돌장과 녹슨 파편들이
밭에 밝히던 50 년대의 어느해 초겨울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많았던
그때 그 시절

어디서 떠나 어디로 가는가
머나먼 길 가고가는 승용차 한대
지난해에도 비가 오지 않고
이해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아
맴뚱 바람만이 먼지를 일으키는 길

차중에 계시는 우리 수령님
차창밖을 내다보시는 눈길엔
한없이 비껴드는 심려의 빛
달려가는 차바퀴에 감겨드는것은
끝없는 길이였던가
끝없는 근심이었던가

무너져내린 저수지들의 제방쪽들
거북등처럼 갈라터진 논밭들
가슴아파 온 나라를 돌아보신 그이
방금 오르셨던 정봉산을 그려보시며
더더욱 가슴에 맺혀오는 아픔을 참으시듯
근엄히 말씀씀으시다

옆으로는 대동강이 흘러가건만
정봉산마루엔 기우제터
비를 달라고
땅과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빌고빌던
옛세월의 유물이 남아있는 기우제터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이
믿을곳이 없어서 하늘을 믿겠는가
우리는 제손으로 대동강을 퍼올려
땅과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리라
크나큰 결심을 내리시듯
깊숙이 자리를 고쳐앉으시는 수령님

그러자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양수기
대형양수기

심중엔 그 하나밖에 없으신듯
이미 몇번이나 보시고 보셨던
하나의 서류를 다시 꺼내드신다

흔들리는 차중에
흔들리는 종이장을 넘기시며
그이께서 보시는 문건은
다름아닌 양수기에 대한 제의서

흔들리는 종이장우에 글줄우에
흔들리는 종파놈들이 떠올랐다
10 년, 20 년이 지나면 몰라도
아직은 우리 손으로 그것을 만들수 없다고
뒤에서 쫓라닥거리는 놈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계에서 뱀이 나오느냐던 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 저찌고 떠들며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바라던 놈들이

그 가증스런 놈들의 몰골을
한손에 거머쥐시듯
마침내 서류장을 구겨주시며
곧바로 락원땅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

타고 오신 승용차의 차창에도
머나먼 길의 누런 흙먼지
수고한다고 기름묻은 손들을 잡아주시며
기대와 기대앞에 멈추어서시는
그이의 신발에도 논밭의 흙발림

그동안 잘 있었느냐고
마음속의 걱정은 가슴깊이 묻어두시고
환히 웃음만을 보이시는 그이
문득 장문주를 알아보시고
그의 손을 반갑게 잡아흔드신다

《낮이 익구만
그때 민주선전실에서 세포총회를 가질 때
맨앞줄에 앉았던 동무...
자, 이리 가까이들 오시오.》

전쟁시기 오시였던 그날이
바로 어제이거나 하신듯
그저 며칠 자리를 비우시고
출장갔다 돌아온 직장장이거나 하신듯
허물없이 로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신
아버이수령님

나라사정을 숨김없이 말씀하시였다
농사를 잘지어 쌀을 많이 내야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튼튼히 할수 있다고
가슴가슴들을 세차게 흔들어주시였다
우리 손으로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보자고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없습니다.
이 틈을 타서 어떤 사람들은 고아됩니다
파괴된 공장을 일떠세울 때까지
외국의 대형양수기를 사오자고

그래 어떻습니까, 동무들
양수기를 사와야 하겠는가
그것을 만들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는가
그때까지 비를 달라고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겠는가》

아, 이 무슨 말씀이신가
수령님 이런 말씀을 하실 때까지
우리들은 무엇을 했단말인가
갑자기 가슴에 꿈틀 돌아눕는 불덩이
자책의 모진 불덩이 불덩이...

전쟁이 승리하면
복구건설은 넘려마시라고
맹세를 올리였던 우리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 맹세 지키지 못하여
수령님을 여기까지 오지게 했단 말인가

뼈속에 사무쳐오는 송구함이
가슴을 물어뜯는 죄송함이
눈물로 쏟아지는것을 삼키며
그이를 우려했던 장문주
마침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수령님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그까짓거 대형양수기가 무엇입니까
수령님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장문주의 눈에 타오르는 불!
작업반원들의 눈에도 타번지는 불! 불!
순간에 불과 불이 모여
화산으로 솟구쳐오르는가

《수령님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기어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소
동무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지누만

다른 나라 양수기는 바랄수 없소
나는 동무들을 믿겠소!》

그이 나직이 하시는 말씀
어이해 우렁찬 메아리로 가슴에 부딪쳐오는가
말씀마다에 굽이치는 신심과 열정으로
락원의 담력을 싹틔워주시고
순간에 백배천배로 자래우시는 수령님

무엇이 있어 락원땅에 오시였던가
아직은 빈터와 다름없었고
가진것이란 빈주먹밖에 없었던만
그이께서는 보시였다

복구건설은 넘려마시라던 그 마음
그 정신의 억만재부를!
그 하나면 지혜도 생기고 기술도 솟아나고
결심하면 산도 바다도 떠옮길수 있는
우리 조국의 든든한 밑천을!

《동무들을 믿고
나라의 수리화계획을 세우겠소
먼저 기양관개부터 합시다!
바로 거기 기우제터가 있는 정봉산마루에
우리의 생명수를 광광 퍼올립시다!》

그리도 즐거이 그리도 호탕히 웃으시며
그이는 벌써 보시였다
락원이 만든 대형양수기
우리 당의 믿음이 죄물로 꿇고
조선의 맹세가 억척으로 굳어져
꿈같이 세상에 태어나는 양수기!
우리의 대형양수기!

...

시간은 얼마나 지나갔는가
방안 가득 흘러흐르는 고요는
수령님의 말씀을 끝없이 실어나른다
대회참가자들의 심장속으로
격정으로 끓어오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만든것이
《락원 1 호》 양수기라고
하루도 쉬임없이 서른해를 돌고돌아
10 억톤의 생명수를 퍼올린 날을
마침내 얼마전에 맞이한 양수기라고
웃음가득 기쁨가득 하시는 말씀

《〈락원 1 호〉가 큰공을 세웠습니다

동무들이 대회를 마치면 기양에 가보시오
그 양수기가 퍼올린 물은
자력갱생의 생명수입니다

그것으로 오곡을 키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그 정신을 안고 가시오
동무들의 일터로!
일하며 생활하는 자기의 초소로!》

신념과 확신이 빛발치시는 안광
조국의 오늘과 래일을 락관하시는
우렁우렁 울리시는 그 음성
뜻깊은 말씀을 이어가신다

걸음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한생을 살며 투쟁할것을 약속하는
기념사진을 우리 함께 찍자고
장문주를 옆에 세워주신다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주신다

3

굽이굽이 물길따라 드넓은 수로따라
출렁출렁 대동강물 흘러드는 집
많고많은 창문마다 해빛이 웃는
정봉산기슭의 못잇을 양수장

출발진지를 차지한 땅크의 대오처럼
엄엄히도 줄지어선 양수기와 양수기들
오늘은 사람들이 찾아와 발걸음 멈추누나
마치 기준포와 같이 맨 첫자리에 서있는
《락원 1 호》 양수기앞에

대회를 끝마친 전국의 로력혁신자들이
청산리와 잠진리 주변의 농장원들이
기양과 대안 멀고가까운곳
이 양수기가 퍼올린 물을 젖줄기로
들에 오곡을 키우고 공장을 돌려온
농장의 관리위원장들 공장의 지배인들이
꽃다발 꽃다발을 아름아름 내려놓누나

결사의 고지에 위훈을 남긴
영웅의 동상앞에 놓듯이
승리를 못잊어 높이 세운
영광의 기념비앞에 드리듯이
깊이 허리굽혀 꽃다발을 내려놓는
장문주의 그 마음

《락원 1 호》가 큰공을 세웠다고
어버이수령님 높이높이 치하하신 그 말씀
이 시각 다시금 가슴에 울려와
그만에야 장문주는 눈물을 쏟는구나

재가루만 흘날리던 그 나날

빈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쇠물을 끓일 때는 생각이나 했던가
서른해 세월이 넘어흐른 오늘에
이런 영광이 찾아올줄을

장하구나 양수기야
수고도 많았구나 《락원 1 호》야
어디 보자 안아보자
달려가 두팔벌려 양수기를 안고서
소중히도 쓸어보는 장문주

수령님께 기쁨을 드렸구나
세상에 위훈을 떨쳤구나
아기에게 젖줄기를 물리운 엄마처럼
여섯개 군 논밭들을 한품에 안고서
달디단 생명수를 먹여주었구나

미덥구나 양수기야
오늘도 새것처럼 동음소리 고르로운 양수기야
락원의 맹세를 내가 지켜냈구나
우리 수령님 너를 못잊으시여
온 나라에 내세워주시었구나

자식처럼 가슴에 품어주고
어린애처럼 두팔높이 떠받들어주고싶건만
집채처럼 크고큰 양수기를
어찌할수 없는 장문주의 마음

그의 가슴에 뿔뿔은
심장의 말마디를 알아듣는듯
양수기도 큰숨을 몰아쉬는가
그날의 마치자리와 줄칼자리 력력한
그 무쇠동체 들먹이는것 같구나

아, 양수기야 양수기야
내가 말해다오
내가 이야기해다오
끝끝내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기양땅에 너를 옮겨왔던 그 나날을

종파놈들 작간에 시운전을 망쳤을 때
너의 축메달이 녹아붙고
너의 날개 부러져 네 숨결 멎을 때
락원땅을 멀리 떠나
나하나의 힘으로야
너를 어찌 살려낼수 있었더냐

기술신비주의를 부르짖으며
뒤꼐방 술판을 벌려놓던 놈들은
기양에까지 따라왔었는지
이게 무슨 양수기냐고
이따위로 만들어놓고 무사할줄 알았더냐
법기관에 넘기겠다고 으르렁대었는지

법기관에 넘겨?

락원에선 광광 물을 퍼올리던 양수기
여기에선 왜 사고를 냈느냐
대답하라
어느놈이 나쁜짓을 했느냐

기름물은 스파나를 쳐들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리며
나는 놈들앞에 마주 섰었지

마침내 놈들이 도망치듯 달아났건만
싸늘하게 식어버린 너를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댔었지
사나이 눈물로 너의 동체를 적시였었지

수십톤의 무쇠덩이
무슨수로 너를 떠옮겨 락원까지 실어가며
수리하여 너를 다시 실어온들
모내기기일을 어떻게 담보할수 있으랴
가슴만 허비였었지

하지만 그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락담과 절망에 몸부림치던 그밤
뜻밖에 희망의 불줄기 비쳐오지 않았던가
전조등을 대낮처럼 밝히며 달려온
기중기자동차, 특대형화물차들

어서 가자고
우리는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가까운 기양프락또르공장에
양수기수리대책을 세워놓았다고
너와 나를 에워싸지 않았더냐

양수기야 양수기야
너 우리의 《락원 1 호》야
네가 말해다오
네가 이야기해다오

너를 싣고 프락또르공장에 달려갔을 때
또 어떤 사랑이 어떤 믿음이 마중했더냐
내 떨리는 두손으로 받쳐들고
흐르는 눈물로 얼룩지우던 한장의 편지
그것은 기양프락또르공장 지배인에게 보내주신
우리 수령님의 친필글발이 아니었던가

락원의 대형양수기를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를 적극 보장해주라고
그때문에 수행 못하는 공장생산은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시며
자신의 존함을 새겨주신 편지

아, 너는 이렇게 되살아난 양수기
너는 이렇게 두번다시 태어난 《락원 1 호》
어려운 날에나
행복한 날에나
너를 생각하면

수령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수령님을 생각하면
네 모습이 떠오르나니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어찌 너를 상상이나 할수 있으랴

장문주의 가슴속엔
이같이 하고싶은 말들이 가득하건만
목이 메여, 말문이 꼭 메여
다만 양수기를 안고 부여안고서
오래오래 놓을줄 모르누나!
차마 놓을줄 모르누나!

4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한때의 즐거움도 못잇을 사변도
자기의 물결우에 아득히 실어가는것

하지만 여기서 실어가지 못해라
《락원 1 호》에 깃든 사연
양수장에서 정봉산마루까지 뻗어오른
아름드리 배관들과 더불어
탑처럼 솟아 불멸할 이야기

장문주는 오르네 사람들과 나란히
흰서리 내린 귀밀머리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높이높이 올라선 정봉산의 토구장

어허 - ! 장관이로다
안에서 솟구쳐오르는 물머리들이
번들번들 뒤편지며 사방으로 달려가
이리저리 토구벽에 부딪치고서
늪실늪실 물길따라 흘러가누나

만약 금강의 구룡연을 꺼꾸로 놓는다면
바로 이와 같으리
세차게 날리는 물보라 물보라
칠색 찬연한 무지개 무지개

아, 진정 몇해만이나
몇십년만에 내 다시 여기 섰느냐
아버이수령님 모시고
첫 통수식을 가졌던 그날을 되불려주는
물결이여, 물보라여, 무지개여!

추억에 젖어드는 가슴을 진정치 못하며
장문주는 또다시 자신을 잊었거니
추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흘러간 지난날을 다시 살아보는것

한번 흘러간 생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자
추억은 그때 그 나이 그 젊음으로

삶을 두번 다시 누리보는것

장문주는 행복한 사람
바로 이 시각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
첫 통수식장에 서서
수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있구나
력사의 그날에 다시 서서
수령님 우리러 눈물에 젖었구나...

...

《장문주동무구만 락원동무구만!
수고했소! 수고많았소!
자, 인젠 동무가 스위치를 넣소
우리 힘으로 만든 대형양수기를
어디 한번 세상이 들썩하게 돌리시오!》

못내 만족하시여
못내 대견하시여
양수기 두리를 거니시고 거니시며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

《밖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소
그들에게 기쁨을 줍시다
저 산마루엔 기우제터가 있소
비를 달라고 하늘에 빌던곳이요
거기로 물을 퍼올립시다!
맑은 관념을 깨끗이 씻어냅시다!》

우렁우렁한 그 음성
확신에 넘치시는 안광
그이의 빛발을 받아선가
양수장엔 신비로운 채운이 어리는듯
장문주는 경건히 웃기를 어미고
힘차게 대답을 올리네
《알았습니다.》

그는 스위치앞으로 성큼 다가서네
허지만 선듯 넣을수 없구나
한번 무서운 사고를 저질렀기에
이제 또 무슨 뜻밖의 일이 있을지
그 누가 장담할수 있으랴고
겁을 먹은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수령님,
너무 가까이 계시면...》

가슴속 떨려나오는 진정을
차마 그대로 이어가지 못했으나
그의 눈빛엔 어려들고있었네
잠간만이라도 자리를 피해주기 바라는
간절한 그 소원이-

《위험하다는 말이요?
장문주동무는 아무렇지도 않구
나만 위험하다 이거요?
응?! 하하하-!》

한동안 호탕히 웃으시는 수령님
친히 장문주의 어깨를 정겹게 두드리주시며
그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시네
내가 위험하면
동무는 더 위험하지 않느냐고

아,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이라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무엇이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며
위험할 때나 준엄할 때나 함께 계시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아버이수령님

락원사람들이 만든 나라의 첫 대형양수기를
나는 믿는다고
지금까지도 보수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양수기를 기다리자고 하지만
나는 끝까지 동무들을 믿는다고
그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네

《나는 여기 있겠소
어서 스위치를 넣으시오!》

스위치앞으로 옮겨가는 그 발걸음
흐느낌에 오르내리는 두어깨
이 순간이 이 통수식이
조국의 력사에 기록될줄
그는 알았던가 몰랐던가
수령님의 믿음이 이 순간의 이 사랑이
후날 뜻깊은 서사시의 화폭으로 태어날줄
정녕 그는 알았던가 몰랐던가

다만 수령님 옆에 계신다는 느낌만이
다만 어서 스위치를 넣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슴가득 소용돌이쳤을뿐
그는 아무것도 몰랐네
수령님께서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 양수기를 믿으신다는
오로지 그 하나의 생각을 되뇌이며
드디어 장문주는 스위치를 넣었네!

순간
《부-웅》 울리는 전동기의 시동소리
《으-웅》 힘쓰는 양수기의 동음소리
그러자 돌아간다 돌아간다
양수기가 돌아간다 돌아간다

허지만 알수 없구나
어찌하여 저기 산마루에선
물이 나온다고 소리치지 않는지
순간이 천년인가 백년인가
초조해라 기압계도 살피고
창밖에도 내다보는 장문주의 마음

《조급해 마오
물이 한창 치달아오르는중이요》

수령님께서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
넘려말라고 걱정말라고
오히려 그를 안정시켜주시며
그이 친히 기다리고계실 때

아, 이 무슨 환호소리냐
《물이다!》
그 누구인가의 웨침에 뒤이어
우뢰처럼 폭포처럼 터져나오는 소리
《물이다-! 만세-!》

땅이 일어서고 산이 솟아오르는듯
온통 천지를 뒤흔드는 만세소리
웃음가득 안으시고 서계시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

《보시오! 성공이요!》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멀리 저 멀리
하늘땅에 울려갔네

5

세월의 언덕을 넘어넘어
상기도 그날의 환호성이 들려오는듯
못잊을 추억속에 몸을 맡긴채
장문주는 말없이 서있네

그날처럼 그때처럼 물은 용솟음쳐올라
물바래를 세차게 일으키고
무지개는 반공중에 비끼여
황홀히도 령롱한 빛발을 뿌리네

시작인듯 처음인듯
기운차게 줄기차게 흘러흐르는 물
《락원 1 호》의 거세찬 숨결을 안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방 백리 또 백리로 굽이쳐가는 물

그 물결우에 보여오네
자꾸만 못건디게 어려오네
기양에서 룡강에서 대안에서 남포에서
하얗게 모여왔던 젊은이 늙은이
침범침범 물에 뛰어들어 춤을 추던
그날의 그 웃자락
물에 젖었던가
눈물에 젖었던가

그날 흰수염발 흰두루마기를 적시며
두손 모아 물을 떠들던 팔손의 로인 한분
수령님앞에 백발을 숙여 큰절을 드렸네

《수령님
하늘도 못주던 물을
수령님께서 주셨나이다!》

로인의 두손을 잡아일으켜주시며
우리 수령님 웃으시였었네
내가 물을 준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양수기를 만들어
우리 인민이 물을 이끌어왔다고

그날에 로인과 하신 말씀
인민들과 나누신 말씀
저기 화강석 교시비에
한자한자 아로 새겨져있네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해놓았는데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알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에게 하늘만이 물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던 옛날 낡은 관념들을 없애도록 널리 선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관개시설을 누구에게나 보여주
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다가서서
교시비문을 감회깊이 더듬는 장문주
저 글발 저 불멸의 글발을
푸른 하늘 가득 새기고싶은 마음

정녕 우리 후대들이 알수 있겠는가
《락원 1 호》가 첫물을 퍼올리던 59년
그해에 출생한 사람들도 벌써 30대
이미 자식을 거느린 아버지 어머니로 되었거니

(허나 어이 모르리까, 수령님이시여
《락원 1 호》의 동음소리
영원한 노래로 이 강산에 울려가지 않습니까
풍년물소리 물노래소리
그날의 영광을 쉬임없이 읊조리지 않습니까.)

아, 《락원 1 호》! 《락원 1 호》
네가 서른해 퍼올린것은
락원의 량식
아버이수령님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정신!

그것으로 해마다 들을 적시며
만풍년을 가꾸어왔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며
수천만 우리 인민을 억세게 키웠구나

보아라, 네 모습 가슴에 안으려
너의 박동을 심장에 지니려
끝없이 찾아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

이 땅 어디 가나 타오르누나
너의 불씨를 안고 가서
천으로 만으로 태워가는 투쟁의 불!

쇠물 백광이 번개치는 철의 지구
오곡이 소리치며 자라는 농장벌
강줄기마다 언제가 산악같이 일떠서고
화려한 거리들이 솟아오르는 건설장

그 어디서나 부르며 화답한다
《락원의 정신으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아, 사회주의 우리 시대의 메아리
가슴 벅차게 받아안으며
장문주는 다시 또다시 목이 메어
마음속으로 웨치고있었네

(어이 잊으리까

아버이 수령님이시여
제국주의 광풍이 미친듯 불어쳐도
사회주의 붉은기 높이 들고 나가는 길에
우리 후대들이 그 어이 잊으리까
어려운 날에 제힘을 믿고 일떠서는
불굴의 넋을 부어주신 아버지이시여

그날의 위대한 신념이
그날의 위대한 정신이
진군의 폭풍으로 하늘땅을 덮었고
조국의 기상으로 세기를 떨치나니
수령님 뜻 자력갱생의 불굴의 뜻은
세월이 흐를수록 찬란히 빛나옵니다!)

장문주는 오래오래 우러르고있었네
하늘가득 땅가득 어려오는
아버이수령님의 영상을!
그의 두눈엔 오래오래 흐르고있었네
한없이 뜨거운 눈물이-!

가사

빛내이세 5 대명언

송찬웅

아-우리의 좌우명
불멸의 5 대명언 찬란히 빛내여가세

개인날에 같이 가다 헤어질 길동무더냐
곳은날도 당과 운명 함께 할 참된 동행자
심장이 뚫어라 당중앙 위하여
영원한 동행자로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인생 꽃피워준 그 은혜 어찌 잊으랴
령도자의 높은 뜻을 한마음 받들어간다
심장이 뚫어라 당중앙 위하여
충실한 방조자로 값있게 우리 살리라

열명당원 그 목소리 오늘도 가슴을 친다
드팀없는 신념으로 진정을 아뢰여가리

심장이 뚫어라 당중앙 위하여
훌륭한 조언자로 충성을 바쳐가리라

세월넘어 달려온길 영광의 년대를 보라
당의 위업 빛낼수록 조국은 높이 솟는다
심장이 뚫어라 당중앙 위하여
견결한 옹호자로 당정책 지켜가리라

비바람이 몰아친다 그 어이 주저할소냐
우리 당의 결심이면 물불도 헤치여가리
심장이 뚫어라 당중앙 위하여
철저한 관철자로 당정책 꽃피워가리

아- 우리의 좌우명
불멸의 5 대명언 찬란히 빛내여가세

백가지 도술

4. 땅에서 솟아오른 집

유격근거지에 대한 왜놈들의 《토벌》이 하루에도 몇차례씩 거듭되던 그때에 있는 일이다.

어느해봄, 산에 쌓인 눈들은 녹아내리고 아직 골짜기마다엔 채 녹지 않은 얼음들이 희끗희끗 남아있던 그무렵 왜놈들은 백두산 북쪽에 있는 한 근거지에 대한 《토벌》을 악착하게 벌렸다.

유격대원들이 멀리에 출전한 틈을 타서 달려든 《토벌대》놈들은 마을에 들이닥쳐 집에 불을 지르고 유격대병실과 후방건물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다.

유격대원들이 근거지로 돌아왔을 때는 집이라곤 한채도 남지 않고 싸늘한 재만이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고있었다.

어른들은 멀리 밭에 파종하러 나갔었고 아이들과 늙은이들은 미리 연락을 받고 산속으로 피신한 뒤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민들은 재더미만 남은 마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지 몰라 한숨만 쉬고있었다.

해가 멀어지고 저녁노을이 스러지자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헤집고 스며들었다.

아이들은 추워서 웅송그리고 엄마몸에 꼭 안겨들었다. 어른들은 참고 견딘다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봄이라고는 하지만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땅거미가 깃들기 바쁘게 살얼음을 지어놓았다.

집을 다시 짓자면 적어도 여러날이 걸릴터인데 하루이틀밤은 우등불을 피워놓고 견딘다 하더라도 며칠씩 아이들을 한지에서 재울수는 없었다.

여기 소식을 보고받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이곳 근거지로 찾아오시었다.

모두 그이품에 달려가 안기며 눈물을 흘리었다.

피해상황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으스러지게 주먹을 쥐시더니 《악귀같은놈들!》하고 부르짖듯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우선 인민들이 밤을 무사히 지내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취해주시었다.

간단히 초막도 짓도록 하고 식량도 구해오도록 하시고 화식도구도 장만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근거지안의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은 그날밤을 편안히 지낼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들이 잠자리에서 눈을 떠보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집이다! 집이 일떠섰다!》

어느 집 로인이 어뜩새벽에 일어나 밖에 나갔다가 귀틀집이 백여채나 번듯하게 일떠선것을 보고 꿈을 꾸지 않는가 하여 어리둥절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옆집사람도 나왔다가 같은 광경을 보고 얼떨름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아보니 사실이 분명한지라 둘이 함께 소리친것이였다.

땅에서 솟았는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마을이 불타기전보다 오히려 번듯한 집들이 더 많이 생긴것이였다. 마을뿐만아니라 유격대병실과 후방건물도 숲속에 덩그렇게 일떠섰다.

모두 놀랍고 기뻐서 서로 영문을 물으며 떠들썩하는데 한 유격대원이 그들에게 달려와 장군님의 편지라고 하면서 전해주었다.

편지에는 자신께서 바쁜 일이 있어 밤중으로 떠나가는데 새로 선 집에서 곳곳하게 살라는 내용이 씌여있었다.

《그럼 장군님께서?!》

그들은 장군님께서 신술을 쓰시여 하루밤사이 백여채의 집이 땅속에서 솟아오르게 하셨다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장군님께서 유격대원들과 함께 밤새워 집을 지으셨다는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그후 장군님께서 신술을 쓰시여 땅속에서 집이 솟아오르게 하시다는 이야기는 간도의 여러 지방으로 파다하게 퍼져갔다.

그때 인민들속에서는 장군님께서 유격대병실이 둔갑술을 쓰게도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그 내용인즉 왜놈들이 근거지로 《토벌》하러 들어가면 그놈들의 눈엔 통나무로 지은 밀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자리엔 아름다리 나무들만이 울창하게 들어차있었다고 한다.

그래 아무리 근거지로 쳐들어가도 유격대원들이 쓰는 집을 하나도 다치지 못했다고 하였다.

하여간 유격대밀영과 관련하여서는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었다.

불바다속에서

박래민

산과 들의 음달진곳들에 희슬희슬 남아있던 눈무지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양지바른곳들에는 파랗게 풀들이 돋아나고있었다. 대기는 한결 훈훈해졌다.

유격투쟁에서 가장 간고한 계절인 겨울철이 물러가고 가슴펴고 활동할수 있는 새봄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지만 소할바령회의 결정에 따라 소부대 활동으로 넘어간 1941 년 봄은 정세가 매우 긴장했다. 이미 만주를 삼키고 중국본토를 덮치기 시작한 일제는 백두산을 중심한 광활한 지대에서 제놈들의 뒤통수를 답새기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령활한 배후활동에 더욱더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 이른바 《소탕전》을 발악적으로 벌리고있었다. 심지어 놈들은 술한 특무들을 산골짜기들과 길목들에 내몰아 수색놀이까지 벌리게 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부행처를 알아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이처럼 험악한 시기에 백두산지구로 나가시는 길에 대황구 동남쪽 수림지대에 머무르시게 된 사령관동지께서는 화전현 로진창련락장소에 다녀오도록 임무를 주어 떠나보낸 류경철중대장 일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계시었다.

먼길이기도 하지만 적의 준동이 심한 지대이므로 그이께서는 진작 이틀전부터 마음을 쓰고계시었다. 그런데 오늘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도록 찍어준 마지막날이어서 불안한 마음을 한순간도 놓을수 없으시었다.

(충분히 타산해서 정해준 기한이라 여느때같으면 벌써 돌아왔어야 할텐데 어찌된 일일까? 적들과 불의에 맞다들어 맞붙질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는데 ...)

사령관동지께서는 한두차례만 그에게 어려운 과업을 주어 파견하지 않으시었다.

지금도 그이의 눈앞에는 막다른 지경에 이른 식량문제를 풀기 위해 그를 험난한 적구로 파견했던 일들이며 야간기습전과 매복전에 책임을 지워 보냈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그리고 몇달전에는 돈화시에 정찰나갔던 그가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몇차례나 겪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던 일이 어제일인듯하시었다.

류경철중대장은 아무리 긴박하고 어려운 임무라도 매번 어김없이 수행해온 충직한 전사이다. 돈화시에 대한 임무수행과정을 두고 그에 대한 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은 각별해지시었다.

아닌게아니라 돈화시에 대한 정찰과정은 류경철중대장의 사령관동지께 바치는 충성의 열도가 얼마나 뜨거웠던것이였는가를 산 실례로 보여 주는것이기도 했다.

정찰조를 이끌고 돈화를 향해 떠난 류경철중대장은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적의 《토벌대》가 대황구쪽으로 밀려가고있다는 정보를 받게 되었다.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사령관동지의 신변에 위협이 조성되였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만사를 밀어놓고 그이를 옹위해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적들이 밀려가는 부근의 집단부락을 들이쳐서 놈들의 걸음을 돌려세우기로 결심했다.

집단부락을 기습한 그의 정찰조는 술한 량곡을 로획하게 되었다. 사령부의 식량이 동이 나가는것을 보고 떠나온 그는 몇명의 조원들에게 식량을 지워 사령부로 떠나보내고 몇명의 조원으로 나머지량곡을 땅에 매몰하였다. 그러고나니 날자가 촉박해서 돈화시에 대한 정찰이 어렵게 되었다. 그랬건만 그는 식량을 지워보내는 조원들편에 정찰임무수행기한을 연장받고싶다는 사정을 사령관동지께 여쭙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것은 일단 명령받은 전사가 취해서는 안되는 도리라고 그는 확신하고있었다.

집단부락이 기습당하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 된 《토벌대》놈들은 확하고 류경철중대장 정찰조에 밀려들었다. 이때로부터 돈화시쪽으로의 행군은 걸음걸음 혈로를 여는 피어린 투쟁의련속으로 되었다.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으며 적들을 이리 치고 저리 따돌리면서 그는 죽음을 이겨내었다.

적탄은 군모와 배낭의 여러곳을 뚫었으나 중대장을 쓰러뜨리지 못하였고 그 또한 명령받은 전사는 임무를 수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가 없다는 견결한 의지로 죽음의 고비들을 넘고넘어 끝내 돈화시에 대한 정찰임무를 수행해냈다.

그는 허리띠를 조이고조여매면서 하루밤에 백이십여리의 강행군을 해내고 소정한 날자에 사령부에 들어섰다.

그는 사령관동지께 도착보고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쓰러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쓰러진 그를 안아일으키며 목이 메여 아무 말씀도 못하시었다.

그때일을 회상하시며 사령관동지께서는 속이 답답하시어 천막밖으로 나오시었다.

날씨가 유난히 푸근한 해질녘이었다.

그이께서는 이 며칠사이에 천막앞 양지바른 곳에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가는 풀싹들에 눈길이 미치자 그리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뉘엿뉘엿 저가는 옅은 해살이 나무가지사이를 누비며 비껴들어 그이의 수심이 어린 어두운 얼굴에 밝은 빛을 뿜으면서 넘실거리었다.

이때에 문득 고개쪽에서 바람결에 사람들의 말소리와 함께 기침소리가 실려왔다.

그이께서는 동이 뜬 저쪽 고개마루에서 들려오는 기침소리를 들으시며 산생활을 하다보니 전호섭의 기관지염을 완치시켜주지 못한것이 가슴에 걸리시었다.

아침에 최인수와 전호섭 두 대원에게 적정을 살펴보라고 내보냈더니 이제 돌아오는 모양이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류경철중대장이 돌아오기로 약정된 마지막날마저 저물어가고 더우기 멀고도 험난한 길에서 각별히 취하신 조치들이 그 어느것 하나 실현되지 못한 애절한 심정에 사로잡혀 가슴은 더한층 무거워지시었다.

사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여리길이 넘는 로진창련락장소로 류경철중대장을 부득불 파견해야 하는 긴한 사정이 제기되었을 때 호위중대 거의 절반을 데리고 떠나도록 하셨건만 그는 사령관동지의 호위를 추호도 소홀히 할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밑에 중대성원은 한명도 다치지 않고 길동무로 두 대원만 달고 떠났었다.

그런데 그뿐만아니라 로진창을 중심한 그 일대는 적들의 준동이 심한곳이어서 도중에서 식량을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헤아려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가는 길쪽의 식량만이 아니라 돌아올 때 먹을 식량까지 주어보내도록 하셨건만 류경철중대장은 자기가 여러날동안 사령부를 떠나있게 된다는 생각에서 돌아올 때의 식량은 끝끝내 사양하고 가는 길에 먹을 량식만 지고 떠났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로진창으로부터 대황구에 이르는 로정을 헤아리며 생각에 잠기시었다.

이때 두 대원이 사령관동지앞으로 다가왔다.

최인수가 한말 나서며 여쭙었다.

《사령관동지, 보고를 올릴만합니까?》

《수고했소. 그래 걱정이 어떠하오?》

그이께서는 최인수에게로 돌아서시었다.

《사령관동지, 걱정이 매우 급합니다.》

《매우 급하다?》

《네, 술한 〈토벌대〉 놈들이 대황구쪽에서 이쪽으로 밀려오고있습니다. 한개 련대는 실히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이께서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시었다.

《놈들의 일부는 큰길에서 흩어져 산기슭을 뒤지며 오고있습니다. 필경 무슨 꾀새를 채고 한창구로 덮쳐드는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놈들이

어찌나 행군길을 다그치는지 우리가 그놈들을 십리를 떨궈놓고 달려왔는데도 고개마루에 올라서 내려다보니 고개밑 저만큼 바라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곧장 오는놈들은 반시간안에 이리로 들이닥칠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령관동지, 어서여기를 뜨셔야 하겠습니까.》

《음, 그렇단 말이지.》

사령관동지께서는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으시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호섭이 보채었다.

《사령관동지, 떠나실 준비를 곧 하랍니까? 자칫하다가는 사령관동지께서 끝안을 벗어나시기 전에 놈들이 들이닥칠것 같습니다.》

초조와 불안으로 그의 속눈썹이 콧끝해지고 가늘게 떨리는상싶었다.

그렇건만 사령관동지께서는 아무런 응대도 안하시고 고개너머 먼 하늘가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나직이 뇌이시었다.

《이 동무들이 여태 못오는걸 보니 길량식이 떨어져 무척 고생을 하는가보군.》

그이께서는 류경철중대장이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사령부의 식량이 동이 날가봐 더 가지고 가라는 길량식을 굳이 사양하고 한쪽길량식만 가지고 떠나간 일이 다시금 가슴에 마쳐와 낮빛을 흐리시었다.

사령관동지의 이처럼 깊은 심증을 헤아릴수 없었던 두 대원은 그이께서 중대장일행때문에 실훈 이곳을 뜨지 않으실것 같은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다.

《사령관동지, 적의 대부대가 대황구일대를 덮치려고 날치는 이 복새통에 류경철중대장이 어떻게 이리로 찾아오겠습니까. 이제는 찾아오기가 틀렸습시다. 사령관동지, 더 지체 마시고 어서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전호섭이 이렇게 간청해 나서자 최인수도 자기의 의사를 덧붙여 말했다.

《중대장동지도 돌변한 이곳 형편을 보고는 이제 당장은 사령부를 찾을수 없는 일이라고 단념하고말텐데 일단 이곳을 떠나셨다가 적들이 물러간 다음 중대장동지일행을 찾으면 안되겠습니까?》

잠시 덤덤한 기색으로 수림속에 스러져가는 해그늘을 보시던 그이께서는 못내 섭섭하신틀 무거운 어조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그러니 그 동무들을 버려두고 우리만 떠나자는거지.》

섭섭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노여워하시는 기색이 어리여있는듯싶었다. 그이께서는 어조를 바꾸어 근엄하게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은 아직 혁명동지 한사람 한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모르는것 같소. 우리가 혁명을 하는데서 가장 귀중한것은 혁명동지요.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 동지적 의리와 우애를

떠나서야 우리들사이에 그 무슨 혈연적인연관계를 생각할수 있겠소.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정황속에서나 동지들사이의 약속과 혁명적의리를 꼭 지켜내야 하오.

이점에서 우리 류경철중대장과 견줄만한 동무는 그리 많지 못할거요. 그 동무는 사령관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충직한 동무요. 모름지기 지금 이 시각에도 중대장동무는 우리와의 한 약속을 금언으로 새기고 허기져서 비칠거리는 나어린 두 대원을 옆에 끼고 죽을 힘을 다하여 사령부로 찾아올거요. 설사 여기로 적군부대가 덮쳐들어 숙영지를 꾸리고 불무지들을 만들어 사령부천막자리 일대가 불바다속에 잠긴다 해도 오늘밤 열두시전으로 여기로 옮겨란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한 약속을 어기고 여기에서 모두 피신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사령관으로 뚫아들어온 그 동무의 심정이 과연 어떠한겠소? 이를바 없이 랭혹한 배반을 당해 짓궂긴 그의 아픈 심정을 동무들은 상상도 못할거요.》

사령관동지의 말씀은 어느때없이 절절하게 울리며 최인수의 가슴을 찢릿하게 하였다.

최인수는 젖어드는 눈굽을 숨버거리며 코숨을 불다가 끝내 아무 말씀도 울리지 못했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길수록 최인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심장이 옥죄여들었다.

돌아켜보면 이런 경우를 이번에 처음으로 당하는것이 아니었다.

언제인가 있는 그 일도 류경철중대장과 관련된 일이었다.

...류경철중대장의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었다.

그날 경위중대가 목재소를 경비하는 적의 수비대를 습격하였다. 최인수는 전투가 끝나고 철수신호가 오를무렵에 창고의약품상자를 놓치고 있다는것을 감촉하게 되었다. 당장 철수신호가 오를 무렵이었지만 그는 창고안으로 비호같이 달려들어갔다.

그는 한 가마니들이 놓여있는 밑에 약품상자가 가리워져있는것을 발견하고 쉽게 들어내올수 있으리라고 타산하고 접어들었는데 어찌나 무거운지 그것을 끌어내느라고 매삼치고있었다.

이렇게 되자 뒤따라 들어온 류경철중대장이 최인수를 도와 그 상자를 들어내오게 되었는데 창고출입문우에서 흔들흔들 춤추고있던 불달린 서까래가 중대장의 왼쪽어깨를 내려치며 그만 그가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오소리기름을 구하는 수소문이 온 부대에 퍼졌다.

그랬건만 이삼일이 지나도 오소리기름을 구해오는 사람이 없었다. 최인수는 수소문을 하면서 군의관을 찾아갈 생각도 했으나 지방에 정치공작을 나갔던 몇몇 동지들이 돌아오는통에 바빠 돌아치다나니 화상을 입은 중대장이 고통을 당하

고있다는 생각이 점차 희미해져갔다. 그는 사령관동지께서 류경철중대장의 화상치료를 녀려하시여 오소리를 아는 사람과 농촌출신의 대원들을 몇사람 뽑아서 오소리잡이에 내보내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있었다.

그날은 류경철중대장의 생일날이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최인수를 부르시여 작식대에 가서 책임자동무에게 생일상을 준비한것들을 이리로 날라오도록 이르고 병실에 가서 류경철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을 데리고 오라고 분부하시였다.

그때에야 최인수는 (아, 오늘이 중대장동지의 생일날인걸 내가 깜빡 잊고있었구나.) 하고 자책했다.

병실에 들어선 그는 더욱 놀랐다. 그자리에는 다른 중대의 두 동무들이 와서 류경철중대장의 화상당한곳에 오소리기름을 바르는것을 정치지도원이 도와주고있는것이였다.

《이 동무들이 오소리를 잡아가지고 사령부천막으로 가는것을 내가 이리로 데리고 왔소.》

정치지도원이 하는 말이였다.

《몹시 분당하신 사령관동지께 어떻게 오소리기름을 발라주는 수고까지 끼쳐드릴수가 있겠소. 그러니 최동무가 사령부에 돌아가서 사령관동지께 이 일만은 고해바치지 말아주기를 부탁하오.》

정치지도원의 이러한 너스레가 자못 우습강스러웠던지 류경철중대장은 한쪽 팔을 비꼬아올린 불편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헤벌쭉 웃고있었다.

그러나 최인수는 이러한 단란한 분위기에 휩쓸려들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오소리기름을 바르기 위해 화상자리에 엉켜붙은 유지를 땀 때마다 경련이 일어 어깨를 부르르 떠는 중대장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차마 볼수 없어 외면하게 되는것이였다.

화상자리에 대한 처치가 끝났을 때에 최인수가 사령관동지의 분부를 전달하자 정치지도원은 중대장과 오소리를 잡아가지고온 두 대원을 데리고 사령부천막으로 향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두 대원을 반갑게 맞으시며 오소리를 잡아가지고 온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생일상에는 참나물김치와 참나물무침만이 아니라 고사리무침과 물고기기를 구운것이며 오소리고기볶음까지 올라 실로 푸짐하고 탐람한 생일상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 류경철중대장에게 베푸시는 은총과 극진한 보살핌에 최인수는 가슴이 후터워졌고 지휘관에 대한 전사의 본분과 도덕적의리를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에 끝없이 송구스러워지는 것이였다. ...

이처럼 자기의 중대장에 대해 떳떳치 못하게 처신한 지난날의 일을 두고 자기 모멸감에 사로

잡혀 모대기던 최인수는 만일 자기가 사령부천막 자리에 남아 류경철중대장을 맞이하겠다고 나선다면 사령관동지께서 못내 걱정하시는 시름을 덜어드리게 될 것이고 한목숨 내대고 사령부천막자리로 한치한치 뚫아들어올 중대장을 또한 기쁘게 해줄것이다. 내가 이렇게 동지적민음과 동지적의리를 지켜내게 된다면 가슴에 맺혀있던 중대장동지에 대한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감정도 씻어버릴 수 있을게 아닌가, 이런 혼자생각을 더듬게 된 최인수의 가슴은 후둑후둑 뛰었다. 그는 사령관동지께 큰 목소리로 거침없이 말씀올렸다.

《아까는 제가 생각이 짧아 사령관동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다나니 처신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사령관동지, 제가 혼자 남아서 돌아오는 중대장동지를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전호섭동무도 저와 같은 심정이겠지만 그 동무는 기침을 해서 안됩니다.》

《최인수가 남겠단 말이지! 장하오, 아주 장해!》

사령관동지께서는 대견해하시며 그의 어깨를 쓸어안으시었다.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이 어려운 자리에 자진해서 나서겠다고 하니 얼마나 대견하고 기쁜지 모르겠소. 정녕 장해!》

그이께서는 최인수를 놓지 못하신채 환한 미소를 띄우시었다.

《인수동무가 내 시름을 크게 덜어주누만. 동무가 장한 결심을 하게 되니 내 마음이 가벼워져서 적들을 본때있게 족칠수 있는 싸움을 펼수 있게 되었소.》

사령관동지의 얼굴에는 뜨거운 열정이 넘쳐나고 도도한 패기와 기상이 어려였다.

그이께서는 활달한 걸음을 몇발자국 옮겨놓으시다가 전호섭에게 분부하시었다.

《정치지도원동무한테 출동준비를 시키고 소대장동무들과 대원 넷명을 데리고 사령부로 오라고 하오. 그리고 군수관동무한테 석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보오.》

사령관동지께서는 전호섭을 보내신 다음 최인수에게 미친한 이야기를 계속하시었다.

《피눈이 되어 날뛰는 적들이 사령부천막자리를 찾아낼수 있소. 그렇게 되면 놈들은 오늘밤 여기에 숙영지를 정하고 이 일대를 불무지로 깎아내리게 할거요. 그리고 여기에도 불무지를 만들수 있소. 그렇지만 인수동무는 이곳을 떠나서는 안되오. 중대장동무가 어느 순간에 은밀히 찾아들어올지 모르오. 내가 보기엔 천막뒤 바로 이 잡관목숲속이 은신해있기에 아주 좋을것 같소,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적으로 확증된 진리요. 적들은 제 코앞에는 주의를 덜 돌리오. 그러니 마음을 대담하게 먹으면 되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중대장동지를 기다렸다가 맞이하겠습니다.》

《사람이 굳은 결심만 가지면 못해낼 일이 없소, 우리가 요만한 난관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동지적의리를 저버리고 약속을 어긴다면 혁명을 해낼수 없소. 동지적우애와 믿음, 혈연적으로 굳게 이어지는 의리를 떠나서는 혁명적동지관계란 생각할수 없소. 동지적민음과 사랑, 혁명적의리에 의해 일심동체로 단결된 여기에 그 어떤 대적도 처부시고 그 어떤 불바다도 뚫고 헤쳐나갈수 있는 필승의 힘의 원천이 있는거요. 이것은 우리가 혁명투쟁과정에서 체득한 진리요.

인수동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중대장 류경철동무를 기다리겠다니 나는 더할나위없이 기쁘오. 그 동무는 우리와의 약속을 추호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여기고 오늘밤 열두시전으로 기어이 돌아올것이요. 나는 나자신을 믿듯이 류경철동무를 믿소.》

사령관동지께서 나직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으나 최인수는 너무나 크나큰 충격을 받아 심장이 터질듯 높뛰고 눈곱이 확확 달아올랐다.

최인수가 주체할수 없는 걱정과 흥분에 휩싸여있을 때 전호섭을 따라 중대정치지도원일행이 사령부천막으로 들어왔다.

《석유가 남아있다고?》

《네, 한초롱정도 있답니다.》

《그렇게 있으면 됐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쾌활하게 말씀하시며 이어적정을 설명하시었다.

《지금 대황구쪽에서 한개 련대가량의 적들이 이리로 밀려들고있소.

그러니 소대장동무들은 자기 소대원들을 돌고개어구에 매복시켜 적들의 눈에 띄우지 않게 해야겠소. 한총구로 빠지는 좁고 경사가 심한 돌박산길을 따라 동쪽벼랑턱에 매복진을 치자는거요. 이곳 등판에 밀려드는 적들은 이미 날이 어스어스해오느라여서 겁을 집어먹고 여기에서 숙영하게 될게요.》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었다가 중대정치지도원에게 지시하시었다.

《정치지도원동무는 제 1 소대에서 한개 분대성원들을 이끌고가서 적 기마대 마초창고를 지키는 경비대놈들을 치오.

그 창고는 기마대본부까지 마초를 실어나를수 없어서 마초를 립시로 보관하기 위해서 산적한 마초더미들우에 되는데로 지붕을 덮은 허름한 창고요. 어둡기전에 가서 정찰을 해두었다가 밤한시에 치자는거요. 마초더미들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달면 화광이 충천할게고 이때 총을 쏘아대면 여기서 숙영하던 적련대가 질겁해서 창고를 구원하려고 비상소집을 할게 아니겠소. 그놈들이 한총구로 빠지는 좁고 가파로운 길목에 모여들어 밀고 닥치고할 때 벼랑우에 매복하고있던 우리

중대가 기관총들까지 휘두르며 몽땅 요정내자는 거요. 어쩡소?)

《아주 통쾌한 전투입니다.》

정치지도원과 소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찬동했다.

정황이 복잡다단한속에서도 이처럼 기발한 작전을 구상해내시는 사령관동지를 최인수는 놀라운 심정으로 우러러보며 그이의 전사된 공지를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정치지도원이 데리고 온 대원들이 곧 달려들어 사령부천막을 해체하고 비품들을 철수해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자리를 뜨시기전에 류의할 사항들을 다시금 일깨워주시였고 허기진 류경철 중대장일행에게 미시가루로 요기를 시킨 다음 밤 한시까지 돌고개어구로 데리고오라고 당부하시고 떠나가시였다.

날이 컴컴해오자 대황구고개가 소란해졌다.

최인수는 사령부천막자리뒤에 있는 잡관목속에 들어가 은신처를 꾸리기 시작했다.

대황구고개를 넘어온 적들은 더 가지 않고 숙영준비를 서둘렀다.

등판 곳곳에 모닥불이 타올랐다.

최인수는 자기 주변에 적들이 돌아칠 때마다 덜미라도 잡힐것 같아 웅숭그러지는것이였다. 더우기 매캐한 냄새가 풍겨들어 가쁘게 몰아쉬는 숨결에 당장 채채기가 터져나올듯 목안과 코구멍이 근질거려나 그것을 참기가 막 죽을내기였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령관동지께서 예언하신대로 천막자리 바로 코밑에 있는 숲에 그 어떤 놈팽이도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해종일 미친개같이 돌아치던놈들이 우등불결에 꼬꾸라져 코를 끌다가 침에 개겼는지 퉁퉁거리며 당장 죽어자빠지는 소리를 지르는놈이 있는가 하면 이를 빠득빠득 갈며 너두리를 하듯 잡꼬대를 씨부려대는놈도 있다.

최인수는 놈들이 잠에 취해 뿔아떨어지고 밤이 어지간히 깊어감에 따라 바스락소리 하나 놓칠세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강구며 류경철 중대장이 나타나기를 이제나저제나 하고 안타까이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사령관동지께서 자기자신처럼 류경철 중대장동무를 믿으신다고 하시던 말씀이 천근무게로 가슴속에 자리잡고있어 틀림없이 열두시전으로 중대장동무가 당도하리라고 굳게 믿고있었다.

그런데 삼태성도 기울어지고 사령부천막자리 우등불앞에서 서성거리며 보초를 서는놈들까지 코방아를 찧다가 우등불결에 기여들어 잠에 뿔아떨어지는것을 보게 되면서 한몫으로 흐르던 최인수의 기대는 저도 모르게 흐트러져갔다.

(왜 아직도 안올가? 이제 자정이 넘었겠는데...어찌된 일일가? 혹시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이 일대가 온통 불무지로 뒤덮인것을 보고 실망해서 찾아들어오기를 단념해버린거나 아닐가?)

최인수가 이런 어수선한 상념에 빠져들기 시작한 때였다.

그지없이 고요한 밤의 장막을 흔들며 불시에 바싹하고 마른 쑥대같은것이 부러지는 소리가 귀청을 따갑게 울리였다.

최인수는 신경이 곤두서서 주위를 살피였다. 사령부천막자리에 피워놓은 우등불앞에서 서성거리던 적보초놈은 이미 잠에 뿔아떨어진터여서 그는 그 우측에서 거물거물하는 우등불쪽을 눈여겨 살펴보았다. 보초놈들의 동향은 고사하고 보초를 그냥 서고있는지 아니면 굳잠에 나떨어져 초소가 비어있는지 어쩐지조차 확인할수 없도록 우등불도 사그라져 컴컴해지고있었다.

그렇지만 그 바싹하는 소리가 보초놈들이 낸 소리가 아니라하는것은 곧 알아차릴수 있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증증하더니 이번에는 마른 풀대들을 쓸어눕히는 나직한 소리가 들렸는데 몹시 조심하는 모양이였다. 곧 잇달아 무거운 물체가 땅에 쓸리는상실은 둔중한 소리가 스프릭스르릭하고 련달아 몇번 나다가는 몇군했다.

최인수는 신경을 도사리며 귀를 바싹 강구었다.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리며 뛴뛴였고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어리였다.

얼마나 마음을 조이며 기다려오던 시각인가.

이 한밤중에 사령부천막자리로 조심스레 기여드는것으로 보아 류경철중대장이 틀림없다는것을 그는 온 육감으로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등판일대가 불바다로 변한 지금 사령부천막자리를 향해 죽음을 무릅쓰고 기여들어오고있는 류경철중대장이 얼마나 긴장해있으랴 생각하니 가슴이 후둑후둑 뛰여 무작정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스프릭스르릭 배밀이하는 소리가 들려오는곳으로 잔뜩 새우등을 해가지고 온 신경을 귀에 모으며 한발작한발작 저거디더나갔다. 그러자 이쪽에서 은밀히 접근해온다는 기미를 쟤 모양 배밀이소리가 푹 멎었다.

이렇게 되자 최인수는 극도로 불안해진 중대장동무가 공연한 모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바작바작 났다. 그는 서둘러 사령부천막자리와 그 우측 불무지들을 다시한번 살피고나서 한껏 목소리를 죽여가며 마치 군호나 알리듯 거듭 뇌였다.

《중대장동지, 중대장동지! 나는 최인수, 나는 최인수!》

비록 나직하나 절절한 귀에 젖은 그 음성을 류경철중대장은 대뜸 알아챈듯 몸을 일으켜 앉으며 한걸음한걸음 다가오는 최인수를 끄당겨 뜨겁게 끌어안았다.

그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듯 관목사이를 몇걸음 걸어나가다가 멎어섰다.

《중대장동지가 돌아오니 이제는 만시름이 다 놓입니다.》

류경철중대장은 후더워지는 눈길로 최인수를 한동안 굽어보다가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안녕하시오?》

《네, 사령관동지께서는 중대장동지일행이 돌아오기를 몹시 기다리시다가 〈토벌대〉 놈들이 이곳에 달려들기 직전해야 뜨셨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사령관동지께 그토록 심려를 끼쳐드렸으니 어떻게 사죄를 하겠소. 다시 뵈을 면목이 없구만. 어제만 돌아왔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텐데…

내가 이렇게 늦어졌기때문에 공연히 인수동무의 애간장들을 얼마나 태웠겠소.》

류경철중대장이 자책에 모태길수록 그를 애지중지하시며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바 없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주시던 사령관동지의 그지없이 자애롭고 승엄한 영상이 가슴뜨겁게 안겨들어 최인수는 목메여 더듬거렸다.

《사령관동지의 깊은 심정을 헤아릴수 없었던 저희들이 위기를 모면시켜드려야 한다는 일념에서 불안과 초조에 빠져 곧 천막을 떠나실것을 간청하자 사령관동지께서는 질책하시며 근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자신을 믿듯 류경철중대장동무를 믿소. 그 동무는 설사 사령부천막자리가 온통 놈들이 지퍼놓은 불길에 싸여 불바다로 변한다 해도 오늘밤 열두시전으로 기어이 여기로 찾아들어오우.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를 버리고 떠날수 있소?》

지금도 사령관동지의 그 불보다 뜨거운 말씀이 가슴속에 솟구치군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이 전사를 그토록 믿어주시다니… 내 천백번 다시 태어난다 한들 이같은 믿음과 의리에 어찌 보답하겠소.》

그는 가슴을 치며 목이 메었다가 웨치듯 부르짖었다.

《내 설사 사령관동지를 뵈을 면목이 없는 전사이지만 그이의 안녕을 해치려 날치는 불한당놈들을 어찌 그냥두겠소. 내 놈들과 계산할게 있으니 한걸음 먼저 떠나가요.》

이 말을 남기며 몸을 휙 돌리는 류경철중대장에게 무섭게 덮쳐들며 그 팔소매를 거머잡은 최인수는 황급하게 웨쳤다.

《중대장동지,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중대장동지가 이러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중대장동지가 이런 무모한 모험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령관동지께서 얼마나 위험한 걸음까지 걸으셨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제가 미처 중대장동지에게 알려드리지 못한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좀전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옥죄어드는것 같습니다.》

그는 가쁜 숨결을 뿔으며 말했다.

《글쎄 적들이 막 닥쳐들무렵에야 사령부천막 자리를 떠나신 사령관동지께서 놈들이 대황구고개로 쓸어넘어올 때 가시던 걸음을 되돌려 여기로 다시 오신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심장이 얼어드는것 같애 〈아니, 사령관동지께서 어찌자고 이 사지판으로 되돌아오시는겁니까?〉 하고 울먹이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랬건만 사령관동지께서는 태연자약한 기색으로 말씀하시는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만 꼭 해야 할 당부를 잊고 떠난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되돌아왔으니 명심해 들으시오. 류경철중대장동무는 사령부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동을 보고서는 참아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놈들의 불무지들을 기습하고 그놈들을 요정내려고 모험을 단행해나설수 있소. 현대 류경철중대장이 수백, 수천명을 쓸어버린다 해도 만일 그 동무가 잘못되는 날에는 그 애석함과 상실감을 무엇으로 메꾸겠소? 절대로 메꾸낼수 없소. 그러니 내 간곡히 당부하는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모험을 못하도록 그를 다잡아야 하오. 그래야 우리가 감쪽같이 그놈들을 요정낼수 있을게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다잡아놓을테니 안심하시고 떠나주십시오.〉

나의 대답을 들으시고서야 사령관동지께서는 놈들이 등판에서 어슬렁거리고 돌아섰건만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돌고개를 향하여 걸어가시는것이였습니다.》

(아, 이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그 귀중한신 몸을 한 전사의 위협을 막으시기 위해 것처럼 가시던 길을 되돌아서시다니…)

류경철중대장은 최인수의 팔소매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먹거리며 흐느꼈다.

최인수는 자기의 어깨를 쓸어안은 중대장의 손을 지그시 잡았다. 그러며 자기 귀전에 뜨겁게 울리는 중대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 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에 혁명적의리와 충성으로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심려만 끼쳐드리는 이 미련한 전사를 것처럼 아끼시고 돌보아주시다니… 아, 하늘같은 이 은덕에 무엇으로 보답하담!》

걱정으로 떨리는 목소리였다.

중대장을 부축하며 발을 옮겨가는 최인수는 걸음을 짚어갈수록 자기의 오른쪽어깨에 무겁게 실리는 중대장의 몸무게를 느끼며 이처럼 쓰러질것같은 사람에게 어디에 그런 힘이 있어 적의 불무지를 치며 놈들을 요정내겠다고 떨쳐일어났는지 모를 일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얼마후 최인수는 돌고개마루밑에서 중대장의 일행인 두 대원도 만나 그들에게 요기를 시킨 다

음 벼랑턱밑으로 갔다. 다니던 사람만이 겨우 찾아낼수 있는 오솔길인데 부석돌들로 메꾸어져 어렵짐작을 해내기도 힘들었다.

마침 돌벼랑가에서 대기하던 군수관의 눈에 띄우게 되어 그의 억센 팔에 의해 그들은 돌벼랑 위에 난 오솔길에 올라서게 되었다.

군수관은 이제 곧 전투가 벌어진다고 했다.

아닌게아니라 얼마후 한총구쪽에서 자지러지게 총소리가 몇방 울리더니 온 하늘을 불태울듯 붉은 불타래들이 치솟아오르며 충천하는 화광으로 한총구의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러는 가운데 총소리는 더욱 자지러져갔다.

사령관동지께서 현명하게 예견하신바대로 등판에서 숙영하고있던 적의 편대가 비상소집의 나팔을 불어대고 복새통을 일으키며 한총구로 빠지는 좁고 경사진 골짜기길로 쏟아져나왔다. 놈들이 죄다 좁은 길목에 들어서서 붐비고 돌아갈 때 신호총이 울렸다. 그러자 기관총소리가 울부짖었고 보총소리가 쿵쿵듯 자지러지게 울리는가운데

이따금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위압적으로 덧실리었다.

최인수는 하도 통쾌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류경철중대장은 손벽을 치다가 성차지 않은듯 두손을 번쩍 들어 《만세!》, 《만세!》하고 환호성을 터뜨리는것이였다.

류경철중대장일행은 군수관에게 이끌리어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지휘처로 향하였다.

...그때로부터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다. 머리에 백발을 엮은 최인수장령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엄혹하던 시기에 적의 대군이 밀려든 불바다속에서도 한 혁명전사와의 약속을 어길수 없어 떠나가지지 않던 일이며 자기 자신을 믿듯이 류경철중대장을 믿는다고 하시던 그 천금같은 말씀을 가슴속깊이 아로새기고 어제도 오늘도 삶의 한순간한순간을 혁명적의리와 충성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우리가 대중의 혁명화를 위해 것처럼 전력을 다한것은 그들을 우매하고 미개한 계몽대상으로만 보아오던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인민이야말로 우리의 선생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한데 있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갔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이 구호는 나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좌우명으로 되었다.

나는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였고 오늘날도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혁명을 계속하고있다. 그리고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인생을 총화하고있다. 단 한번이라도 인민들과의 접촉을 게을리하고 단 한번만이라도 인민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10대의 시절에 이미 형성된 인민에 대한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오늘까지 간직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인민에 대한 참다운 복무자가 되지 못하였을것이다.

인민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인민의 지혜와 창조력이 무한정 발양되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우리를 인민행렬차에 처음으로 태워준 길림시절에 감사를 드리곤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중에서-

명당자리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념비적건축물의 자리나 공장부지를 잡아주신 사실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는 북부산간지대에 자리잡은 어느 한 공장부지와 관련한 이런 전설도 있다.

어느해 여름, 한 일군은 우리 나라 북부지대에 새로 건설할 공장부지를 잡을데 대한 과업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해당부문 일군들과 함께 며칠째 북부지대를 답사하였으나 공장건설에 알맞는 부지를 찾아낼수 없었다고 한다.

부지를 산악지대에 잡자니 공업용수가 걸리고 강을 낚곳에 잡자니 유해가스와 폐설물 처리가 문제였다.

이고장에 태를 묻고 자라온 일군들도 그런 공장을 건설하자면 공장건물을 들어앉힐 부지는 물론 공업용수와 수송조건 같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다 갖추어져야 하겠는데 그럴만한 부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일군들은 벌써 여러날째 산을 뚫았으나 공장부지를 찾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견잡지 못하며 모태기고있었다.

더는 시일을 끝수가 없었다.

일군들은 협의를 거듭하던 끝에 이 사실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고올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마침 이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다 이 지대의 어느 한 간이역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이고장에 모시게 된 일군들은 기쁨을 금치 못하며 그 역으로 달려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아직 공장부지를 확정하지 못하여 어버이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러니 이곳에 그런 부지가 없단말이지요...》라고 조용히 되뇌이시더니 차창가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한동안

창가에 눈길을 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턱에 놓여있던 쌍안경을 드시였다.

류다르게 렌즈가 볼록하고 광채가 도는 쌍안경이었다.

차창너머로 깎아지른듯한 산발들을 둘러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곳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이윽도록 한 봉우리를 주시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쌍안경을 드신채 한 일군에게 《저 바위산뒤편이 좋을것 같구만.》하고 말씀하시였다.

산봉우리에 유묘하게 선바위가 있는 산이었다.

《그 산은 온통 바위투성이여서...》

그 일군은 말끝을 채 맺지 못하였다.

《내 보기에는 저 산너머 골안에 삼태기처럼 오목하고 해 잘 드는 분지가 있을것 같소. 물론 물도 많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시금 쌍안경으로 보시며 일군들에게 선바위가 있는 봉우리 우측골안을 타고넘으면 일군들이 바라는 그런 명당자리 분지가 꼭 나질것이라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결을 떠나 그곳으로 가는 일군들은 의문을 금할수 없었다. 이고장에서 오래 살고있는 사람들도 여적 보지 못했고 며칠씩 지도작업을 하고 편답을 하면서도 찾지 못한 그런 분지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십리밖에서 쌍안경으로 한번 보시고 찾아주시니 도저히 리해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설에 나오는 도사와 같은 신통력을 지니시였든가 아니면 그 쌍안경에 어떤 조화가 있는것만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수십리밖에서 쌍안경으로 산세를 한번 훑어보시고 공장부지가 있다고 확신하시겠는가, 그것도 삼태기처럼 오목하고 해 잘 드는 골안이라고... 일군들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산골짜기를 따라 령길로 올랐다.

바위산령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그들의 등골에는 어느새 땀이 도량물처럼 흐르고 얼굴에는 하얗게 소금꽃이 피었다. 마른 목을 추기느라고 입술을 감싸니 거기에도 짙짙한

소금이 내뿜었다. 그래도 그들은 강심을 먹고 깎아지른 령길을 돌아올랐다.

이윽하여 그들은 칼벼랑이 마주선 골목길에 들어섰다. 우를 쳐다보니 까마득히 동전잎같은 하늘이 보일뿐이었다.

사실 그들은 며칠전에도 바위산뒤에 가보았었다.

그러나 공장부지로 될만한곳이 못되기에 돌아섰던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벼랑길끝에 분지가 있으리라는 자기만의 확신이 있어 땀 흘리며 걸음을 다그치는것이 아니었다.

오직 천리혜안의 통찰력과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신통력만을 믿고 걷는것이였다.

그들이 칼벼랑 사이길을 반시간나마 걸었을까였다.

갑자기 하늘에 검은구름이 덮이더니 번개가 일고 《쿵-쿠궁-짜르릉》하는 천둥소리가 하늘땅을 들었다놓았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깨져나가는듯싶었다.

놀란 그들은 그자리에 꼼짝 않고 서있었다. 산이 통채로 어디론가 움직이는것 같은 환각이 일어났다.

조금있더니 하늘이 말짱하게 개이고 칼벼랑 사이길로 선들바람이 불어오며 온몸의 땀방울을 씻은듯이 걸어갔다.

걸음발에 날개가 돋친듯 그들은 훨훨 날다싶이 벼랑길을 달리었다.

그러던 그들은 환성을 질렀다.

칼벼랑 사이길이 끝나자 사방 30 리가 잘되어 보이는 커다란 분지가 눈아래에 무연히 펼쳐져있기때문이었다.

분지둘레엔 하늘을 찌르는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섰는데 정말 삼태기처럼 오목하고 해잘드는 골안이었다.

그들은 눈을 부비고 보고 또 보았다.

이런 골안이 언제 생겨났는가. 전날에 왔을때 이런 분지가 있는것을 왜 못보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을 풀수가 없었고 신기하기만 했다.

때는 7 월이라 분지에는 신록이 든 갖가지 풀들이 꽃동산을 이루었다.

그런가 하면 벌과 나비와 이름모를 멧새들이 날아예며 지지배배거리고 얼룩점이 박힌 꽃사슴, 두귀 쫑긋한 산토끼, 꼬리짧은 노루들이 마음껏 뛰놀아 예가 동물원이 아닌가싶었다.

황홀경에 사로잡혀 분지에 들어서던 일군들은 누구라없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싸리순을 뜯던 한무리의 노루가 달아날념도 하지 않고 눈들이 울롱해서 그들을 바라보기때문이었다.

일군들은 노루가 노는양이 너무도 재미있어 얼굴가득 웃음을 담았다.

일군들의 웃음을 애무로 받아들이는지 노루 한놈이 그 짧은 꼬리를 우습강스럽게 저으며 풀밭에 난 오솔길로 천천히 걸어갔다.

일군들도 그 길로 따라걸었다.

한동안 노루떼를 따라걸던 그들은 귀를 강구었다.

어디선가 지심을 울리며 물소리가 들려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깎아지른듯한 벼랑밑에 뻗뻗이 자란 수양버들이 휘늘어진 가지를 흔들며 어서 오라 손짓하고있었다. 그들은 노루와 같이 그 길로 뛰어갔다.

수양버들가지를 헤가르고 칼바위를 에돌아 벼랑앞에 다달은 그들은 또 환성을 올렸다.

수십메터가 될 벼랑중턱에서 명주필을 드리운듯 은빛물결이 싸싸 소리치며 쏟아져내리고있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벼랑을 타고 흘러내린 물줄기가 소리없이 땅속으로 잦아드는것이였다.

서둘러 그리로 가보니 다래냉쿨, 칠평냉쿨에 뒤덮인 집채같은 바위들이 촘촘이 들이박혀있는데 물줄기는 그리로 잦아드는것이였다.

《야, 희한한데!》

일군들은 환희에 넘쳐 물을 한웅큼씩 떠마시었다.

가슴이 쩡 열리고 온몸에 장수힘이 솟구쳤다. 당장 이곳에 공장을 일떠세우고싶었다. 이곳에 공장을 일떠세우면 음료수도 공업용수도 문제없고 퇴수처리도 식은죽먹기로 할수 있었다.

그리고 30 리 넓은 분지를 가로질러 대통로를 쭉 내고 고층살림집들을 일떠세우면 세상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지상천국이 될것 같았다.

《이거야말로 명당중의 명당이다.》

이렇게 웨치며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가던 일군들은 하나같이 그자리에 굳어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눈앞에 우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십리나 떨어진 간이역에서 어떻게 이곳을 점지하시고 예지의 손길을 들어 이런 명당자리를 가르쳐주시였을까 하는 의문이 또다시 가슴가득 차올랐기때문이었다.

아무리 생각을 굴리어도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다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시던 유난히 광복이 도는 그 쌍안경이 눈앞을 가릴뿐이었다.

(그러니 그 쌍안경에 조화가 있단말인가?!)

의문은 발이라도 달린듯 새 공장을 일떠세우려 달려온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도 번져갔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휴식을 하면서도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논쟁판을 벌리곤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누구보다도 산세에 밝으시기때문이라하니, 《좌견천리》(앉아서도 천리를 본다는 뜻)하시는 술법을 지니고계시기때문이라하니, 갑론을박하는 논쟁은 끝날줄을 몰랐다.

그런데 달을 넘기며 계속되던 논쟁은 어느 하루 뜻밖에도 너무 쉽게락착되었다.

그것은 어른들의 논쟁에 끼여든 책상물림의 솜털이 보르르한 애어린 신입로동자가 너무도 강경히, 너무도 확신성있게 그 의문에 말짱을 박았기때문이었다.

그날 신입로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예요, 그건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천리만리를 들고 보는 〈신기한 쌍안경〉을 가지고 다니시기때문이에요!》

로동자들은 그의 표정이 너무도 확신에 넘쳐 더 론박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천지조화를 일으키시어 명당자리를 마련해주신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원래 바위산뒤 명당자리에는 공장부지로 될만한 분지가 없었다는것이였다.

여기서 나서자란 사람들이 왜 그것을 모르겠는가는것이다.

그때 천둥이 운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라는것이였다.

그고장에 현대적인 공장을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드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천지조화술로 명당자리를 마련해주셨다는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도 믿지 않을수 없지 않는가.

지금 그곳에는 현대적인 기술장비를 갖춘 공장이 일떠서 조업한지 여러해가 지났다.

지금도 이공장 사람들은 자기 공장의 유래를 설명할 때면 의례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해주신 명당자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즐겨하곤 한다.

가사

라향의 봄날에

림공식

해빛도 눈부신 봄날
진달래 활짝 핀 봄날
너전사 장군님 곁에 모시고
웃으시며 사진을 찍으시였네
아 타향의 봄날에
그 미소 행복의 꽃으로 폈네

기쁨이 넘치는 봄날
밀림도 설레는 봄날
장군님 모시고 내 나라 찾을

너전사 그 마음 불타올랐네
아 타향의 봄날에
광복의 해발로 빛을 뿌렸네

세월이 간직한 봄날
인민이 못잊는 봄날
장군님 우러러 꽃핀 그 미소
눈비도 지우지 못하리라
아 타향의 그 봄날
조선의 영원한 노래되었네

《우리의 노래가 혁명투쟁과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가사문학에서부터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가사는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어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가사혁명의 불길속에서 (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사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지펴주시고 이끌어주신 가사혁명의 불길속에서 번영하는 주체의 조국강산에 가사문학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명곡풍년이 들게 되었다.

가사혁명을 하여야 한다시며

일찍부터 명가사를 창작하시여 가사문학의 고전적본보기를 마련해주시고 가사문학발전을 위해 깊은 심혈을 기울여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사창작작업을 보다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1975 년 2 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노래 4 편을 지도하시였다.

그 노래 가사들로 말하면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당정책적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창작된것이였다.

가사를 몇번이고 다시 보시고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사에 결함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노래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의 경우에 1 절에서는 생산에 대한것을 형상하고 2 절에서는 학습에 대한것을 형상하며 3 절에서는 생활에 대한것을 형상하면서 마지막에 후련을 반복하게 하여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할데 대한 내용을 넣으면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창작가들과 일군들에게 심중한 어조로 이번에 쓴 3 편의 가사를 놓고 분석해보면 시인들이 가사창작을 훌륭히 하였으며 특히 정열이 없이 창작하였다고 하시면서 작가의 열정이 담겨지지 않은 작품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킬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몇편의 가사를 보시고도 가사창작에 대한 시인들의 그릇된 립장과 태도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내시며 좋은 가사가 나오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들을 들으며 창작가들과 일군들은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깊은 자책에 싸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창작가들과 일군들을 지켜보시다가 가사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좋은 가사는 몇줄 되지 않아도 그속에 당의 사상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며 인민들속에 인차 널리 보급되고 오래동안 남게 됨으로써 다른 모든 문학예술작품들과 함께 가사는 형상성을 높여야 하며 당의 사상을 구호로써가 아니라 만사람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을 구호로써가 아니라 만사람의 심금을 울릴수 있게 써야 한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은 일군들과 창작가들의 가슴에 세찬 충격을 주었다.

새기면 새길수록 그이의 가르치심속에 깃들어있는 가사혁명의 본질과 요구, 가사의 형상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방도가 뚜렷이 안겨와 눈앞이 탁 트이는것 같았다.

참으로 가사혁명을 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가사문학발전에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사창작에서 낡은 창작태도와 형식주의적들을 대담하게 마스고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명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하는 바로 여기에 가사혁명의 본질적요구가 있음을 명백히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난 시기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반적인 가사문학의 형상성을 높여 가사창작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시인들을 계속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5 년 3 월 가사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국시인들의 협의회를 열도록 해주시였다.

대론쟁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지난 시기 시인들속에서 나타났던 가사창작을 홀시하는 그릇된 사상적경향들이 폭로비판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토의되었으며 많은 시인들이 충성의 가사들을 쓰기 위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사혁명을 위한 여러가지 중요한 혁명적조치들도 취하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우선 가사창작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할수 있는 중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제부터 새로 창작되는 가사를 심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시분과위원회에서 가사를 책임적으로 창작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지적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1975년 5월, 우수한 시인들을 선발하여 작가동맹에 가사창작실을 따로 내오게 되었으며 문예총에서 통일적으로 가사심의를 조직하고 수정완성한후에 실현하도록 하는 정연한 심의체계가 서게 되었다.

이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가사 창작과 심의에서 나타났던 종래의 산만성과 여러가지 불합리성이 극복되게 되었으며 가사창작에서 집체적지혜가 더 잘 발양되고 창작지도를 심화할수 있게 되었을뿐만아니라 가사 창작과 지도에서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할수 있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와 같은 혁명적조치를 취하여주시었을뿐만아니라 가사혁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사에 해당 시기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1975년 12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3대혁명에 관한 노래가 만수대 예술단에서 만든 중창곡 하나뿐이고 아직 온전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시었다.

이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3대혁명에 대한 노래를 많이 지을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3대혁명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쓸수 있는 자료까지 보내주시었는데 시인들은 아직까지 3대혁명에 대한 가사 하나 변변한것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거듭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 큰 충격을 느낀 시인들은 3대혁명에 대한 훌륭한 가사를 써내기 위하여 분발하였다.

그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로 창작된 가사들을 친히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치하를

주기도 하시며 우리 시인들을 더 큰 승리로 고무해주시었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가사창작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76년 한해동안에만도 가사《수령님 사랑속에 우리 행복 꽃피네》,《사랑의 샘물》,《푸른 소나무》,《혁명은 부른다 당의 전사들 앞으로》,《삼지연의 새벽길》을 비롯하여 근 30여편의 가사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치하를 받았으며 수많은 가사들이 노래로 작곡되어 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우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가사문학은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가사혁명은 가사문학앞에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더우기 가사혁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함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가사혁명을 더욱 심화해나갈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사창작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시면서 가사혁명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가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8년 3월 어느날 가사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좋은 가사를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개성적인 특색을 살려서 가사를 잘 쓰면 노래의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낼수 있는데 지금 가사들이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다 비슷하기때문에 노래를 얼핏 들어보아서는 어느것이 어느 노래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여 개성적특성이 잘 살지 못하는것은 가사에서 생활을 깊이있게 형상하지 못하기때문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가사에 충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있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것보다 생활적으로 형상을 잘 하여야 한다시며 그래야 노래를 듣고 나면 진짜 충성심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라는것이 안겨온다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개성적이고 정서가 깊은 노래를 창작하려면 창작가들이 끊임없이 사색하고 형상적인 세부를 깊이 탐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가사의 내용은 철저히 당의 유일사상으로 관통되어야 하지만 형상수법은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형상수법이 다양하게 되어야 노래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개성도 살아난다고 가르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가사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좋은 가사가 많이 나오지 못하고있는것은 가사심의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고있는것과도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고 하시였다.

가사심의를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가사문학의 형상적수준을 높이는데서 관건적인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그러나 당시 가사심의를 맡은 일부 일군들과 심의원들이 무책임하게 사업함으로써 가사심의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사심의에서 나타나고있던 이러한 결함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이 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심으로써 가사심의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진을 가져올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좋은 가사를 더 많이 써내기 위하여 가사창작을 대중화할데 대한 현명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좋은 가사를 창작하려면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은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고 하시며 군중창작원칙을 지켜 가사창작에 광범한 군중을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여 군중속에서 창작된 가사들가운데도 전문가들이 조금만 다듬어주면 좋은 가사로 될수 있는것들이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명가사창작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가사가 좋으면

노래가 좋은것이 나오고 노래가 좋으면 무용도 좋은것이 나오기마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78년 3월 22일에 주신 가르치심은 가사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이룩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이 있는 이후 훌륭한 가사들이 수많이 창작되여나왔다.

특히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좋은 가사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8년 11월 30일 가요《탄부의 영에 빛내여가리》를 들으시고 조국애, 공장애, 직업애가 잘 담겨져있다고 하시며 이 노래는 곡도 좋고 가사도 좋다고 치하하시였으며 그후 어느날에는 새로 창작한 노래 8편을 친히 들어주시고 가사와 곡이 좋다, 방송에서 많이 보급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가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또다시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것은 몇몇 시인과 몇편의 가사에 주신 평가만이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모든 시인들과 가사문학에 주신 높으신 기대와 신임의 표시이며 신심을 안고 가사혁명의 길로 더 억세게 전진하라고 떠밀어주는 자애로운 사랑과 배려였다.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빛나는 향도의 손길아래 가사혁명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아갔으며 주체적인 가사문학이 보다 활짝 꽃피나게 되였다.

조선의 국화 목란꽃

해수 곽호비

목란꽃은 조선의 국화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의 지향이 풍기는 꽃

목란꽃은 조선인민이 사랑하는 꽃
일터에도 학교에도 공원에도
취할듯한 짙은 향기 넘쳐나
대기를 신선케 하는 꽃

아름다운 나라
조선에 피어난 목란꽃
너의 그 향기
먼곳의 모든 가슴 취하게 하누나

깨끗하고 싱싱한 목란꽃

너는 사랑과 행복, 희망과 신념의 상징
순결하고 단아한 너의 모습
진실하고 정의로운 조선인민의 상징

여기 머나먼 베닌에서도
눈감고 조용히 네 이름 외우며
그 향기에 가슴젖는 목란꽃
너야말로 꽃중의 꽃이여라

목란꽃 조선의 꽃
사람들을 매혹시켜 삶의 기쁨 안겨주는 꽃
너는 근면하고 용감한 조선인민의 상징
너는 통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상징

(필자는 베닌대학교수임)

쌍무지개 비낀 내 조국

김원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돛행사장에서 터져올랐던 환호성의 메아리가 아직 여운으로 남아 있고 바야흐로 공화국창건기념일이 가까와오는 이 시각.

통일거리의 고층살림집 창가에서 아름다운 수도의 일경을 부감하는 나의 감회는 실로 흥겹다.

금방 한소나기 지나가 대지는 함초롬히 젖어 있고 건뚝 푸르게 들리는 하늘, 한쪽의 채색화마냥 선명하게 펼쳐진 대동강의 풍경!

《야 무지개, 쌍무지개!》

내 곁에서 함께 대동강의 경치를 즐기던 딸애가 감격에 젖어 소리치는 말이다.

그의 손끝에 눈길을 주니 과연 대동강반엔 아름다운 무지개가 펼쳐졌다.

《아버지, 쌍무지개야요. 쌍무지개가 서면 날이 더 좋아진다고요, 앞날이...》

딸애는 제집의 높은 창가에서가 아니라 강반을 장식한 쌍무지개속에 묻히기라도 한듯 흥에 겨워 재잘거린다.

쌍무지개! 더 좋은 앞날!...

철부지의 말이지만 결코 배사롭게 들을수 없는 딸애의 말이 나의 뇌리를 때린다. 그 애가 무슨 뜻과 의미를 담아 한말은 아니였지만 그 말에는 큰 뜻과 깊은 의미가 새겨져 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걱정을 어쩔수 없었다.

불현듯 나에게서는 지난 6월 20일 백두산의 장군봉과 향도봉을 련결하며 쌍무지개가 아름답게 비췄던 일이 생각되었다.

19일 저녁 백두산일대는 먹장구름으로 어둡속에 잠겼었다. 대낮같이 밝히는 번개불, 요란한 우뢰, 대줄기같은 소낙비... 순간도 쉬임이 없이 우뢰와 폭우는 밤새껏 계속되었다.

새벽녘에 갑자기 비가 멎으며 구름은 산산히 조각났고 백두의 하늘엔 붉은 노을이 펼쳐지면서 태양이 솟아올랐다.

이때 나타난 장군봉과 향도봉사이의 쌍무지개! 쌍무지개는 한시간동안이나 백두의 하늘, 조국의 하늘에 새겨져 사라질줄 몰랐다...

사람들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의 축도와와 같은 백두산의 이 자연현상을 두고 혁명전설로 이야기하고있다.

전설은 본래 인민들속에서 창조되고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 전해져 내려오는 옛이야기의 한 형태이다. 전설이 환상적수법에 기초하여 창조되는것으로 나는 알고있다.

만일 먼 후세에 우리 후대들이 사실 그대로인 이때의 자연조화를 두고 환상을 부여해서 이야기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의 이 일은 창조된 것도 아니요 환상의 한토막도 아닌 현실이며 자연현상 그대로인것이다.

오늘 우리 혁명적현실은 전설적이야기로 충만되어있다. 백두산의 자연조화도 너무나 신기한 현실을 담은것으로 하여 오늘의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설적이야기로 꽃피고있다.

우리 민족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며 찬란한 조국의 미래를 펼쳐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인민대중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지도자인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훌륭히 계승발전되어나가고있습니다.》

실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의 빛발로 그 어떤 시련과 풍파도 다 이겨내고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인도하고계신다.

이해에도 우리 인민의 진군길앞에는 얼마나 준엄한 가시덤불길이 놓여있었던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 핵사찰문제를 둘러싼 위협공갈과 같은 음모... 우리 조국의 하늘을 뒤덮으려는 장막은 사납고도 두터운것이였다.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그 어떤 장막도 산산조각낼 위대한 향도의 빛발이 있었으니 그 빛발은 원썬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의 하늘을 더욱더 맑고 푸르게 해주었다.

이해 우리 인민이 준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원썬들과의 대결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수 있는 것은 민족의 구심점, 일심단결의 중심인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있기때문이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백두의 천기를 타고나신분이며 민족의 슬기를 지닌분이다. 그이께서는 천지의 조화, 인간대사의 조화를 다 조력하시여 오늘의 전설, 수많은 혁명일화를 남게 하신다.

친애하는 그이의 손길아래 솟아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은 얼마나 많은 전설들을 낳았던가. 날바다를 가로막은 서해갑문, 세인을 경탄시키는 건축물들,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거리거리들...

지난날 상상으로만 그려보던 창조물들이 마음
먹은대로 척척 생겨나는 기적을 두고 어찌 혁명
전설이라 이야기하지 않을수 있으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는 혁명전설을 낳
고 그이의 령도의 손길은 조국을 무한대한 번영
으로 이끈다.

쌍무지개는 어제도 비졌고 오늘도 비긴다.

지난 7월 27일 아침에는 전승 40돐을 맞아
진행될 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장에 축원의 꽃대
문마냥 쌍무지개를 펼치여 얼마나 사람들을 황홀
경에 잠기게 하였던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내 조국! 더욱더
푸르게 펼쳐질 조국의 하늘...

내가 발을 디디고 선 이 통일거리도 래일은 통
일된 남녘의 거리거리와 잇닿게 될것이며 우리의
주체혁명위업은 승승장구할것이다.

쌍무지개! 더 좋은 앞날!...

참말로 자부심으로 마음 부풀게 하고 위대한
조국을 한가슴에 안아보게 하는 말이다.

지난날로부터 오늘, 오늘로부터 보다 찬란할
미래에로 줄달음치는 조국의 위대한 숨결과 힘찬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는 심정으로 나는 오래오래
쌍무지개에서 눈을 떼수 없었다,

빛나는 아침

알베르도 느게마 온도

백두산정에 아침해 솟는다
번영하는 조선에
새날이 밝아온다

산과 들도 맑은 이슬 머금으며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고
정가로운 샘물도
기쁨에 출렁인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로동당을 이끌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이는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탁월한 령도자!

반만년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며
주체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
너는 세계의 모범
위대한 인민의 상징이여라

허나 너의 아들딸들의 간절한 소원
그것은 조국통일!
이는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

풍요한 들관엔
어버이사랑 한가득 어려있고
복받은 어린이들의 입가엔

행복의 웃음꽃 피어있구나

아! 조선이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
오직 승리의 한길로
향도의 조타를 곧바로 움직여나가시는
두분의 위대한 령도자께 영광을 드리노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아래
통일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는 그날
수천수만의 비둘기들이
너의 푸른 하늘 뒤덮으리라!

평화에 대한 갈망
민족의 의지를 높이 떨치며
로동당원들의 강철의 대오
힘차게 나아간다

축복하노라
아름다운 나라 조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여
세계인민들과의 친선의 노래 높이 부르며
위대한 성과가 기록되기를 축복하노라

(필자는 적도기네문화관광 및
수공예장려성 문화과장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주체의 문학형태리론에 대하여

오승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주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는것은 문학형태에 대한 독창적인 리론이다.

문학은 현실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방식과 수법의 특성에 의하여 몇개의 문학형태로 구분되며 그에 고유한 이 특성으로 하여 문학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문학은 언제나 일정한 문학형태로 존재하며 문학의 발전은 문학형태의 발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의 《문학형태와 창작실천》에서 문학의 각이한 형태들이 문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그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심오한 해답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로작에서 시문학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 그 형태적특성과 예술적 가능성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주체시대 시문학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시문학이 무엇보다도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시고 이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문학에서 서정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서정성은 시문학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이 다.》

서정성은 시를 시로 되게 하는 시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이다. 서정성이 없이는 시가 없고 시문학전체가 없다.

시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인자신이 서있으며 구체적으로 시인의 체험세계가 놓여있다. 시문학이 만약 시인의 객관적인 해설로 시형상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이미 시인의 주정을 기본으로 하는 시의 본도에서 리탈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시의 서정, 그것은 시인에 의하여 파악된 전형적인 감정이며 작품의 종자와 그 생리의 요구에 맞게 재가공된 정서이다. 시의 서정은 그것이 일정한 사상적지향과 결합된것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정서와 구별되며 이것으로 하여 또한 시문학의 생명으로 된다. 시인의 사상적지향과 열정을 떠나 시의 참다운 서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시문학의 위력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우리 시문학이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서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시문학에 풍부하고 다양한 서정을 훌륭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시문학이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하고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위력한 전투적무기로 되는것은 거기에 힘있고 깊은 서정이 뜨겁게 흐르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문학의 특성이 서정성에 있다는것을 해명하시고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서 서정시에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담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은 시대의 기본흐름과 인민대중의 정서적지향을 반영한 감정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감정과 주체사상을 신념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려는 뜨거운 지향,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끝없는 긍지와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빛내이려는 열정, 나라의 자주성을 짓밟으려는 온갖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과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을 비롯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발현되는 전형적인 감정 등은 그대로 우리 시대의 가장 주도적인 감정으로 되고있다.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형상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현시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해결하시려는 절박한 문제와 당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받아안고 그것을 풀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감정세계를 깊이있게 노래하는것이다.

시인은 시대의 기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시대의 숨결과 자기의 호흡을 같이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시인이 될수 있으며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시대의 참다운 기수로 될수 있다.

시문학은 시대의 기본흐름과 인민대중의 정서적지향을 반영함으로써만 뜨겁고 깊은 서정을 담을수 있으며 그 서정의 힘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줄수 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우리 시대 인민의 가장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훌륭히 노래한 빛나는 본보기의 하나이다.

시에 흐르는 조국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자주성과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된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이 고마운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민족적궁지가 하나로 잇닿은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자면 또한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야 한다는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시인의 개성을 뚜렷이 살리는것은 시의 서정 자체의 요구이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시인의 고유한 얼굴이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시에 구현되는 서정에서 만약 그 주인공을 알아볼수 없다면 그 서정은 이미 시의 참다운 서정으로 될수 없다.

서정시 《용서하시라》는 시인의 독특한 얼굴과 표정이 안겨오는 작품의 하나이다. 시에는 시인이 걸어온 한생의 체험이 비껴있으며 그 한생의 총화를 거쳐 어머니조국에 다지는 전사-서정적주인공의 숭엄한 맹세가 시인의 목소리로 절절하게 울리고있다.

시문학에 구현되는 시대의 주도적감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며 언제나 구체적이며 개성적인 독특한 감정으로 나타나며 매개 시인의 서로 다른 체험세계를 통하여 나타난다. 시인의 이 체험세계의 다양성과 풍부성이 다양하고 독특한 서정세계를 펼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의 서정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시의 음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음악성은 시문학의 고유한 속성이다. 음악이 생활의 노래라면 시도 생활의 노래이다. 음악적인 풍만한 정서와 아름다운 음향, 치밀하게 다듬어진 톨동미로 하여 시는 그대로 글로 씌어진 음악으로 된다.

시의 음악성은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에서 다 같이 살려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아름답고 풍만한 서정이 시문학의 음악성을 담보하는 내용이라면 운율은 그 음악성을 살리는 형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시의 서정은 운율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다른 문학작품의 서정과 구별된다. 시의 운율이 없으면 음악성도 없어지며 음악성이 없는 정서는 시의 서정으로 될수 없다. 운율을 타고 음악적으로 흐르는 정서야말로 시의 참다운 서정으로 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것과 함께 시문학의 다양한 형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우리는 시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서정시와 함께 서사시도 쓰고 서정서사시도 써야 하며 서정시도 다양한 형식으로 창작하여야 한다.

이밖에 담시와 같은 이야기형식의 시도 장려하여야 하며 정론성이 강한 정치적성격을 띠는 시와 교훈적인 의의를 가지는 시 그리고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풍경시 창작에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사창작에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가사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가사는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여야 한다. 가사는 시문학의 한 분야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 예술적풍격을 완벽하게 갖추고있어야 한다.

가사에는 독창적으로 찾아낸 종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이 있어야 하며 곡을 붙이지 않아도 능히 사람의 가슴을 울릴수 있도록 씌여져야 한다.

가사는 또한 통속적으로 부르기 쉽게 창작되여야 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조선의 노래》, 《사항가》와 같은 작품은 물론이고 해방직후에 나온 《발같이 노래》, 《승리의 5 월》, 《산으로 바다로 가자》와 같은 가요는 이미 오래전에 나온 노래이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고있다. 이처럼 가사는 몸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체험할수 있는 실지생활이 비껴있고 친숙한 생활 감정이 담겨질 때 비로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천명하신 시문학의 형태적특성과 창작방향에 대한 심오한 사상은 우리 시문학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전투적 기치이며 시문학창작리론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한 한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소설문학이 문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 형태적 특성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소설문학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소설은 문학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한나라 문학의 높이와 발전수준은 주로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에 의하여 평가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문학의 지위를 밝히시고 그에 고유한 형태적특성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은 문학에 쓰이는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다 리용할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문학의 형상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있는것은 소설문학의 특성인 동시에 그 우월성이다.

이 특성은 소설문학이 언어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하고있다는 사정과 깊이 관련된다.

언어를 가지고 그려내지 못할 인간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언어로서는 묘사도 하고 대화도 주고 받을수도 있으며 추정토로도 하고 설명도 할수 있다. 언어의 이 무제한한 표현능력은 문학의 어느 형태에 비하여 소설문학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오직 소설문학만이 묘사와

대사, 주정토로와 설명같은 형상수단을 전면적으로 리용하여 언어로 표현할수 있는것은 다 그려낼수 있다.

소설에서는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물론 인간의 내면세계와 뒤생활도 보여줄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한없이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낼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문학이 문학의 형상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묘사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소설문학은 묘사를 수단으로 생활을 반영하는 묘사문학이다. 소설문학에서 예술적일반화의 폭과 깊이, 형상수준의 높이는 묘사수준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소설문학은 예술적묘사라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생활의 본질에 깊이 침투하며 생활이 안고있는 모든 의미와 색깔, 음향과 향기를 남김없이 드러낸다.

소설의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심리묘사이다.

이것은 소설에서 묘사가 주로 인간성격형상에 집중되며 인간의 성격은 그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그려지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물의 외형과 행동, 환경에 의한 묘사는 인물과 작가자신의 심리가 비끼고 그들의 사상감정으로 물들여지고 정서적평가에 의하여 굴절되어야 소설문학의 특성에 어울릴수 있고 독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다.

묘사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세부묘사이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세부묘사는 사실주의적묘사의 기본형태이다. 묘사는 그것이 대상에 대한 분석적이며 깊이있는 세부묘사로 될 때 그 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할수 있다.

소설문학의 다른 하나의 특성은 생활을 이야기식으로 펼쳐나가는것이다.

소설은 묘사의 문학인 동시에 이야기문학이다. 소설이란 말도 이야기라는 말에서 나온것이다. 우리 나라 말학의 력사와 인류문학사도 소설이 이야기형식의 작품으로부터 유래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문학은 서사적방식으로 형상을 구성하는 그 특성으로 하여 일정한 이야기를 전제로 하게되며 이야기의 전개과정이 곧 성격을 해명하는 과정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문학이 이야기의 문학이라는것을 밝히시고 문학적인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방도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소설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어야 하고 끌려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한다. 소설의 이야기흐름은 사람의 마음을 조였다풀었다하면서 매혹과 감동의 련속으로 시종 건인력있게 엮여져나 가야 한다.

이야기를 꾸려나가는데 감정조직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감정조직은 작품의 이야기

를 감동적으로 엮어 독자를 형상세계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감정조직은 인물들사이, 작품과 독자사이의 감정의 련계를 짜나가는 형상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감정조직을 빈틈없이 하기 위하여서는 인물들사이의 감정적련계를 잘 맞물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작가가 그 련계를 생활론리에 맞게 파고들 때에만 인물들사이의 감정조직을 잘할수 있다.

감정조직에서 작품의 형상세계와 독자사이의 감정적련계를 잘 맺어주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감정조직의 진정한 목적이 독자의 정서적감흥을 높이는데 있기때문이다. 작품에서 인물이 웃고 울며 흥분하여도 독자에게 그 흥분이 남득되지 않거나 공감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작가는 언제나 독자의 심리에 정통하고있어야 하며 그의 감정상태를 깊이 파악하고 인물들사이의 감정적련계를 생활의 논리대로 펼쳐나갈줄 알아야 한다.

감정조직은 작품의 서정성과 련결되어있다. 소설에서 이야기의 서정성은 감정조직에 따라 좌우된다. 작가는 매 인물의 감정선과 그사이의 련쇄관계를 성격과 생활의 논리에 맞게 잘 엮어나감으로써 작품에 풍부한 서정이 넘쳐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감정조직은 극성과도 깊은 련관을 가지고있다. 극성은 원래 극문학의 고유한 속성이지만 일정한 이야기를 가진 소설작품에서도 필수적인것으로 된다. 소설의 이야기는 극적인 이야기로 되여야 감정조직에 탄력과 견인력이 생기고 사람들을 형상세계로 깊이 끌어들일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감정조직에 대한 리론은 소설문학의 구성과 이야기에 대한 리론발전에서 전혀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독창적인 사상이며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풍격을 높이고 그 견인력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하는 참으로 귀중한 리론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문학의 형태적특성을 밝히시고 우리 소설문학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소설문학이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작가는 대담하게 착상하고 참신하게 형상하여야 하며 창작에서 독창성과 비반복성을 끊임없이 살려나가야 한다.

일부 소설작품들에서의 도식은 인물관계의 설정에서 나타나고있다. 인물의 호상관계를 교양을 주고 교양을 받는 관계로 설정하는것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관계를 교양을 하고 교양을 받는 관계로 형상하여야만 문학의 교양적목적이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주인공의 숭고한 모범에 감화되어 교양을 받을수도 있고 부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 자극되어 교양을 받을수도 있다.

이야기줄거리를 환경전개, 사건의 발생과 발전, 절정, 결말의 체계에만 맞추어 전개하는것도 하나의 도식이다.

이야기줄거리는 작품의 종자와 작가의 개성에 따라 자유롭고 다양하게 엮여져야 한다. 작가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다듬어진 구성형식 가운데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시대의 미감에 맞는것을 잘 살려쓰는 한편 발전하는 현실생활과 예술의 본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구성형식을 끊임 없이 찾아내어 그것을 완성시켜나가야 한다.

일부 소설작품들은 사랑선을 설정하는데서도 도식과 류형을 극복하지 못하고있다.

사랑선을 그린 작품들은 대체로 처녀총각들이 서로 사랑하다가 오해가 생겼거나 뜻이 맞지 않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이가 버그러졌다가 다시 결합되는 식으로 그리고있다.

사랑하는 남녀사이에 첫 인연이 맺어지는 계기도 어떤 필연적인데서만 찾으려고 하는것도 창작에서 굳어진 하나의 틀이다.

도식은 문학과 독자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다. 작가는 온갖 도식에서 벗어나 저마다 새로운것을 들고 나와야 하며 그것으로 우리 문학에 기여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써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형상수법에는 인민대중이 좋아하는 수법도 있고 반동계급이 좋아하는 수법도 있다. 우리 작가들은 반동계급의 취미에 맞는 저속한 형상수법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형상수법을 쓰는데서 주체를 세우고 로동계급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작가는 지난날의 공인된 형상수법만이 아니라 새롭고 효과적인 형상수법을 우리 인민의 미감과 요구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형상창조의 폭을 대담하게 넓혀나가야 한다.

소설창작에서 다주인공을 설정하는 수법도 우리 소설문학의 다양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다주인공작품은 거창한 시대적화폭과 생활을 립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합리적일수 있다.

주인공을 감추어놓고 형상하는 수법도 쓸수 있으며 부정인물을 중심에 놓고 형상한 소설작품도 쓸수 있다.

소설창작에서 작가와 인물의 심리를 기본으로 펼쳐나가면서 생활을 묘사하는 수법도 쓸수 있다.

이 수법은 외형적인것보다 내심적인것, 현상적인것보다 본질적인것을 깊이 파고들며 작품의 철학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법이다.

소설에서 랑만주의수법도 널리 탐구리용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형상수법과 함께 소설의 형태도 다양하게 개척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소설의 사회적가치는 결코 그 부피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우리 작가들은 단편소설, 벽소설 등 짧은 형식의 소설작품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이 기동적이며 전투적인 소설형식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켜야 한다.

서한체소설, 일기체소설, 추리소설, 탐정소설도 많이 써야 한다.

실화소설은 사람을 긍정적모범으로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화소설, 력사소설은 실제한 인물과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사실자료를 라렬한 기록문학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밖에 환상소설, 의인화의 수법으로 엮어진 소설, 운문소설, 지능소설 등을 창작하며 현대문학이 개척한 우수한 형상수법과 소설의 여러가지 형태를 주체적립장에서 받아들여 다양하게 리용할데 대하여 가르치심으로써 우리 소설문학발전의 끝없이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아동문학을 어린이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작품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것을 가르치시고 성인문학과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그것과 구별되는 아동문학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여 그의 시점에서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이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문학이며 어린이의 시점에서 생활을 그리는 문학이다.

인간과 생활을 어린이의 시점에서 보고 평가하고 그린다는데 아동문학의 기본특징이 있다.

아동문학에서는 주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어린이의 생활을 묘사하지만 가끔 어른의 생활도 어린이의 시점에서 그리게 된다. 아동문학에서는 모든 생활이 어린이의 시야에 비껴든것이어야 하고 그의 시점에서 체험된것이어야 한다. 아동문학의 독자는 어린이이다. 아동문학작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씌여지는것만큼 그 예술적가치는 동심세계를 잘 그리는데 있다.

아동문학은 혁명적인 내용을 어린이의 연령심리적특성과 수준에 맞게 보여주어야 한다.

아동문학은 우리 어린이들의 이 높은 정신상태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의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정신상태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아동문학창작에서 나서는 요구를 밝혀주시었다.

아동문학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흠모하고 따르는 우리 어린이들의 충성과 효성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린이들의 높은 조직성과 집단주의정신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의 자각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높은 지능상태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창작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유년기와 소년기의 일반적인 연령심리적특성을 잘 살릴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이 시기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는 아동문학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시었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것만큼 작품이 재미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변화무쌍한 행동성과 강한 운동감이 느껴져야 한다.

아동문학에서는 정적인 묘사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묘사를 주는 활동적인 묘사를 간결하게 그려나가는것이 더 합리적이며 성인문학처럼 사람의 내면세계를 깊이 추구하는것보다 흥미있고 변화무쌍한 행동선을 아기자기하게 엮어나가는것이 더 어울릴수 있다.

아동문학에서는 한창 말과 글을 배워나가고있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될수록 쉬운 말과 표현을 써야 한다.

또한 새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아동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다채롭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소설인 경우에 재담식서술을 배합한 소설이나 운문형식의 소설도 쓸수 있으며 실화소설, 우화적인 소설, 여러 형태의 환상소설도 창작할수 있다.

아동문학에서는 의인화의 수법과 환상, 과장, 상징을 비롯한 이미 있는 수법을 다양하게 리용하는 한편 새로운 형상수법과 기교를 대담하게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미감과 동심세계에 맞는 새로운 문학형태를 대담하게 개척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아동문학창작에서는 아동문학의 특성을 살린다고 하면서 문학창작의 일반적원리를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진실성문제도 아동문학에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며 독창성문제도 절실하게 나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천명하신 아동문학을 어린이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창작할데 대한 사상은 혁명의 새 세대 교양에 이바지하는 우리 아동문학창조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주체시대의 아동문학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의

모든 형태를 전면적으로 다양하게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여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명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의 모든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는것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문학의 모든 형태를 발전시키는것은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문학창조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문학의 력사는 그 내용의 변화발전과정인 동시에 형태를 비롯한 형식들의 변화발전과정이었다.

문학이 담아야 할 내용이 달라지는데 따라 그 형태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문학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몇몇 문학형태들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없애고 력사적으로 발전하여오는 과정에 이미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나타내었을뿐만아니라 오늘의 현실과 인민의 요구에도 맞는 문학형태를 전면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극적사변으로 충만된 우리 현실의 요구에 비추어 시, 소설, 아동문학과 함께 극문학을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극적인것에 대한 리해를 폭넓게 가지는것이라고 하시었다.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의 대립과 투쟁으로 갈등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엮어나가는것은 극적인것을 형상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그러나 단순히 긍정과 부정사이의 대립과 투쟁만이 극적인것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긍정과 부정사이의 직접적인 대립과 충돌이 있어야만 극성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은 낡은 리론이다.

영화문학 《세상에 부림없어라》는 긍부정의 직접적이며 성격적인 충돌을 보여주지 않고있지만 심각한 극을 안고있는 작품이다.

극적인것은 생활에서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극적인 이야기는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이 깨어지고 예상이 뒤집혀지는 충격적인데서 생겨난다. 이야기의 전개과정이 생활의 정상적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듣는 사람이 예상하는대로 흘러갈 때에는 극적인것을 느끼지 못한다. 극적인 이야기는 긴장감이 있어야 하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강한 견인력을 가져야 한다.

작가는 현실에 있는 극적인 소재를 여러 방면에서 찾아내어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그려내는것이 중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극문학의 극성에 대한 새로운 리론을 천명하시고 정극을 비롯하여 극문학의 다양한 형태를 리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우리에게는 예술영화 《우리 집 문제》와 같은 경회극적인 작품도 필요하며 재담, 촌극 같은 소품도 요구된다.

풍자문학도 발전시켜야 한다.

한때 문학분야에서는 《벌거벗은 아메리카》, 《뺨다귀장군》과 같은 작품을 내놓았는데 지금

은 풍자시와 풍자소설도 없고 풍자극도 별로 내놓지 못하고있다.

오늘의 정세는 풍자문학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현시기 풍자문학의 과제는 온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안팎의 분열주의적반동세력과 《반공》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이다.

우리의 풍자문학은 원쑤의 심장을 꿰뚫는 화살이 되어야 하며 제국주의아성을 들부시는 폭탄이 되어야 한다.

실화문학과 환상문학, 수필, 단상과 같은 작은 형식의 글도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창조적인 환상은 작가에게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환상문학은 그들에게 창조적환상의 나래를 펼쳐주는 영양소이다.

수필은 산문으로 씌여진 한편의 정교하고 아담한 서정시와 같다.

작가라면 평생에 사람의 기억에 남는 좋은 수필을 적어도 몇편씩은 내놓아야 한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문학형식을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것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미감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는것이다.

문학부문에서는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기성형태를 적극 리용할뿐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미감에 맞는 새로운 종류를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가극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무대부문에서 창조한 음악무용이야기, 음악무용서사시, 음악무용서사극 같은 새로운 예술종류는 문학과 음악, 무용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형식이다.

여기에서 기본인 문학은 시와 극, 서사적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이다. 문학부문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여야 한다.

특히 텔레비존문학을 여러 형태에 걸쳐 새로 개척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텔레비존소설, 텔레비존영화, 텔레비존극은 일반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일정하게 구별되는 종류이다.

텔레비존소설도 소설인것만큼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고유한 속성을 살려야 하며 텔레비존영화는 행동예술로서의 영화적속성, 텔레비존극은 대사에술로서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

문학의 모든 형태와 종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비록 문학의 묘사방식이 서로 침투하고 어울리기도 하지만 그 형태와 종류는 자기의 특성을 보존한다.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킨다고 하여 창작에서 형태사이의 상대적인 계선을 무시하거나 모호한 형태를 아무렇게나 써낸다면 그것은 문학발전에 오히려 혼란을 줄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밝히신 문학의 모든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은 시대와 문학형태의 호상관계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빛나게 해결한 탁월한 사상이며 우리 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하며 그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사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우리 평론문학의 특성과 창작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식 평론은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우리 나라 실정과 우리 문학예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작된 평론이다.**》

우리 평론의 선도적역할은 당의 문예사상과 방침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여기에 우리 식 평론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우리 당의 문예정책은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이 나아갈 길을 가리키는 라침판이다. 당의 문예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적극 선전하며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식 평론의 기본특징이다.

우리 식 평론에서 기본은 우리 당의 문예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형상방도를 탐구하는 것이다. 평론가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깊이있게 론증하며 문학예술분야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일반화하는 론설을 활발히 써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평론가들은 문학전선의 전초선에 서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공격과 사상문화적침투로부터 당의 문예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는 투사로 되어야 한다.

시대적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제때에 민감하게 포착하고 창작의 주제방향과 형상방향을 구체적으로 그어주는것은 우리 식 평론앞에 나서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평론가들은 문예학의 원론적인 문제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작가들에게 주체의 문예관을 세워주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다른 나라 문학의 성과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안내자의 역할도 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식 평론은 작가와 작품을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는 립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협조의 관계가 기본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제기되는 근본요구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작가의 창작을 원칙적이면서도 진심으로 이끌어주고 도와주며 작가와 작품을 아끼고 책임지는 립장에서 평론하는것이 우리 식 평론의 룰리이다.

평론에서 비판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평론의 기본목적은 작가들속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게 하자는데 있지 비판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의 평론은 당의 의도에 맞게 예방이 위주로 되어야 한다. 평론에서 예방을 위주로 하는것은 곧 평론의 선도성을 높이는것으로 된다.

평론에서는 작가들의 창작에서 나타난 참신한 시도와 발기를 민감하게 찾아내어 적극 지지해주고 조장발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작품에서 새롭게 시도한 긍정적인 싹을 발견할 줄 아는 평론가가 참된 평론가이다. 평론이 긍정적인것을 일반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는다고 하여 나타난 과오와 결함을 묵과하거나 어루만져서는 안된다.

평론에서의 비판은 원칙적이고 공정하면서도 계발식으로 되어야 한다.

평론에서 주관주의는 금물이다. 평론에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고 작품을 기존공식과 도식적인 틀에 맞추어 론단하고 함부로 정치적감투를 씌우거나 순수 사회학적견지에서 평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식 평론의 임무와 과업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우리 식 평론은 인민대중을 문학예술의 참다운 창조자, 향유자로 키우는데 적극 복무하여야 한다.

평론이 작가,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인민대중의 진정한 향유물로 될수 없다.

인민은 평론을 통하여 당의 문예정책과 우리당이 문학예술부문에서 쌓아올린 업적 그리고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와 교양적의의에 대하여 더 깊이 인식하게 되며 문학예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쌓게 된다.

우리 나라 평론은 조직성과 집단주의적성격을 띠고있다. 우리 나라 평론은 조직성과 집단주의적성격으로 하여 평론가들사이에 개인주의적관계가 지배하고 저마다 자기 식 문예관과 창작원칙을 내세우고있는 부르조아사회의 평론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평론사업을 강화하는데서 현역평론가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평론사업은 어디까지나

창작현실에 접근해있는 현역평론가가 주인이 되어 끌고나가야 한다.

평론은 창작이다. 평론에는 평론가의 독창적인 발견과 주견이 있어야 하며 그의 얼굴이 비껴야 한다. 아무런 탐구와 발견이 없이 상식적인 리론을 되풀이한 평론은 고유한 의미에서 평론이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평론의 형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평론은 과학론문이 아니며 그 어떤 연설이나 웅변도 아니라고 하시였다. 문학평론의 문체는 논리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맛이 있어야 하며 친절하고 흥미있어야 한다. 평론의 형식은 논설체로만 한다는 법은 없으며 대담식으로 쓸수도 있고 운문형식이나 수필식으로 쓸수도 있으며 서한체, 일기체로도 쓸수 있다. 작가론적인 평론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주체의 문학건설에서 평론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 평론의 권위는 그 질에 달려있다.

평론의 권위가 서야 문학창작활동에서 당의 문예정책이 철저히 구현될수 있고 주체문학이 힘있게 전진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식 평론의 특징을 살릴데 대한 사상은 문학의 주요한 한 형태로서의 평론의 지위와 역할 그 사명과 임무를 주체적립장에서 새롭게 천명한 독창적인 사상이며 우리 식 평론문학건설의 강령적지침이다.

×

주체의 문학형태론은 이와 같이 문학의 여러 형태에 걸쳐 창작실천의 원리와 방도들을 독창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명하였다.

주체의 문학리론에 의하여 문예학상 처음으로 작품창작리론이 과학적으로 확립되고 주체의 인간학을 개화발전시킬수 있는 창작의 영원한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주체의 문예학은 문학창작의 위력한 수단으로 더욱 높이 발전하였다.

가사

끝까지 가리

석광희

부르는 노래도 사회주의요
높이 든 기발도 사회주의다
우리 당을 따라서
사회주의 한길로 끝까지 가리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요
주체로 빛나는 사회주의다

우리 당을 따라서
사회주의 한길로 끝까지 가리

우리의 신념도 사회주의요
희망찬 미래도 사회주의다
우리 당을 따라서
사회주의 한길로 끝까지 가리

명제해설

《새 시대는 새로운 문학을 요구하며 우리 시대의 문학은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김정일

주체의 인간학은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로운 문학이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은 우리 시대에 와서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만 비로소 명백히 해명될 수 있었다.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로운 문학인 주체의 인간학이 지난날의 문학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성은 그 철학적기초가 다르다는데 있다. 주체의 인간학은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의 본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간문제를 밝힘으로써 사람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며 사람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고난의 행군》, 《준엄한 전구》, 영화문학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 《보증》,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 서정시 《나의 조국》, 《어머니》와 같은 작품들은 다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잘 구현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성과작들이다.

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람을 옳게 보고 그려야 한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리는가 하는데 따라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면모가 규정될뿐아니라 그 사상예술적가치가 결정된다. 사실주의는 사람을 사회적존재로 보고 그의 사회적성격을 진실하게 그려낸다면 자연주의는 사람을 순전히 자연적존재로 보고 그의 동물적본능을 그려낸다. 우리의 문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함으로써 사람을 그 본성에 맞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로 보고 그리는 문제를 가장 옳바르게 풀 수 있게 되었다.

문학에서 어떤 인물을 하나의 시대적전형으로 내세우려면 일반화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하여야 한다.

성격창조에서 일반화는 사람의 본성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사람의 본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그의 사업과 생활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공다운 태도도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사람의 본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고리를

찾아내어 파고들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진면모를 깊이 있게 일반화하여야 한다.

문학에서 어떤 인물을 하나의 전형으로 내세우려면 일반화의 요구와 함께 개성화의 요구도 옳게 실현하여야 한다.

세상에는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없듯이 개성이 꼭같은 사람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이 사람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개성을 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물의 개성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강한 사람은 개성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어떤 정황속에서도 사람의 존엄과 자주적인 요구를 끝까지 고수하고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개성이 더 뚜렷이 드러난다. 이런데로부터 인물을 개성화하자면 그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개인적특징을 특색있게 살려내야 한다. 그래야 인물의 개성은 그의 내면세계와 뿔수 없이 밀착되어 언제 어디서나 일관성을 가지고 인상깊게 안겨줄 수 있다.

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옳게 그려내야 한다.

문학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그려야 한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세계의 변화발전을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보여준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계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세계를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며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는 사람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려내야 한다.

주체의 인간학은 사람의 본성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밝힘으로써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으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문학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들국화 핀 언덕에서

리진화

대추나무 한그루

못잊어 그날을 못잊어
들국화 곱게 핀 빈장마을 언덕에
스적이며 속삭이며 서있는
대추나무 한그루

소슬바람에 아지를 흔들며
풍기는 빨간 대추의 향기
우리 가슴에 온 마을에
향기 가득 젖어드네

어머님 오실 땐 애어린 나무여서
그늘 한점 퍼드리지 못했고
열매 한알 대접 못한 아쉬움
어제도 오늘도 잊을수 없어
설레이며 속삭이는듯

그날이었네
우리 마을 찾아오신 김정숙어머님
애어린 대추나무아래서
농민들과 담소하시는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
백두의 그날처럼

고요속에 보초를 서시였거니

어머님 다녀가신 그날부터
다음해 오실가 한가지 자라고
이듬해 오실가 또 한가지 자라서
빨간 대추 한바구니 드리 고싶었건만
아, 오시지 못한 김정숙어머님

대추나무야 끝없이 설레여라
끝없이 무성해 열매 주렁지여라!
가난에 초가집만 늘어섰던 우리 마을에서
어머님 그려보신 그날의 그 념원
하얀 문화주력으로 솟아났고
저기 과일나무동산으로 꽃피나
대추나무 너의 열매와 함께 무르익거니

대추나무 한그루
장군님 받들어 조국을 꽃피우신
김정숙어머님의 그 위업
오늘도 전하며 서있네
길이길이 전하며 서있네

정적속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동산에 솟던 해는 하늘중천에 붉은데
마당가에 멍석 깔고 앉으시여
농민들과 담소하시는
장군님의 음성만이 도란도란 들릴뿐...

조이삭 흔들며 설레던 가을바람도
한낮의 해벌에 잠들고
철늦게 울어예던 풀매미소리도
이제는 고요히 숨죽였는데

외양간 뒤울안 우물가에서
스적이는 버드나무 잎소리에 귀기울이시며
장군님을 보위하여
김정숙어머님
보초를 서시여라

달밝은 백두밀영의 밤
천막가에 하나 둘 불은 꺼지고
끝없는 고요가 깃들 때에도
사령부를 지켜

스스로 보초를 서시던 김정숙어머님

정적이 깃들수록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신
전사의 가슴엔 안정이 깃들수 없어
빈장동에 오셨던 건국의 그날에도
어머님 스스로 선택하신 자리는
호위전사의 위치였던가

보초를 서시네
김정숙어머님
들국화 핀 언덕에서
고요한 정적을 지키고 서계셔도
정적만을 지켜 서계신것 아니였네

아니였네
짓밟혔던 이 나라의 가난을
장군님의 품속에서 가시며
새 조선의 집집에 마을에 높이 올릴
행복의 그 웃음소릴 지키고 서계셨네
강산에 넘칠 그 웃음소릴...

총소리

조약돌 하나
바위에 올려놓으시고
백발백중 명사수의 사격솜씨로
권총 높이 들어 쏘고쏘시였네
항일의 명사수 사격솜씨에
조금이라도 녹이 쓸가봐

백발백중 명사수만이
장군님을 굳건히 보위하는 길이기에
건국의 그날에도

원썩을 향해 겨냥하신
마음의 총구만은 내리지 않으시던
김정숙어머님

조약돌은 부서져 간데없고
바위우엔 세월의 이끼가 덮였어도
빈장동에 울리신 그날의 총소리
내 가슴에 울려오네
장군님을 보위하는 길에
언제나 명사수로 서있으라고...

아이들에게

초가이영 반짝이는
여기 사적지 트랙에
봄이면 고운 꽃을 심고
가을이면 꽃씨를 정히 받는
빈장마을 아이들아

장군님 모시고
김정숙어머님께서 오셨던
이 집이 우리 마을 자랑이란다
이 명석이 그분들께 깔아드렸던
우리 마을 성의였단다

가난한 사람들만 산다고
빈장동이라 불리우던 이고장에
김정숙어머님께서 오시어
해방된 조선의 주인으로
마음껏 농사지어
부자동으로 만들자던 그 말씀

그 말씀 여기에 꽃피나
프락포르 달리는 앞벌에는

황금의 이삭이 물결치고
동산엔 사과가 무르익고
내가엔 빨래하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넘치거니

황토색 흙물울린 이 집이
우리 마을 새 력사가 시작된곳이란다
이 집이 마음껏 공부하며 뛰노는
너희들의 미래가 꽃피난곳이란다

더 잘 가꿔가자
우리 마을 빈장마을에
오늘의 행복을 안아온
어머님의 불멸의 자욱이 깃든
여기 사적지를

더 잘 가꿔가자
이 집을 마음속에 안고 클 때
우리 마을에 행복의 웃음꽃 활짝 핀단다
우리 마을 사랑의 집이란다

들국화 핀 언덕에서

그날의 들국화는 정다웠다네
그날의 들국화는 곱기도 했네

혈전만리 헤쳐오신 그 길이
험난한 가시덤불길이여서
광복의 새봄 안고 우리 마을 찾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
꽃주단 퍼드리고싶은 간절한 마음
들국화 들국화야 네가 알아 피웠구나

사랑을 안고 해빛을 안고오신 어머님 위해
봄에도 여름에도 아니피던 꽃

찬서리 불리는 가을날에 피였구나

아 못잊어 그날을 못잊어
해 가고 날 가고 세월이 가도
고향의 언덕에 피고피는 들국화
너는야 어머님께 드린 축원의 꽃주단

해와 별 빛나는 고향의 언덕길에
향기로 유정함을 더해주며
오늘도 래일도 어머님을 못잊어
빈장동 언덕가에 피고피는 들국화
어머님 그리는 내 마음의 꽃아

따스한 바다

최성진

번개의 파릿한 섬광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양수장 주변의 으스스한 광경이 한순간 드러났다. 강풍에 벼이삭들이 마구 흐트러지며 태질하는 경사지의 길다란 논배미들과 그너머에서 꿈틀거리며 흘러가는 무시무시한 강물, 뽕안 비속에서 흔들거리는 줄다리... 이어 어둠에 휩싸여버린 하늘에서 거대한 퇴성이 터져내렸다. 주위공간은 다시금 자연의 어지러운 소음으로 소란스러워졌다. 비소리, 강물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가까이에서 줄다리가 삐걱삐걱하고 아츠러운 소리를 질러댔다.

향방없이 몰아치는 바람은 양수장처마아래 앉아 비를 굶고있는 우리 두사람에게 서늘한 비말을 들썩우곤했다. 그때마다 송화마을 농민은 《에크!》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정말로 놀라는 소리는 아니었다. 햇빛을 본 사람처럼 밝은 목소리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기분에 잠겨 이번 비에 가을담새가 어떻게 강냉이작황이 어떻게 하고 혼자 중얼거리었다. 장년기를 갓 넘겼을 장골의 사나이, 그의 무슨 걱정 같기도 하고 농사군다운 사고의 타성같기도 한 두서없는 사설은 어렴풋한 형체를 띠고 나의 귀전을 스쳐지나갈뿐 한마디도 머리속에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농민의 객설에 관심을 기울일 형편이 못되었다. 마음이 초조했다. 어둡기전에 출장목적지까지 가달을 계획이었는데 진창길에서 허우적거리느라 술한 시간을 허비한데다가 이놈의 비까지 만나 그 계획은 다 튀어버린것이다.

《에, 날씨두!》 나는 이제 가야 할 비물에 잠긴 먼 농촌길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옆에 앉아있던 송화리농민이 그소리에 《허어!》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동정인지 위안의 뜻인지 모를 소리였다. 그는 양복주머니를 더듬어 담배를 꺼내더니 이어 라이타를 절걱거리었다.

바람을 막느라 손바자를 친 그안에서 호박씨만한 불이 너울대면서 그의 얼굴을 비치었다. 두드러져나온 이마며 흰오리가 약간 섞인 길다란 장미아래에서 칠월의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두눈이며 소금버께가 도는듯한 입술이며가 이고장의 풍토처럼 사나운 인상을 자아내는 그 사람의 둥실한 얼굴은 연약한 불빛으로 하여 더욱 적동색으로 보이였다.

그는 향연의 감칠맛을 음미하듯 몇모금 연거퍼 들이키더니 《이왕 늦은김에 마음을 폭 늦추고있다가 강건너 우리 집에 들어가 쉬고가요. 래일아침 뺨스가 갈겨우다. 이자 오면서 봤지요. 비가 내린뒤끝에 이고장 길을 걸어간다는게 험치않습다.》하고 말했다.

그는 잠시 무슨 생각인가 하더니 꺾꺾거리었다.

《내 이고장에서 장가가던 일이 생각나우다. 그제 인젠 까마득히 지나간 일이요. 글썽 잔치날 아침까지 비가 내릴건 뭇겠소. 그러지 않아도 진창길로 가마를 메고오느라 지쳐빠진 땀군들과 우시군들이 모두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린데다가 비물에 길이 끊어져서 새색시까지도 걸여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다. 이런 땀 별수없으니 신랑이 새색시를 안고가야 한다는등 그럴바치고는 업고 가라는등 못하는 소리들이 없는데 새색시라는건 가마안에서 나오자 진창속에 빠져버렸습다. 겨우 발은 뽑아냈지만 뽕타시 있소. 흰고무신 한짝만은 진창속에 아예 박혀버렸지요. 새색시가 치마꼬리를 쥐고 한쪽 발을 들어올린채 어찌지 못하고있는데 누군가가 장화를 한켠레 가져다 놔줬습다. 뭘 칠보단장에 백고무신을 받쳐신여야만 새색시겠나. 새색시아 새색시지. 별생각말구 이결신으소. 이고장에서 살려면야 장화이상 있나. 혹시 이게 옛말에서처럼 큰복이 굴러올 징조인지 알겠소. 하고 장화를 가져온이가 위로 겸 통담 겸 너스레를 떠는데 이 새서방님한텐 썩 좋지 않게 들립데다. 새색시가 그것때문에 마음이 없어하면 어찌나해서말이지요. 그런데다가 그 장화라는건 장부들이나 신을거웁다. 오이씨같은 새색시의 버선발에 매생이같은 장화가 맞을게 뭇요. 한데 그 녀자는 탓하지 않고 신고갔소. 그대신 그 일은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되었소그러. 정말 고장이야 별난고장이지. 비만 내리면 이렇게 죽처럼 풀어졌다가도 이틀만 개이면 돌덩이처럼 굳어져 호미날이 들어가지 않습다. 그뿐인줄 아시우. 이 송화벌에 〈도깨비바람〉이 터지면 굉장하우. 오죽하면 날아다니는 돌맹이에 황소대가리가 깨졌다는 소리까지 나돌겠소. 상사말처럼 갈개구 길들이기 힘든 땅이지요. 그렇지만 괜찮습다. 지나가는 길손들한테선 이따금씩 그런 욕을 좀 먹지만 살아

보면 이 땅은 이 땅대로 살 재미가 있다는걸 알게 되오. 살 재미가!》

그의 마지막어조는 이상하게 떨리었다. 나는 후에야 그가 《살 재미가 있소!》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지나온 한생을 생각했음을 알았다.

그 사람은 이야기를 마치자 피우던 담배를 껌 던져버렸다.

그는 비와 어둠속에 잠겨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강건너 먼 벌판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두눈에 타고있는 뜨겁고 간절한것이 나에게 감촉되어왔다. 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갔다. 거기 강건너마을에는 그의 집이 있는것이다. 지금도 그의 집에서는 늙은 안해와 자식들이 먼길 갔다오는 그를 기다리고있을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이상한것이 있었다. 조금전부터 그는 밝은 기분에 취했다가도 때없이 상념에 빠져버리는것이었다. 나이도 지숙하고 거룩진 체격에 어울리는 호방한 성격같은 그가 침묵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나는 까닭모르게 가슴이 찢듯해 왔다.

나는 한시간전에 길우에서 그가 《잃어버렸던 고향을 찾았수다.》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간이역을 벗어나 벼가 한창 익어가는 무연한 벌가운데로 난 농촌길로 걸어오고있었다. 고려때 그 유명한 도자기가 나왔다는 쌍룡리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수도의 살림집건설에 다량 요구되는 외장재의 좋은 원료로도 될수 있는 그곳 진흙성분을 조사해가지고 이틀후에는 평양의 연구소로 올라가야 했다.

나는 세멘콩크리트다리가 있다는 로동자구족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을 택하여 이길로 접어든것을 얼마 못가서 후회했다. 오전결에 비가 내리어 길이 온통 질척거렸다. 결국 질러가는 길이 에도는 길이라는 격이 되고말았다.

이고장은 참 한심한 고장이였다. 비물이 인차 스며들지 못하여 길은 미끄러운데다가 찰진흙에 신발이 떡떡 달라붙어 걸기가 여간 고생스럽지 않았다.

내가 진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뒤에서 한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나이가 지숙한 그는 룡구선수처럼 키가 흰칠한 장골인데 깨끗한 회색양복차림에 불룩한 려행가방을 든걸로 보아 방금 나와 같은 열차에서 내린 손님같았다.

그 사람은 진창속에 들어박힌 의혁구두를 뽑아내느라고 제풀에 화를 내는 나를 보더니 거참 안됐다는 뜻의 미소를 지어보이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쌍룡리요? 어-저물겠수다. 이고장 사람이 아닌것 같군.》

《예, 출장을 옵니다. 평양에서...에, 참 길두!》

《허 이고장이 지나가는 길손들한테선 가끔 그런 욕을 먹수다. 거 바지가랭이를 쑥 걸어올리시우. 여기서 그래야 하우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아바인 여기 사람인게군요.》

《난 강건너 저기 보이는 송화마을 농군이요. 바다가에 룡양을 갔다오는 길이외다.》

멀리 벌판너머 야산기슭에 들어앉은 하얀 문 화주택마을이 연무에 싸여 아스푸레하게 보이었다.

《이고장 사람이라구요?》 그는 금파만경이 일렁이는 벌이며 자기 마을을 감회에 찬듯한 눈으로 바라보며 《허-》하고 유쾌한 《탄식》을 질렀다. 《이고장 사람이지요. 하지만 지나가다가 비를 그으려고 들렸던 고장이웨다. 이번에 잃어버렸던 고향을 찾았수다.》

비를 그으려고 들렸다는건 뭐고 고향을 찾았다는건 뭔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는가? 하긴 세상이 넓디넓은데 무슨 일인들 없을라구.

나는 또 미끄러운 진창길에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진창길이 그닥 성가시지 않은 모양이였다. 열차에서 내릴 때까지는 반짝이였을 커다란 밤색구두에 땃근은 뿔만한 진흙이 범벅덩이처럼 달라붙었지만 씨영씨영 잘 걸어갔다. 해벌에 꺼떻게 그슬린 장판지가 드러나게 바지가랭이를 틀없이 걸어붙이고 징징징징 거침없이 걸어가는 그의 거룩진 모습은 대지의 한부분처럼 자연스럽게 보이었다.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던 그는 손을 들어 바람새를 가늠해보더니 문득 《이거 줄다리를 건느기전에 한탕 내리붓겠는걸!》하고 걱정을 했다.

머리우에는 회색구름이 몇송이 널려있고 약간 두터운 구름장은 멀리 남쪽 산마루에 떠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웬걸 비가 내리랴고 했는데 정작 줄다리 근방에 이르자 어데서 언제 구름이 몰려왔는지 알수 없게 주변이 새까매지면서 비방울들이 후두둑 떨어졌다.

송화마을농민이 《나를 따라오시우.》 하더니 제먼저 강기슭을 향해 달려갔다.

줄다리가 있는 거기 둔덕아래에 스텔트기와를 얹은 작고 아담한 양수장건물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숨이 턱에 닿아가지고 그안으로 뛰어들었다...

송화마을농민이 걱정하던것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상류에 세멘트다리가 건설된 다음부터는 이고장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는다는 비좁고 길

다란 줄다리는 광포한 비바람에 세차게 뒤편에 있었다. 웬간한 젊은족들도 이런 날씨에는 건너갈 엄두를 못낼것이다. 날씨가 숙어들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벌써 늦은 저녁이다. 사위는 완전히 어두워졌다.

송화리농민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려행가방을 찾아들고 부시럭거리었다. 그는 뜻밖에도 술병을 꺼내들고 《생각이 없소?》했다.

나는 속이 으시시하여 한고뿌 하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억지로 사양했다.

《그만 두십시오. 집사람들이나 가까운이들을 위해 가져가는것들이겠는데.》

《그러니 생각은 있다는 말씀이군. 까짓거 꿰라요, 가방안에 또 있수다.》

그는 어느새 병뚜껑을 뺐다.

안주감은 따로 꺼낼것 없이 가방을 통채로 벌려놓았다. 그안에서 말린 새우넙새가 풍겨나왔다.

술은 참 좋은것이다. 그것이 체내에 퍼지자 속이 훈훈해지고 울씨년스러운 날씨로 하여 순편치 않던 심사도 한결 누그러졌다.

《비가 인차 몇을것 같지 않은데 내 이야기나 할가요?》 송화마을농민이 말했다.

자연은 여전히 광란했다. 비소리, 바람소리, 높아가는 강물소리, 줄다리의 빠격이는 소리, 벼이삭들이 설레이는 소리...

해방전의 어느 늦은 봄날.

허줄한 피나리보짐을 걸맨 중년의 사나이가 어린 사내아이를 업고 이고장의 험한 진창길을 지나가고있었다.

흐린 하늘에서는 진종일 비가 구질구질 내리고있었다. 옷들은 폭삭 젖어버린지도 오래다.

《세상에 이런데도 있담! 빌어먹을놈의 땅!》

등에 업혀 춥고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들에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화가 났던 사나이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그는 이고장 적토길에 들어서면서부터 공연히 고향을 떠나왔다는 후회감이 들었다. 이런 고행길이 기다릴줄 알았더라면 고생도 제고장 바다가마울에서 살며 할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등에 업혀오는 철부지아들에도 무정한 아버지를 원망했다.

어린 소년은 떠나온 고향바다가 못견디게 그리웠다.

여름이 오면 뜨거운 모래불, 해월에 한껏 달아오른 도래곶이의 바위들, 태양도 거기 태양은 더 크고 아름답고 뜨거운것만 같았다.

두고온 고장은 아무리 눈물겨운 사연이 깃들어있어도 돌아다볼 때에는 애모쁜 정회에 가슴이 저려드는법이다. 가난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원한많은 땅, 물산도 유명하여 소문이 났지만 착취의 등쌀에 못이겨 찾아왔던 사람마다 침

을 뺄고 돌아서는 고장, 그래서 스스로 하직한 땅이 아닌가.

《애야, 세상이 끝없이 넓다는데 아무렴 여기보다 좋은곳이 없겠니.》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좋은 땅》을 찾아 떠나왔다. 어떤 고장인들 밟아보지 않았으랴. 가고가도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좋은 땅》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아버지는 자꾸 가기만 했다. 이 세상 한끝까지라도 가보자. 그러느라면 옛말에 나오는 무릉도원같은곳은 없을지라도 조금이나마 마음붙이고싶은 고장이야 없을텐가. 하고 아버지는 생각했던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얼마나 심술궂은것인가. 희망의 고장을 찾아 고생고생하며 가다가 부디 씹어뺀것 같은 불모의 황야에 어린 살붙이 하나를 내려놓고 불우한 방랑객의 운명을 타고났던 아버지가 세상을 하직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긋은비 내리는 진창길로 치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마침 논고에서 삽질을 하던 우석을 쓴 사나이가 걸어나왔다.

《어디로 가는 길손이시오?》

《제기랄!》 길손은 삼을 든 농민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귀찮다는듯 한마디를 뺄아놓았다. 긋은 날씨며 사나운 진창길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쌓여 그 땅의 애꽃은 주인에게까지 욕을 보인셈이었다.

주인은 오히려 빙그레 웃었다.

《허, 이 손님 심통머리 사납다-!》

벼짚을 엮어서 만든 우석을 써서 둔해보였을 따름이지 갱뽕하고 체소한 사람이였다. 별 심겨운 사람도 다 있다. 이젠 웬 시러베아들같은놈이 제 할일이나 할것이지 길가는 사람에게 건수작질을 걸지 못해 몸살인가. 만만치 않게 뼈대가 우러진 길손의 입에서 돌맹이같은 말마디들이 날아나오려는데 주인이 또 말했다.

《요 근방에 우리 집이 있소. 비도 그를 겸 해서 들어가 몸을 덥히고 가소그려.》

진정이 울리는 목소리였다.

길손은 그제야 시선을 들어 상대방을 푹바로 보았다. 옛날 장수의 갑옷같은 우석의 가쁜한 돌기끝에서 수정같은 물방울들이 떨어졌다.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칼, 순박해보이는 두눈에 동정과 련민의 정이 어리었다.

길손은 등에 업혀 오돌오돌 떠는 아드애를 생각했다. 그리고 고달픈 방랑의 길에서 진액이 빠져버린 자기의 육체를 파고드는 심상치 않은 병마를 분명 예감하고있었다.

그날밤 주인집의 따뜻한 아래목에 누워 길손은 병고에 시달리였다. 식은땀을 흘리고 고열이 계속되면서 헛소리를 질렀다. 주변 삼십리안에는 허줄한 돌파리의사 한명 없었다. 주인내외가 구들을 덥혀주고 꿀물을 타먹여도 효험이 없었다.

아침에 길손은 앞에 앉아있는 아들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유언했다. 《…크면…가바라…동암에…에미…묘…소…》

토막토막 끊어지던 그 말마디들은 먼 후날까지 룡세의 귀전에서 사라질 줄 몰랐다.

하지만 룡세는 인차 송화를 떠날 수 없었다. 너무 어렸기 때문이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동암을 어떻게 찾아가겠는가. 게다가 여기 땅에는 아버지의 령혼이 잠들어있지 않는가.

한번은 팍룡세가 고향을 찾아 떠난적이 있었다. 그것은 전쟁때였다. 송화마을의 첫 세포위원장이 희생되었다. 굶은비 내리는 방랑의 길을 정처없이 가는 부자에게 따스하고 사심없는 인정의 손길을 뻗쳐주던 고마운 사람, 그는 팍룡세가 아버지를 잃은 다음에도 집에 데리고있으면서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돌봐주던 은인이었다. 그가 현물세로 납부된 식량을 산으로 실어나르던중 반동놈들의 총에 맞은것이였다. 마을사람들과 함께 산속에 피난을 가있다가 돌아와 이 소식을 들은 룡세는 서러움이 복받쳐올랐다. 어린 그에게는 이 땅이 자기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뻥뻥한 고장으로 생각되였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랴. 여기엔 나를 돌봐줄이가 더는 없지 않는가. 룡세는 자기를 이 땅에 홀로 두고 세상떠난 아버지를 원망했다.

룡세는 결심했다. 가리라. 동암을 어디에 가는지 찾아내리라. 아버지를 따라 떠나온 기억을 되새겨보며 가고자한다면 내가 살던 바다가마음이 나질것이다. 거기엔 먼 친척이나마 있을것이 아닌가.

그때가 열세살이였다. 룡세는 오봉산기슭에 있는 아버지와 세포위원장의 분묘를 찾아갔다. 어른들한테서 봐둔 기억을 더듬어 분향을 하고 눈물속에 하직을 했다. 그는 남쪽방향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길이 눈에 익어보이는것 같은 생각도 들었으나 인차 묘연해졌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거의 엄히다싶이하며 들어온 길을 그가 어찌 죄다 기억해낼수 있으랴.

그는 당황해졌다. 자기가 도저히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리라는것을 얼마 못가서 깨달았다. 하지만 혈육 한점 없는 송화마을로 되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찾아간댔자 누가 맞아주랴. 그는 다리가 아파나기 시작하였고 참을수 없이 배가 고팠다. 이틀동안 그는 조금도 먹지 못했던것이다.

폭격통에 집들이 군데군데 무너진 어느 읍거리 장마당에서 룡세소년은 삶은 고구마 두알을 훔치려다가 들켜였다. 고구마를 파는 녀인이 보기전에 자리를 뜨려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의 눈길에 걸려든것이였다. 《나쁜놈의 자식!》 머리 위에서 울리는 웬 남자의 목소리와 함께 갑자기 숨쉬기가 가빠졌다. 뉘덜미를 어떻게나 우악스레 덮쳐잡았는지 꿈쩍할수 없었다. 《도적질을 해!》하고 레의 그 목소리가 또 욱을 했다. 그 사람은 룡세를 불량배나 장돌뱅이로 알았던 모양이였다.

그런데 고구마를 팔던 녀인이 집에 질려 떠는 소년의 정상을 지켜보다가 《놔두시우!》하고 측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녀인이 다가왔다.

《어디서 사는 애냐?》

소년은 고개를 숙인채 말이 없었다.

녀인의 눈길이 한동안 소년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더부룩해진 머리, 까맣게 먼지가 오르고 주름에 지친 얼굴…

《부모가 없냐?》

《…》

《에구-!》 녀인은 혀를 차며 팡주리로 다가가더니 뜻밖에도 제일 큰 고구마 두알을 더 가져다 룡세의 손에 쥐여주었다.

이때였다. 《이녀석아!》하고 누군가 부르짖으며 사람들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는 룡세에게로 다가오더니 둘러선 사람들을 향하여 황급히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이 못난 녀석이 우리 아이입니다.》하고 말했다.

룡세는 머리를 들었다. 목소리의 입자는 뜻밖에도 송화마을 사람이였다. 제대군관복 차림에 작은 지팡이로 한쪽 다리를 대신하며 불편스레 걸터다니는 사람, 전쟁관에 나갔다가 다리 하나를 잃고 돌아왔다는 그 사람은 세포위원장이 희생되기전에는 그의 집에도 자주 찾아와 마을일을 의논하였었다. 하지만 그 역시 송화태생의 첫 당원이며 희생된 세포위원장을 대신하여 마을의 당조직을 책임지고있다는것을 어린 룡세는 알수 없었다.

바로 그가 룡세소년을 가리키며 분명 《우리 아이》라고 한것이다. 그가 룡세를 대신하여 고구마값을 치려주려 하자 녀인은 굳이 사양했다.

그 사람은 룡세를 이끌고 사람들이 모여든곳을 멀리 빠져나온 다음에야 억이 막혀 부르짖었다.

《이녀석아! 온 마을이 너를 얼마나 찾고있는지 아느냐? 얼마나 걱정하는지… 이 한심한 녀석!》

온 마을이 나를 찾는다고? 이 룡세를 걱정한다고? 그게 정말인가? 왜? 송화엔 친척비슷한 가까운 사람도 없지 않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룡세는 그 까닭을 알수 없었다. 다만 지칠대로 지치여 허탈감에 빠진듯한 사람, 지팡이에 의지한 그의 정상을 보며 룡세는 가슴이 찢듯해왔을따름이였다. 사실 그 사람은 팍룡세를 어느 읍거리에서 봤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마을에 알리지도 못한채 잠못자고 굶으며 불편한 몸으로 걸어온것이였다.

《나와 함께 가자! 온 마을이 너를 기다리고있다!》 그가 말했다.

송화에 다시 와서야 팍룡세는 비로소 마을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으며 자기는 그네들의 한 성원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들은 저마다 팍룡세가 왔다고 반가와했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 못해

안달아했으며 새 세포위원장네 집에 들기로 했다. 이것을 알고서는 학용품이며 난알들을 가져왔다. 광룡세는 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학급에서 가장 나이 많고 류달리 키가 큰 아이였다.

광룡세는 얼마후에 학교를 졸업했다. 어느덧 아버지의 모색을 넘겨받은 장골의 체격에 성미가 독하면서도 한편 감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청년이 되었다. 그는 린근 마을의 인물답고 일 잘하는 처녀 길녀와 가정을 이루었다. 행복은 그들의 새 가정에 찾아들었다.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생겨나고 세간살이들이 늘어났으며 광룡세 자신은 모범농민이 되었다.

그때에도 고향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보라던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는가? 그때문만도 아니었다. 해 뜨면 따뜻해지는 바다가, 해월에 달아오른 바위, 따스한 모래...

그렇다. 그때문이기도 했다. 이고장의 거치른 대지에 바람불고 비오고 추위가 뼈속까지 얼어들 때 들일에 처쳐서 돌아오느라면 느닷없이 따스한 땀이 그리워지고 고향바다가 눈앞에서 반짝이는 것이었다. 거기 따스한 모래속에 정경이를 묻고 누워있느라면 과도소리가 정답게 들려오고 푸른 하늘에선 눈부신 태양이 웃어주리라! 하여 고향 바다가-그곳은 은연중 바람없고 따스한 행복의 고장으로 광룡세의 머리속에 자리잡는 것이었다.

룡세에게는 오래전부터 지도를 보는 습관이 붙었다. 그것은 학교에서 조선지도를 배우면서부터였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조선지도라면 눈에 띄우는대로 보았다. 동암이란 고장이 있나해서였다. 동암은 없었다. 지도가 작기때문이었다. 좀더 큰 지도가 있었으면!

어느 눈오는 겨울날 광룡세는 개축한 인민학교 교직원실에 난로를 놓아주러 갔다가 우연히 《고향》을 찾았다. 인민학교 교직원실에는 새로운 커다란 조선지도가 걸려있는데 거기에 뜻밖에도 동암이란 바다가 지명이 올라있는 것이었다.

그는 점심참이 되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안해를 향하여 부르짖었다.

《있어! 동암을 찾았다니까!》

어리둥절했던 안해는 인차 남편의 말뜻을 깨닫고 간절한 어조로 물었다.

《얼마나 먼곳이야요?》

남편한테 들어서 바다에 대하여 조금 알게 된 길녀였다. 그 녀자는 신비로운 바다에 가보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기차타고 이틀이면 가겠지.》 미처 거리까지는 생각을 못해본 광룡세는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멀고 가까운게 무슨 상관이라. 조선땅이 삼천리라는데 그 한끝에 있다한들 멀어서 못가랴. 가면 가는 것이다. 나의 그리운 고향바다가! 언제면 가보게 될까? 언제면 어머니의 분묘도 찾아보고 소시적 친구들과 함께 바다가의 백사장에 누워 아지랑이같이 피여오르는 꿈에나 취해볼까?

그러나 그것도 어언간 추억의 망막에서 사라져갔다. 일이 광룡세를 동아줄처럼 얹어맨 것이었다.

그는 일박의 다른 생각이란 할 겨를이 없었다. 송화는 감사리 사납고 척박한 땅이었다. 일은 그 어느고장보다 힘들고 소출은 적었다. 그래도 주인들은 돌덩이같은 땅에 난알을 묻고 싹을 틔웠다.

이상한 일이었다. 사나운 고장이라고 욕하면서도 누구하나 이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 땅에 어떤 끌어당기는 힘이라도 있단말인가? 어떤 미련이 있어서인가? 이 거치른 대지에 뿌린 노력의 땀이 너무나도 많아서인가?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땅을 갈구어왔다. 메달라 굳어진 땅에 거름을 퍼고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었으며 침식된 앞강엔 석축을 했다. 나라에선 트랙터며 양수기며 여러가지 농기구와 농약들을 보내주어 일은 해마다 험해지고 소출은 늘어갔다.

이제는 우리도 그만하면 잘 산다고 생각할 때 송화마을에 제대군인들이 왔다. 당의 부름을 받고 제대하자 곧바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중에는 이고장 토배기인 옷때골 창석이기도 있었다.

광룡세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물었다. 《여보게, 자넌 군대 나가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봤겠다 어디 말해보라구. 우리 여기도 이만하면 괜찮게 사는 곳이지?》

《아저씨두!》 창석은 어설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남들보다 못산다는 소리가 아닌가!

원, 그럴수가 있나, 옛날에 비하면 이고장이 얼마나 달라졌단구. 사람이 금의옥식을 해야만 잘사는 거겠나.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쓰고갈 걱정, 자식들 공부시킬 걱정이 없구 마음껏 일할수 있으면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창석이 자네가 외지에 나가 다니며 나보다 많이 봤을테지만 이고장에 대하여서는 다는 알수 없지. 어떻게 알겠나.

그런데 광룡세는 자기고장이 다른 농장들에 비해 얼마나 떨어졌으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그때문에 얼마나 심려하시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느해 여름이었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이고장을 지나가셨다는 것이었다. 그이께서는 포전머리에 승용차를 세우시고 일이 겨우 피어난 노란 강냉이대들을 아픈신 눈길로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자리를 뜨지 못하셨다는 것이었다. 수행일군이 가서야겠다고 아뢰일 때에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나무꼬챙이로 굳은 땅을 파헤쳐보시며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이었다. 그러시고는 피약별이 내려찍는 포전머리를 오래도록 묵묵히 거니시었다고 했다.

광룡세는 지금껏 이 못난 땅을 자기가 어찌서 뜨지 못하고있는가를 어렵게 깨달았다. 이 땅에는 그것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매 인간들의 삶

의 의미조차 생각할수 없는 그렇듯 고귀한 심혼이 비껴있는것이였다. 팽룡세는 그것이 있어 이 땅의 공기와 물을 마시며 궁지롭게 살아온것이였다.

그래 일을 해야지, 일이자 팽룡세구 팽룡세이자 일이 아닌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무 꼬챙이로 파보시고 또 파보신 이 땅, 그분께서 그리도 가슴아파하신 이 땅에 황금나락을 펼쳐놓아야지. 오봉산엔 나무도 더 심고 앞강의 제방공사도 더 하고 논밭엔 거름도 더 내야지. 실새없이 일하고 또 일을 해야지. 팽룡세는 어언간 고향바다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다. 팽룡세는 장년이 된것이다. 그는 이 땅의 거치른 풍토에 어느덧 습관되어버린것이다. 농장에서는 팽룡세에게 속달이 있다고 바다가 룡양지로 떠밀어보냈다. 가을걷이가 림박한 이 바쁜철에 별치도 않은 속달때문에 룡양은 무슨놈의 룡양인가고 하는 팽룡세에게 세포비서가 말했다.

《갔다오시라요. 일은 걱정마시구요. 이번 기회에 룡양을 잘해서 속달을 깨끗이 떼고오는걸 당적분공으로 합시다.》

원, 이런 당적분공도 있담! 당생활 서론해가 되도록 술한 분공을 받아 수행해왔어도 속달을 고치라는 《당적분공》은 처음 받아본다.

팽룡세는 이렇게 송화땅을 떠나왔다.

경치좋은 바다가 송림속에는 합각지붕을 얹은 룡양각들이 있었다. 그 집은 팽룡세를 위한 집이였고 전국각처의 룡양생들모두를 위한 집이였다. 살들하면서도 엄격한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아침마다 팽룡세를 진찰도 해보고 약물치료도 해주었다.

한번은 팽룡세가 입가에 팔알만한 기미가 있는 귀염성스러운 담담간호원처녀를 노엽힌적이 있었다. 룡양소주변의 농장주경을 나갔다가 치료시간을 어기었던것이다. 팽룡세는 자기가 속달있는 환자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으며 그래서 치료한번쯤 어기는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었던것이다. 그날도 주변농장의 새 파수품종을 구경하느라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다 되어 돌아오니 그사이에 간호원처녀가 《규률위반자》를 찾아 온 룡양소구내를 헤맸으며 끝내는 치료를 못해준 그것때문에 굉장한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이 일을 어찌한단말인가! 잘못은 룡세가 했는데 비판은 간호원처녀가 받다니! 그럴줄 알았더라면 뜨지 말았을걸 그랬다.

팽룡세는 처녀앞에 찾아가 잘못을 빌었다.

《이 존령감 밋지? 용서하라구 체네.》

팽룡세는 농장의 과원에서 얻어온 탐스럽고 향기로운 사과 두알을 슬그머니 처녀앞에 놓아주었다. 그것은 사실 처녀를 생각해서 가져온것이였다.

《아바이두.》

기미박힌 처녀의 고운 입가에 방긋이 미소가 피어났다. 처녀는 금빛사과를 들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였다.

《아바인 제가 육먹은것때문에 그러는줄 아시나요?》

처녀의 눈에는 경건한 추억이 어리였다.

《제가 아직 인민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룡양소를 찾아오셨답니다. 그이께서 룡양소직원들은 룡양생들 모두의 친부모, 친형제가 되어 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랍니다. 전 비판을 받아야 해요. 친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전 아바이를 잘 돌봐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상록수 무성한 룡양소앞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한 유화작품이 모셔져있었다. 그분께서 룡양소를 현지도하시는 모습이였다. 팽룡세는 레사롭게 흘러가는 룡양의 나날에도 가장 친근하신분의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고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그런데 팽룡세는 마음이 산란했다.

그것은 여기 바다가에 온 첫날부터 차츰차츰 생겨난 감정이였다. 그에게는 이고장이 낮익고 친근한 고장처럼 생각되는것이였다. 푸른 바다며 너럭바위가 있는 도래굽이며 과일나무들이 자라는 뒤산이며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였다. 무엇때문인가? 혹시...아니 이 무슨 잠꼬대같은 생각이람.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수 있담. 팽룡세는 저릿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자리에 누웠다.

창가림으로 유정한 달빛이 새어들어오는 밤, 팽룡세는 무슨 꿈인가를 꾸다가 어디선가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자장가소리를 들었다. 가슴 설레이게 하는 자장가소리-그것은 창너머로 들려오는 파도소리였다. 이미 오래전에 가슴속 깊은 곳에 찾아버린 바다의 정다운 자장가소리! 언제 들었던가? 어디서 들었던가? 그래 그래, 문을 열면 솔밭너머로 흰파도가 밀려오던 고향의 푸른 바다! 거기 펼쳐졌던 반짝이는 은모래! 시원한 바람결에도 부드럽고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던 동암의 바다가!

해가 뜨자 팽룡세는 바다로 나갔다. 해풍에 소나무들이 흥그럽게 설레이는 방풍림을 지나자 눈부신 백사장이 펼쳐졌다. 그너머로 일망무제의 푸른 바다가 보이였다.

태양은 얼마나 아름답고 뜨거운가! 바람은 얼마나 부드럽고 신선하며 파도소리는 얼마나 다정한것인가! 맨발로 백사장을 걸어간다. 무한정 보드랍고 살가운 감각에 마음은 마냥 즐거워진다. 저 멀리에서 밀려오는 흰파도...

백설같은 거품이 잿아드는 기슭에 나앉아 밀려오는 바다물에 손을 잠그어본다. 그러자 추억속에 인박했던 고향바다가 눈앞에서 너울거린다. 아니, 그 바다가 지금 현실로 펼쳐진것이 아닌가? 이 무슨 열토당도 않은 생각이 떠오른담. 여기는 우리 송화마을에서 그닥 멀지도 않은 고장이 아닌가. 그때 나는 아버지의 등에 업히고 걸기도 하면서 얼마나 멀리 가고갔던가. 지치고 배고

왔던 그때의 일들은 지금도 추억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다. 여기가 어떻게 동암일수 있단 말인가!

곽룡세는 아직도 그곳이 이 땅의 그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 기슭을 따라 가고가느라 보면 동암이라고 부르는 그 자그마한 마을도 나질 것이 아닌가. 세월이 흐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조상대대로 불려오는 지명이야 어데 가랴.

곽룡세는 장가든지 얼마 안되는 그때 교직원실의 큰 지도에 올라있던 동암이란곳이 고향 동암이 아니라는것을 후에야 알게 되었다. 거기서 군사복무를 하다가 제대되어온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지도우의 그 동암은 바다에서 30 리나 떨어져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곽룡세네가 살던 고향은 집을 나서면 바다가 있고 집안에 누워서도 파도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았는가. 곽룡세부부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이다. 송화마을이나 동암같은 자그마한 촌락들까지 지도에 올리자면 지도가 과연 얼마나 커야 하겠는가. 그러니 룡세가 고향을 찾아가기는 묘연한 것이다.

곽룡세는 자기가 공연히 흥분했던거라고 생각하며 바다가에서 걸어들어왔다. 그가 송림속으로 난 깨끗한 모래길을 걸어가고있는데 지나가던 이고장 녀인들의 떠들썩거리는 소리가 들리었다. 무심결에 들으며 걸음을 옮기던 곽룡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한 녀자의 입에서 동암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었다. 그 녀자는 동암의 어느 누구네 잔치를 보러 간다고 했다. 머리가 반백이 된 깨끗한 녀인이었다.

곽룡세는 동암이 어디냐고 황급히 물었다. 녀인이 이상해하며 말했다.

《요 룡양소 아래 마을을 옛날엔 동암이라고 했다우. 지금은 두암리 7 반동네라고 하지만 옛날습관이 있어서 가끔 동암이라고도 한다우다.》

생활에는 정말 우연이라는것도 있는게다. 가슴설레이게 하던 예감이 공연한것은 아니었다. 이제는 이곳이 옛날의 그 동암이라는것을 곽룡세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곽룡세는 그날로 동암에 내려갔다.

그는 온종일 그 땅을 걷고 또 걸었다. 얼마나 그리웠던 고장인가! 그는 유년기의 추억이 어려있는 모래불이며 도래굽이에도 나가보았다. 추억을 더듬어 자기가 살던 옛집터에도 가보았다. 오두막같은 집들이 두서너채씩 떠떠떠 떠떠있던 옛모습은 사라지고 문화주택이며 학교며 아담한 공장건물들이 즐비하게 일어섰다. 살고싶은 고향이었다.

룡세가 알만한 사람들은 없었다. 유년기에 함께 놀던 친구들의 이름을 그는 기억할수 없었다. 너무도 어린 나이에 떠났기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룡세는 이 마을에서 오래동안 살아온다는 한 고령의 로인을 만날수 있었다. 곽룡세는 부친의 이름을 대며 그를 아느냐고, 혹시 생각나지 않느냐고 로인에게 물었다.

《곽룡순이라구? 어, 있었지, 해방전에 그런 사람이 살았다구. 색시는 가난때문에 예서 죽어 묻히구 그 사람은 애녀석 하나를 데리구 떠나갔는데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다고... 뭐? 임자가 그 룡순이 아들이라구?...》

도래굽이를 지나 다박술 푸른 야산중턱에는 어머니의 본묘가 있었다. 마을의 친지들과 옛날의 이웃들이 늘 잊지 않고 돌봐주어 잔디가 파아랗게 자랐다.

룡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령전에 술을 부었다.

그가 본묘옆에 앉아 오래전에 잊어버린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해내려고 애쓰는데 이고장태생으로 룡세네 가정의 매력도 잘 아는 리사무장이 말했다. 《사람이 나이들면 환고향을 한다는데 인젠 여기로 옮겨오시오. 친지들도 있구 게다가 여건 옛날과 달라 살기 좋수다.》

그는 룡양소로 돌아왔다. 온종일 바다가 모래불에 나앉아 생각했다.

환고향하랴구? 살기좋은 고장이랴구? 그래 여긴 얼마나 좋은 고장인가? 따듯하고 깨끗하고 또 사람들은 얼마나 친근하며 물건은 얼마나 흔한 곳인가!

옛날에 떠나갔던 곽룡세가 왔다고 저마다 찾아와 집으로 청하고 후더운 대접을 해주던 사람들, 마을을 나설 땐 고향의 특산물꾸레미도 귀여주던 그네들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이상한 일이다.

소시적 그때처럼 살가운 모래불에 맨발을 묻고 앉아 바다의 입김마냥 먼 수평선마루에 떠있는 해무덩어리를 바라보고있노라니 추억은 서서히 밀려나고 두고온 땅, 송화마을이 눈앞에 차츰 차츰 떠올랐다.

오봉산기슭의 오붓한 동네, 그림고 다정한 얼굴들...

그래도 먼저 떠오르는것은 안해의 얼굴이다. 지금쯤은 아침밥을 다 지어놓은 로친이 돼지물을 줄라, 토끼우리를 거두어줄라, 닭모이를 주고 양이며 염소를 내다팔라 분주탕을 피울 때다.

동네사람들은 룡세령감네 터가 좋아서 티발 농사며 집짐승이 잘된다고들 말하지만 모르는 소리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악하고 부지런한 로친때문이다.

로친이 집안일에서도 욕심이 많지만 농장일에 나가서는 그보다 더 부지런해서 소문이 났다. 하다못해 남들보다 김을 한고랑이라도 더 매는 성미이다.

《여보 로친, 이런 날엔 젊은것들을 좀 시키라구요. 한뼉을 해온 진일이 그렇게도 좋은가!》

비오는 휴식날에도 최쪽에 나가 돼지풀을 한 망태기나 해오는 안해에게 곽룡세가 하는 말이다. 안해는 말한다.

《어찌겠수. 령감님한테 장화신고 시집을 온 이 아낙네 일복이야 어디 갈데 있을라구요.》

원, 로친두! 저 로친이 나한테 시집와서 일하 나만을 락으로 알고 한생을 살아왔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진다. 그렇게 부업으로 길러낸 돼지를 작년에는 세마리나 인민군대에 보내주었다.

소란스럽고 근면한 안해가 며느리와의 관계는 좀 류별나다. 안해는 남들이 다 자는 어둑새벽에 일어나 조반을 다 지어놓고 안팎 거두매질까지 끝나갈무렵에야 짧은것들이 잠을 자는 옷방에 대고 인젠 일어둘나려무나. 무슨 잠들이 그렇게 많담! 하고 꾸짖질을 한다. 그때에야 며느리는 일어나 황망히 나온다. 조반준비가 다 끝난것을 알고는 미안해요. 어머니, 왜 미리 깨우지 않았어요. 어머니! 한다. 그런 일이 늘 반복되는것을 보다 못해 광룡세는 속으로 안해를 나무람했다. 로친은 제가 새벽잠이 없어가지고 짧은것들을 들볶아 놓는담! 하고. 그러다가 한번은 정말 안해를 생각해서 늦잠을 자는 아들며느리가 들으라고 인젠 일어들 나서 돼지몰이라도 좀 풀으려무나 했다가 안해한테 뜻밖의 대접을 받았다. 혼자 아침 동자질을 하는것때문에 늘 의견이 있는것 같던 안해가 이번에는 그애들의 잠을 공연히 깨운다고 형감한테 되려 지청구를 하는것이였다. 그것이 안해의 진짜 속마음이었다. 안해가 새벽에 일어나 조반을 짓고 진일 마른일을 도맡아하는것은 큰며느리를 조금이나마 더 재우기 위해서였다. 농대를 나온 기사이며 작업반의 기술지도원인 큰며느리는 사실 작업반의 알곡수확고를 올리기 위해 벌에 나가 사느라 늘 잠이 딸려했다.

광룡세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며늘애 아기는 마음은 안해와 같다. 공부를 많이 한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것이 광룡세에게는 은근한 자랑이기도 하다. 광룡세는 며느리의 마음을 안다. 큰며느리에게는 송화벌에 알곡대풍을 안아오고 온 마을이 과일향기속에 묻히게 하려는 꿈이 있다. 큰며느리가 애를 써서 집집마다 과일나무 열그루씩 심도록 한 일도 은을 내어 작년에 벌써 첫 열매들을 따다. 사람은 일이 고운것이다.

집안일을 두고 광룡세가 걱정하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큰아들문제이다.

이제는 가장구실을 해야 할 맏이라는게 아무리 봐야 건달풍이 좀 있는것 같다. 늘 자전거를 타고 이반 저반 돌아다니기만 하고 한자리에 눌러앉아 일하는것을 보기 힘들다. 드문히 잔치집 같은데서까지 뭘 도와주소하고 불러가는걸 보면 농장의 큰 대사 작은 대사에 다 얼굴을 들이밀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 자전거가 문제다. 자전거만 없으면야 제가 어떻게 허파에 바람 찬 녀석처럼 돌아다니랴.

그래서 한번은 자전거를 아들 몰래 감춰놓았다가 봉변을 당한적도 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농장의 막바지에 있는 과수밭에 나가 병해충예방 사업을 봐주기로 되어있다는것을 광룡세가 몰랐던것이다. 병해충구제작업은 물론 진행했지만 아

들이 그 먼데를 걸어서 갔다오느라고 일이 좀 구차스럽게 되였었다.

맏아들이 과수반 일을 제킨다고 모두 말들은 하지만 어쨌든 광룡세는 그 아들이 파오라도 범하여 나라에 자그마한 걱정이나마 끼칠까봐 늘 마음을 놓을수 없다.

그저 뭐니뭐니해도 제일 그리운건 손주녀석들이다. 광룡세한테는 손주 다섯이 있다. 그중에 둘째한테서 본 손자 둘은 제 애비가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전연지구에서 살고 집에는 맏이네가 본 손자녀석 하나와 복술강아지같은 귀여운 두 손녀가 있다. 광룡세는 그것들을 공부시켜 집안에서 농학박사나 그러루한 학자가 한둘쯤 나오게 큰 소원이다. 그렇게 못될리도 없다. 큰며늘애가 학교때 머리 좋기로 소문이 났다더니 그한테서 본 맏손자녀석은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이 여간 아니다. 그녀석이 보고싶다. 아니 어찌 집안사람들뿐이라. 쓴 술 한잔을 놓고도 광룡세를 청하군하는 옆집의 술 잘하는 동순이며 장기군인 앞집사람지운이, 색다른 음식이 조금만 생겨도 들고오는 동네의 인심후더분한 아낙네들이며 조무래기들까지도 보고싶다. 그들은 광룡세네 이웃이자 한집안사람들이나 같다. 광룡세가 어디 나들이를 갈라치면 그들은 길에서 만나 하나같이 걱정해주고 려행길에 무탈하기를 기원한다. 《잘 갔다오시우.》, 《감기에 류의하시구래》, 《기차에서 내려릴 때 주의하세요.》 하고 말한다.

생각은 어느새 세포비서한테 미친다. 거방한 체격에 일손이 드세고 시원시원한 성미인 그가 어떤 때에는 정말이지 잔소리가 많아지군한다. 사람들을 두고 걱정하는것이다. 광룡세는 그가 두려워지기도 한다. 그가 일밖에 모르는 사람같지만 알고보면 광룡세를 낱알이 알고있다. 광룡세도 또한 그를 잘 안다. 그가 사람들에게 충고를 주고 걱정을 해주는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것이 다.

룡세는 그들앞에서 미안했다. 그들은 지금도 농사일로 바쁠것이다. 땅이 원하는건 농군의 성실한 땀이다. 가을걷이를 앞에 두고 할일이 얼마나 많은가. 강냉이창자도 손질해야지 창고에 넣어둔 벼탈꼭기도 미리미리 정비해야 할게 아닌가. 래년 농사를 더 잘 짓자면 두엄생산도 미리미리 해야 한다. 그것들은 이 룡세의 손이 가야 할것들이다.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려가 비껴있는 땅. 그 땅을 두고 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수 있단말인가! 그런데 나는 여기 고래등같은 집에서 한가로이 룡양을 하고있지 않는가. 내가 무슨 큰일이나 했다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녀가신 이 좋은 집에서 하루세끼 고급식사에 의사들의 친절한 치료까지 받으면서 한가롭게 치료를 할수 있단말인가.

료양소에서는 갑자기 《비상사고》가 생기었다.

룡세농민이 차츰차츰 룡양소에 마음을 못붙인 기색을 보이더니 문득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여기 식사가 구미에 맞지 않아 그러는것이냐 아닌가? 아니면 료양소에서 대접이라도 소홀히 한것인가?

《령감님이 그 나이에 로친생각 나는게지?》

《원, 아무리 그렇다한들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료양을 착실히 해보시구려.》

같은 호실의 버릇없는 젊은것들이 제 나름의 추측을 하며 시까슬러들었다.

바빠맞은건 료양소사람들이다.

《아바이, 료양소에도 규정이 있답니다. 병치료를 다 하구 퇴소식까지 해야 갈수 있어요.》

《아니야. 이 촌령감은 가야겠어. 못견디겠다니.》

《호호, 어쨌든 안되는줄 아시잖아요.》

《어, 체넨 내 마음을 몰라. 모른다니까.》

담당간호원이 설복하고 그다음엔 의사가 말했다.

이튿날 아침엔 몸이 부하고 펍 진중해보이는 료양소 소장이 팍용세네 호실에 나타났다. 그는 팍용세와 동갑이었다.

《말해보시우. 노여운 일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말해보시우. 우리 사람들한테서 무슨 욕되는 일이나 당하지 않았는가요? 버릇없는 젊은이들이령감을 잘 대해주지 않았다면 이 소장을 탓하시우. 그러되 료양을 도중에 그만둘 생각은 마시우.》

갈수록 험산이라더니 이렇게까지 이네들이 오해를 하다니! 그게 어디 될말인가. 이 촌령감을 모두들 얼마나 살뜰히 돌봐줬다구 내 그런 생각을 다 할가. 안되겠다. 내 솔직한 심정을 말해야겠다.

《허-그런말 마시우. 난 다르게 없소. 그저 일하고싶구 우리 사람들이 보고싶어 그러는거요.》

《할수 없는것 같구만. 어찌겠소.》

소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만이 팍용세의 번민을 정확히 리해한것이었다.

이튿날, 료양소에서는 도중에 퇴소하는 료세농민을 위하여 소박한 송별식사를 조직했다. 그것은 아마도 료양소가 생긴이래 처음되는 일이라.

팍용세는 송화로 돌아왔다. 저기 오봉산기슭의 정다운 마을이 보이자 그는 먼 렬차행군의 피로조차 깡그리 잊어버렸다. 료양소에 있을 땐 그리도 안절부절하던 팍용세였다. 그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었다. 밭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벌써 앞강의 정다운 흐름이 보인다. 녹록한 들바람이 불어온다. 벼가 익어가는 향기가 흐뭇이 감각되어온다. 그러고보니 절기는 벌써 백로에 접어들었구나. 이 땅에, 이 드넓은 대지에 로동의 성실한 땀을 뿌리고 여기에서 생명의 즙을 빨아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난알의 향기를 느낄수 있을텐가! 이 땅아! 내가 왔다! 너의 사나운 성미마저 비껴뺏은 팍용세가 왔다! 송화의 아들이 왔다!

그는 방금 비가 내리어 질적해진 들길이 오히려 좋았다. 기차에서 내릴 때까지만 하여도 반짝거리던 구두에 진흙이 열근이나 달라붙어 올라와도 좋았다. 이제는 이 땅의 체취가 뼈속까지 배여든 팍용세이다. 무릎을 툭툭 치는 벼이삭들에 바지가랭이를 흠뻑 적시며 황토길을 걸어가는 이상쾌함을 어디에 비기랴. 실은 그리운이들을 한시바빠 보고싶은 조급함과 함께 이런 즐거움을 맛보고싶어 포장한 콩크리트다리가 있는 로동자구가 아니라 줄다리가 있는 이런 지름길을 택한 팍용세가 아닌가!...

일진광풍이 일 때마다 양수장처마아래로 홀홀 날려들어오던 비발도 한결 가늘어지고 뜸해지는것이 알리였다. 료세농민은 이야기를 끝내고나서 또 담배를 태우고있었다. 그는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었다. 내가 처마밖으로 손을 내밀며 비발을 가늠해보는데 료세농민이 먼저 움쭉 일어났다.

《가보지 않겠소?》하고 그가 말했다.

《일없겠습니까 아바이?》

《까짓거!》

《그럼 건너갑시다.》

우리는 양수장을 나섰다. 나의 앞에서 걸어가던 료세농민은 언덕우에서 불어내려오는 세찬 바람에 몸을 휘청거리는데 같았다. 《에-망할놈의 바람!》 그는 쾌활한 욕설을 날려보냈다. 비물에 젖은 널판자 바닥을 조심스럽게 저거디디며 다리에 들어서던 료세농민은 뒤에 들어가는 내가 걱정되어 돌아보았다.

《조심하우다-바닥이 미끄럽소!》

《아바이두 주의하시랴요.》

《어-》

사나운 바람은 줄다리를 지나가며 휘파람소리를 질러댔다. 다리아래로는 강물이 찌를거리며 흘러갔다. 아래도리가 서늘해왔다. 창황중에도 료세농민이 쇠바줄란간을 더듬어잡으며 어둠속에서 허우적거리는것이 알리였다. 그는 한걸음 한걸음을 힘겹게 옮기고있었다.

《일없겠어요. 아바이?》

《어-?》

《일없겠어요? 꽤-건-느-겠-어-요?》

《무섭긴한데. 손님두 주의하우! 바싹 긴장해서 바줄을 붙잡소. 그러지 않다간...아니, 저건 도대체 웬너석인가?》

료세농민이 다리건너편쪽을 보며 투덜거리었다. 나는 그의 어깨너머로 앞을 바라보았다. 전지불이 그쪽에서 번쩍거리었다.

《누가 건너오지 않아?》

《그런것 같수다. 아바이.》

《넌장, 마주 건너오면 어쩔셈이야.》 료세농민은 건너편에서 마주오는 전지불의 임자를 향해 소리쳤다. 《건너오지 말라구. 사람이 건너가네!》-

《...어...어...어...》 그쪽에서 분명치 않은 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왔다. 그러면서도 전지불은 그냥 건너오는 조짐이다. 사람이 건너가고있

다는 소리를 못들었는가? 이런 비좁고 흔들거리는 줄다리로 마주 건너오면 어쩔셈인가.

《저건 도대체 어떤 도깨비같은 녀석이야! 거기 서지 못할가!》 룡세농민의 입에서 드디어 사나운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쪽에서 또 뭐라고 소리친다.

《어… 어…》

전지불은 그냥 다가왔다. 가까이 다가왔다. 막돌같은 욕설을 내키는대로 뱉어버리던 룡세농민의 입이 어인 일인지 굳어져버렸다. 이어 그는 뭐라고 알수 없는 소리를 혼자서 중얼거리었다.

바람에 흠날리는 실오리같은 비발속을 비치는 전지불너머로 거인같은 사나이의 룡락이 알려졌다. 뿌연 후광에 청년의 얼굴이 얼핏얼핏 드러났다. 그 사나이의 등뒤에서 방수포비옷자락이 바람에 세차게 펄떡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모습은 더더욱 거인같아보이는 것이었다.

《창석이 아닌가?!》

한껏 반가움에 젖은 룡세농민의 놀란 목소리가 울리었다.

《이런데루 오실건 뭐유!》 화를 내는듯한 목소리에도 정이 배어있다.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었다.

《어떻게 알고… 마중은 무슨 마중을…》

《전보를 받았어요.》

《어, 이럴줄 알았더면 치지 말걸… 공연히…》

청년은 그의 가방부터 받아들었다. 그는 비바람을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것은 발판에 엮세게 버티고 서있는 어방없이 커보이는 체구때문이었다.

청년은 룡세농민을 안내하면서 돌파서서 걸어갔다.

《도중에 돌아올건 뭐니까. 작업반에 사람이 없는것도 아닌데… 이번 기회에 병치료를 말끔히 하고osi라고 그랬는데. 꿈이 그렇다했더니, 참!》

《꿈을 꾸었다구?》

《말마시랴요!》

《허-이렇게 마중을 나와가지구 날 나무람할 건 뭐가. 그런데 이사람, 거 주의하게. 미끄러워!》

그들의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나는 까닭모르게 눈곱이 확 달아올랐다. 청년이 처음부터 화를 내는 까닭이며 왕청같은 꿈이야기도 아직은 식연치 않았지만 불같은 예감이 가슴을 뜨겁게 덥혀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자연의 광란을 잊고 있었다. 발판을 울리는 청년의 묵중한 발자국소리가 가슴에 마쳐왔다. 쿵, 쿵, 쿵…

《…여기가 어디라구…려판에 들러 비나 굶고 오실게지… 위험한 일을 하실건 뭐유…》

로파심이란 늙은이들한테만 있는 것 같지 않다.

젊은 사람이 웬 걱정이 저리도 많단말인가.

《주의하오. 평양사람! 일없겠소?》 하고 이번에는 룡세농민이 나를 돌아보며 걱정했다.

《아바이나 주의하시랴요!》

나는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뜨거운 것을 느끼며 말했다.

조금후에 우리는 줄다리를 건너왔다.

길은 거기서부터 두갈래로 갈라졌다.

곧추 뻗은 넓은 길은 쌍룡리로 향한 길이었고 벼이삭에 묻힌 소로는 송화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룡세농민의 어깨우에는 어느새 젊은이의 방수포비옷이 씌여졌다. 그 젊은이와 나는 어둠속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초면의 사람들이라 어정쩡한 인사를 나누었다.

《쌍룡리로 가는 평양손님이야.》 룡세농민이 나를 소개했다.

《들어가 비를 굶고 가시지요.》 청년이 진심이 어린 따뜻한 목소리로 나에게 권고했다. 별치않은, 우리 생활에 혼한 그 권고가 나에게서는 더없이 가슴찌릿하게 안겨왔다.

《가야 하우. 래일아침까지 돌아오자면.》 나는 일부러 활짝 개인 소리를 했다. 그를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그럼 잘 다녀가십시오.》

젊은이는 돌아서서 몇발자국 걸어갔다. 전지불은 룡세농민을 기다리느라고 거기에 멈춰섰다.

룡세농민이 나에게로 다가왔다.

《정말 그냥 가야겠나?》

《원, 아바이두.》

나는 어둠속에서 비를 맞으며 서있는 청년의 뒤모습을 가리키며 슬그머니 물었다.

《세포비선가요?》

나는 나자신도 어떻게 되어 그가 세포비서라고만 생각했는지 알수 없었다.

룡세농민은 나의 눈길을 따랐다. 그는 한참후에 왕청같은 소리를 중얼거리었다.

《죽을 때까지 이고장을 뜯것 같지 않아! 죽을 때까지! …여기가 바로 내 선친이 온 땅을 찾아 헤맸구 내가 한생을 그리던 바다지…따뜻한…나의 바다! …》

그는 비내리고 바람이 울부짖는 드넓은 대지를 돌아보았다. 자신의 온 넋을 깃들인 땅, 사심없는 로력의 땀으로 걸구어놓은 것이어서 더더욱 숨이 지는 순간까지 그러안고 불을 비비며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하는 황금의 대지를 바라보며 그는 묵묵히 생각에 잠기었다. 반세기전 어린 자기의 눈에 비졌던 우리 당의 첫 세포비서에 대하여 생각하는가? 자신의 한생을 맡아주고 가장 가까이에서 걱정해주며 보살펴준 그 품에 대하여 생각하는가? 그렇다. 바다처럼 웅심 깊고 뜨거운 은혜론 품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사나운 대지위에 떨어진 작은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 거목이 되었을 것인가.

하지만 그는 다만 창초와 로력의 땀을 더 뿌리며 육신이 빠근하도록 일하고싶은, 그리하여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싶은 농민의 소박한 꿈에 취해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룡세농민을 바라보았다.

《어서 들어가보십시오. 집에서 기다릴텐데.》

《정말 그냥 가시려요?》

우리는 헤어졌다. 어둠속에서 룡세농민의 따뜻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잘 가오-오-! 길을 헛갈리지 마우-우-!》

나는 휘연히 트인 길을 따라 성큼성큼 걸어갔다. 문득 나는 평양에 있는 나의 안해와 자식들 그리고 연구소동무들이 생각났다. 나는 그네들을

사랑한다. 그네들과 함께 나의 깨끗한 로력의 땀을 바쳐가는 나의 평양을 무한히 사랑한다.

끝없는 생각에 잠겨 걸어가던 나는 자기도 모르게 송화마을쪽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바람이 울부짖는 망망한 벌판 한끝으로 움직여가는 한점의 밝은 불빛이 보이였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기였다.

그러자 귀전으로는 《길을 헛갈리지 마우-》 하던 그 소리가 또 울리어오는듯했다. 그것은 마치도 벼이삭들이 한껏 무르익어 설레이는 대지의 속삭임마냥...

새 인간들의 탄생앞에

변홍영

이제는 평범한 일로 되었구나
부모없는 아이들을 말아기르는
가슴 뜨거운 그 이야기
이제는 레사로운 일로 되었구나
동지위해 기꺼이 목숨도 바치는
아름다운 그 소행

아침마다 펼쳐드는 당보에 실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새 소식
저녁마다 텔레비죤화면에 소개되는
참다운 새 인간들의 탄생앞에
내 가슴 한없이 숭고해진다

조국에 피를 바친 영예군인들과
한생을 기약하는 처녀들
그처럼 향기질은 꽃송이가 또 있으랴
기다리는 정든 고향도시를 지나
들끓는 탄전으로 탄원해가는
그 세대군인들처럼 장한 청춘의 모습
이 세상 어디서 다시 찾아볼수 있으랴

내 노래를 바치고싶다
한 피를 나눈 부모도 아니건만
자식없는 늙은 영예군인부부의 딸이 되려
천리 먼 낯선곳으로 떠나간
그 대학생처녀앞에

내 진정 시의 꽃다발을 엮고싶다

얼음덮인 물속에 뛰어들어
꺼져가는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고
꽃다운 청춘을 바친 그 심장앞에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줄 아는
이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앞에

아, 얼마나 깨끗한 량심과 의리의 세계가
이 땅우에 날마다 펼쳐지고있는가
세상에 소리쳐 자랑하고싶은
우리의 사회주의가 낳은 새 인간들
진정 내 나라의 참모습이 아니냐

온갖 악설로
사회주의를 훼방하는자들
부귀와 황금을 위해서라면
부모의 가슴에도 칼을 박는
그 짐승같은 자본의 세계를 눌러딘고
이 세상 한복판에 찬연히 솟아빛난다
참답고 아름다운 인간의 세계
우리의 사회주의는!

오, 내 이 시대, 이 땅에 사는
드높은 자부로 웨치노니
이처럼 아름다운 인간들을 키워내고
이처럼 참다운 사회주의를 빛내여가는
우리 당의 사상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당의 손길은 얼마나 거룩한가!

휘황한 미래

김익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오늘 우리의 교육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를 받아 찬란히 꽃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를 가나 본보기학교가 있고 그 학교들의 성과와 경험을 따라 모든 학교들이 한결음한결음 주체교육의 상상봉을 향해 전진해가고있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기슭의 문수거리 초입에는 대동강제 1 고등중학교가 자리잡고있다. 걸보기에는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아담한 학교이다.

그러나 이 학교는 남다른 영예와 자랑을 간직하고있다. 학교는 안팎이 나무랄데 없이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깨끗이 꾸려졌으며 학생들의 외모며 교양상태가 훌륭하다.

아침마다 문수 궤도전차정류소앞에서 이 학교취주악대가 힘차게 울리는 음악은 출근자들속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체육을 잘하여 모범체육학교가 되고 전국고등중학교 배구경기 때마다 1 등을 하고있는 사실 또한 널리 알려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과 국기훈장 제 1 급을 수여받은 2 중 영예의 붉은기학교라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학교의 성과에 대해 말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다른 학교들에도 흔히 있는것들이다.

이 학교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명실공히 실속있는 영예와 자랑이 있다.

교원들은 전국교수경연, 교원물전시회에 나가 1 등의 영예를 차지하고 학생들은 전국학과경연에 나가 1 등의 영예를 쟁취하는, 교육내용의 질적성과를 담보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이 학교에 있는것이다.

이 학교의 교장실에는 자동인쇄기가 달린 전자계산기가 있다. 인민교원인 만양일교장은 이 하나의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학교를 관리운영하고있다. 그가 가지고있는 자기원판들에는 학교의 연간계획을 비롯하여 교원학생들의 실태자료로부터 경리계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료가 기억되어있다.

학교에서는 문서놀음이 거의 없다. 모든 교원들이 전자계산기를 다룰줄 알며 교원들은 필요한 자료를 교장실의 전자계산기에 타자쳐서 기억시킨다. 교장은 필요한 자료들을 종합분석하고 학생교육교양을 위한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이것은 이 학교의 운영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도이다. 교원들의 교수교양활동에 현대적과학기술기재들이 리용되는것이 하나의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이 학교의 력사는 불과 10 년밖에 되지 않는다. 한 학교의 력사로 볼 때 10 년이란 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우리 교육의 질적비약을 보여주는 이러한 성과가 과연 어디서 시작되어 어떻게 이루어진것이겠는가.

새 거리에 솟아난 《큰집》

만양일교장의 첫일과는 누구보다 훨씬 먼저 출근하여 학교안팎을 돌아보는 일이다. 그는 학교정문을 지나 운동장에 첫발을 뒹고는 학교외양부터 훑어본다.

번듯한 운동장둘레에 무성한 잎새를 조용히 흔들며 운치를 돋구는 키높은 백양나무들, 교사정면을 조화롭게 장식한 상록수들, 덩대로 뻗어오르는 포도넝쿨과 붉은색가시장미, 아담한 5 층교사, 그뒤의 강당과 체육관.

그는 늘 이 주변에서 자기학교가 제일 《큰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습관되었다. 대동강반의 변모는 최근 10 여년간 실로 거창하였다.

주체사상탑, 5 월 1 일경기장, 금룡동굴, 룡라다리, 쇠바줄다리, 통일거리, 문수거리들이 일떠섰고 학교주변만 하여도 15~20 층의 높은 살림집들, 청년중앙회관과 동평양대극장 등 덩치 큰 건물들이 짝 찼다. 그러나 만양일교장은 그 어느 집보다도 자기학교가 제일 크다고 자부하고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1982 년봄 어느날 그는 뜻밖에도 문수거리에 일떠서는 새 학교의 교장사업을 맡게 되었다.

오랜기간 애써 꾸린 학교를 버리고 신설학교로 가야 하는 만양일교장의 마음은 무거웠다.

교육사업이란 한두해에 자리가 나는 일이 아니어서 누구나 자기의 정력과 땀이 배인 정든 학교를 선뜻 뜨지 못하는 법이다.

하물며 교장인 경우임에랴.

그가 부임되던날 교육부문의 책임일군이 직접 만나주었다.

《동급조동인데다가 신설학교를 맡는것이 선뜻 내키지 않을수 있소.》

그 일군은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린듯 너그러이 말을 건넸다.

《실은 좀...》

만양일교장은 속심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아니요.》

그 일군은 이렇게 부정하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정중한 몸가짐을 하며 말을 이었다.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당 제 6 차대회를 며칠 앞둔 어느날이었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밤과 낮이 따로없이 대회준비사업전반을 보살피시는 바쁘신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인민대학습당 건설장을 찾으시었소.

건설장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수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소.

지금 우리가 평양시에 인민대학습당과 평양산원, 빙상관, 등 기념비적 건설들을 많이 하고있는데 이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와 함께 학교건설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지금 힘을 넣는 건설도 다 후대들을 위한 일인데 그것을 다루게 될 새 세대들을 잘 키워내지 않으면 보람이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제제**〉를 내놓으신지도 여러해가 지났는데 우리 일군들이 학교교육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다음해에 평양시에 본보기가 될수 있는 학교들을 잘 짓고 그것을 점차 일반화해야 한다, 이렇게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소.

지금 동무가 말게 되는 학교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새로 서는 학교요. 그런만큼 학교를 잘 꾸려서 그이의 기대에 꼭 보답하기 바라오.》

그 일군은 믿음에 담긴 표정으로 만양일교장을 정겹게 보았다.

《제가 미처... 꼭 보답하겠습니다.》

만양일교장은 감동이 담긴 어조로 대답했다.

그의 가슴은 흥분으로 하여 설렘이었다. 그이께서 교육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이 깊으셨으면 당대회를 며칠 앞둔 그 바쁜 때에 이토록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겠는가. 그는 교육일군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미숙한 사업때문에 그이께 심려를 끼치게 된것만 같아 깊은 자책을 금치 못하였다.

(내 한몸 부서지든 한이 있더라도 꼭 그이의 기대에 보답하리라.)

만양일교장은 굳은 각오를 가슴속에 새겨넣었다.

그는 지체없이 학교로 찾아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큰집 한채 없던 허허벌판에 7천여세대의 현대적고층살림집들이 일떠섰다. 그속에 일떠선 학교들중의 하나가 그의 학교였다. 말그대로 나무랄데 없는 현대적 교사였다. 개학을 앞두고 교원들이 속속 배치되어 왔다. 만양일교장은 면밀한 작전을 하고 개교준비를 다그쳐나갔다. 뜻깊은 개교식을 앞둔 날밤 그는 교원들과 함께 학교내부를 다 돌아보았다. 비록 잔손질이 가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학생이 되어 공부해보고싶은 마음이 솟구치게 하는 훌륭한 환경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맙습니다!》

만양일교장은 뿜어오르는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며 거듭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다.

평북의 외진 산골에서 나서자라 여러 교종을 거치며 대학까지 나오고 교육부문에 나선후 여러 학교에서 교편을 잡아온 그였지만 이처럼 훌륭한 학교를 대하기는 처음이었다. 이런 황홀한 집에서 평범한 노동자, 사무원들의 자녀들이 공부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인민의 력사적숙원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시대에 와서 최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지고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전후 변변한 책결상 하나 없는데서 공부를 했고 아직은 실험기구도 갖춰지지 않아 교원의 설명을 받아 추측과 상상의 도움으로 학과목의 리치를 깨치지 않으면 안되였던 만양일이였다.

그는 20여년이나 교단에 서있지만 지금처럼 흥분에 들뜨기는 처음이였다.

주체교육의 교단에 선 교원혁명가로서의 긍지와 보람, 자부심과 영예가 가슴뿌듯이 반겨들었다.

이런 양양된 분위기속에서 교원들의 결의모임을 가지고 새학교의 개교식을 맞았다.

1983년은 만양일교장에게 있어서 평생을 두고도 잊을수 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련속된 나날이였다.

온 나라가 당 제 6 차대회 결정관철에로 떨쳐나선 1983년은 새로운 경제건설의 목표를 위하여 기념비적인 대건설을 위하여 나라에서 막대한 투자를 부담하게 된 해였다.

그럼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학교교육에 아낌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생산되는 교육설비들과 교편물들, 실험실습기구들의 명세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내주셨을 뿐아니라 귀중한 외화까지 들여 교육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설비기구들을 보내주시였다. 그리하여 각종 실험기구들, 박제표본, 시약품, 생물표본, 광물표본, 악기류, 체육기자재는 물론 투영기, 환등기, 록화기, 록음기, 최신형전자계산기 지어 초침시계에 이르기까지 새롭고 좋은것은 빠짐없이 다 보내주시였다.

이해에 10여차례에 걸쳐 1천여점에 달하는 사랑어린 선물이 전달되는 과정은 온 한해를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속에 들끓게 했다.

교실에서는 글 읽는 소리 더욱 구성지고 강당에서는 각종 악기소리 한층 높아갔으며 운동장에서는 뛰노는 학생들의 활기가 눈에 띄게 더해갔다.

그때부터 만양일교장은 학교에 들어서는 출근길에서나 학교를 나서는 퇴근길에서나 교사정문에 멈춰선채 학교의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것이 습관으로 되였다.

(세상에 나처럼 보물이 가득 든 〈큰집〉을 받아안은 사람은 없다.)

학교를 견학, 참관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그들로부터 찬사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만양일교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다.

받아안은 사랑과 신임은 크고 높을진대 그 보답의 제전은 어데인가.

새로운 지향

1984년 7월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만양일교장의 마음은 무거웠다. 회의에서는 그의 학교가 일을 잘하는 학교로 평가되었고 그자신 높은 국가수훈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만양일교장을 기쁘게 해주지 못했다. 기쁨이나 만족감은 결코 차례지는 평가나 명예에 의해 얻어지는것이 아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자기 량심앞에 떳떳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나 만족은 없는것이다.

그는 회의과정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회의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격사적인 서한을 접하는 순간부터 그 어떤 가책에서부터 오는 자신에 대한 불만감을 누를길이 없었다.

그는 밑줄을 그어가며 반복해 읽은 서한을 다시 펴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혁명을 일으켜 학교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새 세대들을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며 우리의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양일교장은 교육의 질문제앞에서 자기 량심이 떳떳치 못함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학교안팎을 꾸리고 과정안대로 수업을 하고 파외활동을 벌리고 체육이나 씨클활동을 하는것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학교나 다 하고 있고 또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일이었다. 그자신도 이면에서는 마음에 꺼리는것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지 않는 교육의 질적수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기에 주력하지 못했고 남보다 별로 앞선것이 없다는 가책이 마음의 종아리를 친것이다. 더구나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본보기학교가 되라고 지적해주시고 현대적 교육설비와 기술기재들을 보내주신 참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일해온것을 뼈저리게 느끼었다.

더구나 서한의 다른 대목에서 전자계산기와 록화기같은 기술기재들, 새로운 과학실험기구들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활동에 널리 리용할데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서 지금이야말로 재래식교육방법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을 현대화, 과학화해야 할 때라는것을 통절히 체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부분적과목에서나 리용될뿐 현대적기술기재를 장식품이나 진렬품처럼 참관자앞에 보이는 데 불과했던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결심한 만양일교장은 교원들속에 서한관철을 위한 분과별 대책안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대책안은 그가 관심하는 내용이 별반 나오지 못했다.

그는 교원들의 모임을 열었다. 그는 회의실로 록화기, 환등기, 투영기들을 가져다놓았다. 교원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들을 쳐다보았다.

《오늘은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기재조작법 인식정도를 검열하겠습니다.》

만양일교장은 시치미를 떼고 선언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이건 청천벽력이구만...》

교원들은 웅성댔다.

《자, 한사람씩 해봅시다.》

만양일교장은 명단순서대로 불러내어 조작법을 설명시켰다. 이미 교수에 활용하던 교원들은 손쉽게 조작했으나 많은 교원들이 입을 못벌렸다.

《금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교수에 현대적기술기재를 적극 인입해서 교수의 질을 높이는겁니다.》

만양일교장의 강조에 한 녀교원이 벌떡 일어섰다.

《기구가 몇대씩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모든 과목에 다 쓸수 있습니까?》

녀교원이 이렇게 반문하며 좌중을 둘러보자 또 한 교원이 일어서며 질문을 던졌다.

《일반과목들도 다 해야 됩니까?》

만양일교장은 요구나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었다. 그들스스로가 깨닫게 하는것이 필요했다.

회의를 마치고난 그는 곰곰히 생각했다.

만양일교장은 교수참관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 대조적인 두 수업을 보게 되었다.

한 지리교원은 《토양》이라는 제목의 수업을 몇장의 결그림을 놓고 교재내용을 전달하는 식으로 하였는데 학생들의 리해정도를 료해한 결과 토양에 대한 개념을 매우 추상적으로밖에 몰랐다.

그런데 어느 한 생물교원은 물고기운동을 배워주는 수업에서 록화화면을 통해서 준비한 꼬리와 지느러미들의 역할을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설명이나 패도로써는 줄수 없는 깊은 리해를 주고있었다. 학생들의 리해정도는 전수업과 대비안되게 높았다.

만양일교장은 두 수업에 대한 전교 교원들의 참관수업을 조직하고 즉석에서 시험을 조직했다. 교원들에게 주는 자극이 컸다. 수업방법개선의 중요성이 누구에게나 명백해졌다.

그날저녁 그의 사무실로 전남의 두 교원이 찾아와 자기들에게도 기대를 달라고 제기했다.

《 좋습니다. 한번 달라붙어보시오. 》

만양일교장은 긴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분과장들을 통해서 생물교원의 교수방법을 모든 과목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갔다.

이와 함께 교원들속에서 설비들의 원리와 조작법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벌렸다.

가정부인 녀성교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교수교양사업만 하해도 시간이 딸리는 실정에서 이 일을 해낸다는것이 쉽지 않았다. 일부 교원들은 애초부터 적극적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만양일교장은 우선 자신부터 기술기재들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교원들에 대한 요구와 지도를 할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자계산기를 자기방에 설치하고 그것부터 익히기 시작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과 련계밑에 해당부문의 기술서적들을 구입해들이는 한편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기구들의 원리와 조작법들을 배웠다. 그는 복잡한 학교일들을 처리해나가는 과정에 거나 침식을 잊고 이 일을 해나갔다.

만양일교장은 한동안 전자계산기 프로그램작성과 그 리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밤마다 대학의 한 교원을 찾아가곤했다. 그러던 어느날은 갑자기 회의준비가 제기되어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대학교원이 찾아왔다.

《 내 이럴줄 알았습니다. 결강이라곤 모르던 〈모범학생〉이 무단결석을 할수는 없거든요. 》

일이 바빠 자리를 뜨지 못한것을 확인한 대학교원은 감탄을 숨기며 통담조로 말을 걸었다.

《 아. 선생님이... 이거 착실치 못한 〈학생〉 때문에 밤길에 〈가정방문〉을 오셨군요. 미안합니다. 》

만양일교장은 그의 방문이 고마와 눈곱이 다 뜨거워났다. 참으로 얼마나 좋은 시대인가.

이렇게 되어 그날밤도 《과정안》을 어기지 않고 개별수업을 받았다. 이튿날부터는 대학교원 자신이 직접 찾아와서 전자계산기 조작법을 배워주었다. 교원들이 퇴근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못했다.

이리하여 만양일교장은 불과 한달사이에 전자계산기의 원리와 조작법, 프로그램작성과 리용법은 물론 록화기를 비롯한 현대적기술기재들을 자유자재로 다룰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토대해서 모든 교원들이 배우는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 부문에 기초가 있는 교원들로 조를 묶고 배우게 하는 한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집체강의나 전습도 조직했다.

이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자 슬금슬금 피하던 교원들도 나서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한편 만양일교장은 교수활동에 기술기재들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혁명력사교원 리봉녀, 생화학과장 최금희, 외국어분과장 유성숙 등을 본보기로 내세우는 한편 모든 교원들이 투영기와 환등기에 쓸 필름을 준비하고 록화필름을 찍기 위한 구상도 익혀갔다.

교수의 여가시간에 이런 사업을 하자니 교원들이 여간 시간이 딸리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분과실이나 대외기관에 나가서 자재를 구한다, 그림을 그린다, 록화촬영을 한다 법석 났었다.

그러던 어느날밤, 교장실로 한 녀교원이 찾아왔다. 평시에 말이 없고 성실히 일하는 교원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안하고 눈물이 글썽한채 옷자락만 쥐어뜯고 서있었다.

《 무슨 일입니까? 》

만양일교장은 심상찮은 일이 생긴것만 같아 마음이 조여졌다. 그러지 않아도 요사이 교원들이 늦게 집으로 가는것과 관련된 여러가지 뒤소리들이 돌고있었다. 일부 세대주들은 의견까지 있어한다고 했다.

《 교장선생님, 저의 세대주를 한번 만나주십시오. 》

녀교원은 이 한마디를 겨우 하고는 눈물을 툭툭 떨구며 나가버렸다.

만양일교장은 속이 철렁하는것을 느끼며 한발 늦었다는 생각을 했다. 끝내 일이 벌어지고야 만것이다. 그는 담배를 붙여물고 방안을 무겁게 거닐었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건설장에서 부르는 힘찬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분수에 넘치게 지나친 욕망을 내세운것인가?)

그가 이런 생각에 땀들이칠 때 직일교원이 낮에 온 편지 한장을 가져다놓고갔다.

이 학교에서 교무지도원을 하다가 다른 학교 부교장으로 옮겨간 사람이 쓴 편지였다. 그는 무심결에 편지를 뜯었다.

...

교장선생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서한을 관철하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사업을 일신해보자고 학교의 물질적토대를 꾸리는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수월치 않습니다. 나는 힘들 때마다 교장선생님과 함께 밤 밝혀가며 새 학교를 꾸리던 일을 되새겨보곤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힘겨웠지만 그때가 제일 보람찼던것으로 인상깊게 회상되면서 오늘의 난관을 이겨내는데 힘을 주곤합니다. 그쪽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원들에게 신심을 돈구어주기 위해 불원간 교원들을 데리고 학교참관을 가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힘이 될만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

만양일교장은 편지를 탁상우에 놓고 저도 모르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를 구현해나가는 일인데 어찌 쉽게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어떤 난관이 막아선다 해도 기어코 뚫고나가야 한다.

만양일교장은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린것을 두고 스스로 낫을 붙였다.

이튿날밤 그는 간밤에 왔던 녀교원의 집으로 찾아갔다. 늙은 시어머니가 앓아눕고있었다. 시어머니가 있다는것은 알고있었으나 앓는것은 모르고있었다. 두 아이가 할머니에게 교장선생이라고 알려주었다.

《할머님,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만양일교장은 로인의 손목을 잡고 사과했다,

《원. 고맙기두. 교장선생님이 다 우리 집엘 ...》

늙은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진 아직 안들어오셨냐?》

만양일이 큰아이에게 물었다.

《오늘아침 출장이셨습니다.》

아이의 대답이었다.

《그래, 저녁들은 먹었냐?》

만양일교장은 들고간 가방을 끄당기며 물었다.

《오늘은 어머니가 일찍 오겠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아직도 안나타나는 어머니가 야속한듯 출입문쪽을 눈질했다.

만양일교장은 가지고간 빵을 꺼내놓았다.

돌아오는길에 만양일교장은 병원에 들렀다.

남의 사정은 아랑곳않고 일만 시키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는 허거르게 웃었다.

며칠후 출장지에서 돌아온 남편이 교장실로 찾아왔다.

《어머너를 입원시키셨더군요. 집일 하나 바로 잡지 못하고 교장선생님한테 근심을 끼쳐 면목이 없습니다.》

세대주는 몸둘바를 몰라했다.

《아, 이리저 마우. 오히려 내가 잘못을 빌어야 할텐데 ...》

만양일교장은 손님에게 담배를 권하고 안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그렇다면 저도 좀 도울수 있습니다.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남편은 혼연히 나왔다.

그후 만양일교장은 학교일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 리봉녀교원을 비롯해서 세대주와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해나갔다.

교원들의 분발된 힘에 의해서 일은 성과적으로 진척되어갔다. 얼마후에는 많은 교원들이 록화기를 비롯한 기재들을 손쉽게 다루게 되고 자기 말은 파목의 많은 시간분을 기재를 쓸수 있게 준비해나갔다.

이 과정은 교원들의 자질을 한계단 높이는 과정이였고 학생들의 실력도 한층 비약하는 과정이었다. 이무렵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물리, 외국어경연에 참가하여 단연 1등의 자리를 차지

하게 되었다. 련이어 최금희교원은 전국교수경연에 참가하여 《빛과 합성》에 관한 지능계발교수를 훌륭히 치르어 1등의 영예를 쟁취하게 되었다.

이것들은 학교의 큰 경사였다. 교원학생들은 자기 학교에 대한 영예와 긍지로 가슴들을 불태웠고 사기 또한 하늘을 찌를듯했다.

만양일교장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의 정당성을 교원들속에 더욱 확고히 인식시키는 한편 교수사업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쳐나가도록 짜고들었다.

록화기를 비롯한 기술기재들이 모두 리용되게 되었다.

처음 교원모임때 어느 한 녀교원이 제기한 문제가 현실적문제로 부각쳤다.

만양일교장은 물리분과 교원들과 협의밑에 이를 타개할 대책을 모색케 했다. 그들은 끝내 종합조종장치를 만들어냄으로써 몇대의 환등기나 록화기로서도 12개의 분과실험실습실에서 한꺼번에 수업을 할수 있게 만들었다.

성파에 자만을 모르는 만양일교장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체의 힘을 발동하여 새로운 실험실습기구를 창안제작하는 사업도 내밀었다.

이리하여 문흥주교원은 레이자발전기에 기초한 새로운 광학실험기구를 창안제작하여 전국교원물전시회에 내놓았다. 이 창안품은 과학적가치로 해서 1등상과 발명권을 받고 차후 3대혁명전시관에 전시되게까지 되었다.

이렇게 하여 만양일교장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서한관철을 위한 첫단계목표를 점령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이 기간 근 200 시간분의 록화편집물, 1000 여시간분의 물리문제풀이, 전자계산기 프로그램, 2000 시간분의 환등 및 투영필름들을 완성하였다.

이속에 들어있는 교원들의 고심어린 노력과 시간에 대해서는 수자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한시간분의 록화편집물을 만들기 위해 계절을 바꿔가며 거듭되는 촬영을 동반해야 하였다.

만양일교장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님 탄생 80 돛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 50 돛에 즈음하여 근 60개의 록화테이프 수록된 고등중학교 수업용 록화편집물을 목록과 함께 정성품으로 보고드렸다.

이것은 이곳 교원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충성심의 결실이었다.

학교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 기술기재를 수업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것, 이것은 오늘 교육발전의 시대적요구의 하나이다.

이 사업은 학교의 환경조성이나 체육사업이나 예술씨클과는 달리 오직 후날에 가서 후대들의 활동과정에서만이 진가가 표현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자의 참다운 량심을 내건 어려운 사업이다.

만양일교장은 이 분야에서 다소나마 해놓은 일이 있고 경험을 가지고있는것을 더없는 자부심으로 간직하고있다.

1992년 9월에 열린 전국교육일군대회를 계기로 학교는 2중영예의 붉은기학교를 수여받았으며 만양일교장은 인민교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그가 인민교원의 영예를 지니기까지는 학교관리, 학생교육교양, 교육일군육성, 대외사업 등 여러분야에 걸쳐 쌓아올린 성과가 놓여있다.

그러나 만양일교장은 다른 모든 성과보다도 학교교육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얻은 성과를 가장 값높이 여기고있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서한관철의 2단계 사업으로서 학교교육의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결정적으로 올림으로써 영예의 《7.15 최우등학교》를 쟁취할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바로 이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명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빛나게 실현하며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마련해가는 길임을 그는 굳게 확신하고있다.

-대동강제 1 고등중학교에서-

전사의 신념

유영하

눈에 보이지 않아
빼앗지 못하던가
손에 잡히지 않아
꺾지 못하던가

남모르는 격전장에 쓰러져
한줌의 흙이 되어도
살아 뉘속에 살아
세기에 빛발치는 전사의 신념

그것이 없어 지난날
값없이 죽은 목숨도 있고
그것을 못지켜
전향문에 더럽게 이름을 남긴
역스러운 배신자도 있거니

진정 신념이란 무엇이기에
그것을 지키면
죽어도 삶은 영광속에 빛나고
그것을 저버리면
살아도 생은 대를 이어 죄스러운것이나

부모를 모시는
자식의 효성을 뛰어넘어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존경을 훨씬 넘어
불에도 타지 않는 전사의 신념

그것은
위대한 인간에게 반한
매혹된 심장의 막을수 없는 박동
운명도 미래도 그 모두

그 품속에 말긴 전사들이
바치고바치는 불같은 충성

성실한 실천속에 깃들고
진실한 행동속에 빛발쳐
티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것
안락과 등지고 사심과 담을 쌓아
언제나 량심앞에 떳떳하거니

명령과 지시로는 지킬수 없고
위선과 허위로는 빛낼수 없어라
피를 나누는 혈연속에 움트고
생사를 함께 하는 투쟁속에 자라
의무이기전에 량심인 전사의 신념

친애하는 그이를 모시여
래일도 승리할 그 확신
위대한 그 품속에 안겨사는
한없는 긍지 끝없는 영광
죽어서도 지켜갈 굳은 맹세

그것이여라
전사의 신념 그것은
친애하는 그이께서 안겨주신
내 운명의 생명선
그 품속에 무궁할 값높은 삶의 빛발

우주에 태양이 있어
천체의 별들이 영원하듯
향도의 태양이 빛발쳐
이 땅에 불멸하리라
오 신념, 전사의 삶이어

쌉

백금선

창문으로 석양의 옅은 해빛이 흘러들었다.

도학생소년회관 문학소조지도교원인 김웅철은 아까부터 류다른 흥분에 휩싸여 창가를 천천히 오락가락하고있었다.

(무슨 일때문일까?…)

출입문쪽에 앉아 원고를 읽는 젊은 지도교원 박기성은 머리를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그렇다 해서 선뜻 물어보기도 주저되리만큼 김웅철의 둥글사한 얼굴과 큰눈, 한마디로 말해서 《농촌풍경》을 보는듯한 수수한 인상은 심각하기도 했고 엄숙하기도 했던것이다.

말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법이다. 김웅철이 바로 그런류의 사람이라는것을 박기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김웅철은 얼핏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더욱 긴장감이 느껴지는 얼굴표정으로 주머니를 부스럭거리며 담배 한대를 급히 뽑아물었다. 그리고는 불도 켜대지 않은 담배를 연신 빨아대면서 제법 연기까지 내뿜는 흥내를 내는것이였다. 말하자면 자기로서는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고있는것이였다.

박기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미가 《피벽》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문학소조지도교원으로서의 높은 자질과 성실한 노력과 깨끗한 량심으로 하여 존경해마지 않는 김웅철의 너무도 의외의 거동에 보는등마는등하던 원고를 덮어버렸다.

김웅철은 다시한번 시계를 내려다보더니 문 열벽에 붙어있는 방송의 음향조절기를 틀어놓았다. 다른 방도 아니고 사색을 기본으로 하는만큼 조련해서는 크게 틀어놓지 않는 방송소리였다. 일순간에 방송원의 청높은 목소리가 방안가득 차 흘렀다.

방송에서는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새로 형상한 서정적인 노래선율이 한창 고조를 이루며 흥겨우면서도 그윽한 음악세계를 펼치고있었다.

(혹시 김웅철선생이 저 선율때문에?… 아니야, 좀처럼 삭일수 없는 피로움을 음악감상으로 지워버리려고 생각한게지…)

박기성은 제식으로 김웅철의 심중을 대충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였다. 김웅철은 그 서정적인 노래 다음에 이어 발표되는 전국문학작품현상응모 심사결과 발표를 것처럼 신경을 돋구어 듣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니까 리영수의 작품때문에? 아 틀림없다. 바로 그 단편소설의 성공여부가 저 진실한 가슴을 이처럼 바재이게 한것이였구나.)

박기성은 마치도 전류에 감전되기라도 한것처럼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서서 얼마나 사람처럼 방송원의 목소리를 듣고있는 김웅철의 어린애의것처럼 순진한 얼굴을 뚫어지게 지켜보고있었다.

김웅철이 지금 흘러가는 한초한초를 얼마나 지루하다고 느끼면서 숨가빠하는가 하는것이 확연히 알려졌다. 그렇다. 그는 마치 축구경기장에서 11미터 벌칙볼을 바라보는 그런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순간에 서있다고 말해야 할것 같았다.

쿵쿵… 박기성의 심장조차 소리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도 모든 신경이 자기 귀에 모이는것을 느끼였다. 드디어 방송원은 소설부문 당선자들의 심사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단편소설 1등 〈4세의 마음〉 ××탄광기계공장노동자 리영수》

《아!》

박기성은 자기의 심리적반응을 의식할새없이 소리쳤다.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웨치였다. 그러면서 김웅철의쪽으로 눈길을 가져갔다. 일순제 흥분에 휩싸여있던 박기성은 이 시각의 모든 기쁨을 통채로 감각해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김웅철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리영수에 대한 심사결과와 함께 김웅철은 두손으로 가슴을 꼭 그러안더니 중심을 잃고 비칠거렸다.

박기성은 급히 그를 부축하여 긴 쏘파에 앉히고 진료소에 연락을 했다.

상냥한 녀의사는 세심하게 진찰하더니 다음과 같이 진단하는것이였다.

《갑자기 충격적인 흥분으로 심장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좀 안정시켜야겠어요.》

박기성은 아직 혼몽한 정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있는 김웅철이의 조용한 얼굴을 지켜보며 오래도록 방안을 거닐었다.

×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도 학생소년회관 문학소조지도교원으로 배치를 받은 박기성은 아동문학계의 이름있는 작가였던 김웅철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데서 전문으로 창작생활을 하고 싶어 소조지도교원에 대해 가졌던 일종의 불만을 어지간히 풀수 있었다. 물론 김응철이 근래에 왜 글을 쓰지 않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구석》에 자리잡았는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았다.

어느날이었다.

박기성은 며칠전부터 쓰기 시작하여 오늘 끝낸 자기의 서정시 한편을 김응철과 토론하고 싶어 사무실안을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런데 두사람이 마주앉을 시간적공간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 소조원들의 작품지도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자기 작품을 어서 발표해서 전문창작기관에 가려는 박기성의 심정은 시간을 보냄에 따라 더욱 강렬해졌다.

(왜 아직 나타나지 않을까?)

그는 주르륵 주르륵... 소리를 내며 비가 내리는 창밖을 마주서서 김응철을 기다리고있었다.

방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것처럼 물이 똑똑 떨어지는 옷차림으로 김응철이 방에 들어선것은 이미 석양벌이 스러지고 어스름이 깃드는 때였다.

《어딜 가셨습니까?》

박기성이 우산도 없이 들어서는 김응철을 맞으며 물었다.

《아직 안들어갔군. 저 리영수때문에...》

김응철은 별스레 킁킁해지고 늑어보이는 얼굴에 어쭙은 웃음을 짓고 물이 흘러내리는 옷을 벗어짜며 말했다.

《예? 또 그 일로요?》

박기성은 줄지에 기분이 잡쳐지는듯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온갑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가 이러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요즘 회관교원들속에서는 김응철이와 리영수라는 학생의 관계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뒤소리들이 있었는데 그 요점은 무슨 빛을 지었길래 문학공부를 안하겠다고 하는 학생을 불안고 늑은 몸에 주책없이 따라다니는가 하는것이였다.

리영수는 고등학교 졸업반이였다. 많은 교원들의 말에 의하면 리영수는 문학소조에 들었던 마음과는 영 판판으로 도덕이 없고 지어 불손하기까지 한 학생이였다.

리영수는 제 또래들앞에 로골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흥, 난 작가라고 해서 글을 잘 쓰는줄 알았어. 그래서 배우자고 했던거야. 그런데 뭐니? 응철 선생님이 글 한편 발표하는게 있니?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 글은 안되고 잔소리만 남은것 같애. 우리 같은 코흘리개들이나 불잡구 시간을 보내자는게지 다른게 없어. 그래서 난 벌써부터 꼭 찍어말하면 4 학년에 올라오면서부터 다른 과목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응철선생은 겁질기게도 달라붙어 문학을학하니 내 참...》

리영수가 했다는 말을 다른 교원에게서 전해들은 박기성은 그날 분을 참을수 없어 김응철과 마주앉았었다.

《응철선생님, 난 정말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기성이 가까스로 흥분을 누르며 안타까이 입을 열었다.

《무슨 일로 아닌밤중에 주먹 내밀듯하는거요?》

학생들이 쓴 작품을 펴놓고 그 무슨 큰 보물이라도 찾으려는듯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던 김응철이 사뭇 의아한 눈길로 박기성을 넋지시 건너다보았다.

《지금 우리 회관에서 배우고싶어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리영수같은 학생때문에? ...》

박기성은 여기서 말허리를 끊지 않을수 없었다. 김응철이 리영수라는 이름이 불리우는 순간부터 별스레 언짢아한다는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느껴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두 사람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응철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물론 박기성선생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찾아오는 학생들만 배워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처럼 훌륭한 회관을 마련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의도에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한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영수경우만 놓고보아도 그렇지요. 그 학생이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거야 아직 철이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도 그 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김응철은 나직하면서도 석싹한 목소리로 말하고나서 방금전까지 보던 소조원들의 작품을 다시 보려는듯 도수높은 안경을 쓰는것이였다.

박기성은 입을 다시고 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김응철의 극성스러운 행동이 도저히 리해가 가지 않는것은 여전하였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창대꽃히듯 비내리는 저녁에 또 리영수의 졸업문제를 안고 어디로 갔다 왔다는것이 부지중 불만을 자아내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던것이다.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박선생, 됐습니다. 영수문제가 오늘로락착되었습니다.》

김응철은 옷을 벗이 물을 짜고나서 의자에 앉아 담배 한대를 붙여물더니 기분좋을 때의 습관대로 흠뻑 빨아 삼키면서 말했다. 파르스름한 연기속에서 등글사한 얼굴이 그윽한 미소를 짓고있었다.

《락착이란게 뭐니까?》

박기성은 눈섭을 치켜올렸다.

《예. 일인즉 이렇게 되었습니까.》

김응철은 오늘 오후에 있는 일을 느릿느릿한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 김응철은 비구름이 짙어진 때 회관문을 나섰다.

(내가 과연 잘못 생각하는게 아닐까? 아니야 그럴수 없어...)

큰길에 들어서면서 김응철은 마음속으로 자문자답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의아한 눈길로 흘끔흘끔 쳐다보았지만 응철은 아는지 모르는지 두툼한 입술을 고집스레 꼭 다물고 몸의 균형을 가가스레 지탱하면서 걷고있다.

응철은 리영수의 담임선생과 교장선생을 만나고 돌아오는길에 그의 집에 가서 영수와 어머니까지 마주앉았다가 오는 길이었다.

응철은 이미전에 영수의 문학적인 재능을 간파했었다. 영수에게서 발견한 재능의 짙은 스쳐버릴수도 놓쳐버릴수도 없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었다.

내 동생 색동옷에 고운 무지개
무슨 색깔 곱게 물들었을까

노란줄은 산원의 금보석 색깔
빨간줄은 새참시간 빨간 사과빛

대원수님 사랑속에 꽃핀 무지개
우리 나란 아롱다롱 무지개 나라

제법 《무지개 나라》라는 제목까지 척 달아서 응철에게 가져온 동요는 우리 당의 사랑속에서만 꽃피날수 있는 것이었고 우리 사회주의조국만이 영수라는 한 어리고 순진한 가슴속에 안겨줄수 있는 재능의 《새싹》이었다.

응철의 가슴은 설레었다. 아지랑이 은치마를 허리두르고 아장아장 걸어온 봄맞이언덕에 보드라운 흙이불 살짝 들치고 뽀조름히 솟아오른 파아란 새싹!

그러한 재능의 싹을 발견한 응철의 기쁨은 이룰데없이 크고 또 부풀었던 것이다.

응철은 움터오른 그 새싹을 조심히 어루만졌고 영수를 고마운 우리 조국을 위해서 복무하는 작가로 키우고싶었다. 영수의 재능은 그후에 쓴 여러편의 글에서도 나타났다.

진정이란 언제나 뜨거운 법이다.

응철의 그 심정은 그대로 어린 《싹》을 키우는 자양분으로 습새어들었던 것이다.

응철은 원예사마냥 어린 싹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문학적요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영수도 그 마음을 받아안았는지 응철의 지도를 받으며 문학의 묘리를 터득하느라 무진 애를 썼었다.

재능의 싹은 자양을 듬뿍 받은 나무처럼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날 영수에게서 응철에 대한 야속함과 환멸감이 솟구친 자그마한 사건이 일어났다.

영수가 제강소에 다니는 용해공형님이 얼음구멍에 빠진 어린이를 구원한 가슴뜨거운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글을 쓸 때였다. 왜서인지 글은 처음부터 갑작라지지만 하고 잘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얼음구멍에서 오래동안 고생한 용해공형님의 온갖 고통을 이겨내는 희생정신이 생동하게 그려지지 않았다.

한번, 두번... 응철의 요구는 여러번 반복되었다. 그래도 변화가 없자 응철은 영수를 강가로 데리고갔다. 추운 겨울이었다.

응철은 가지고 간 손도끼로 얼음구멍을 넓게 까고 말없이 옷을 입은채로 들어섰다.

영수는 숨동복깃속으로 목을 자라처럼 움츠리며 눈이 화등잔만해서 응철을 쳐다보았다.

《영수! 네가 지금 쓰고있는 이야기글에서 용해공형님이 어떤 고통을 이겨내며 어린이를 구원했는지 잘 알도록 감각적인 묘사를 하려거든, 또 네 글을 보는 사람들이 용해공형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게 하려거든 얼음물속이 얼마나 찬가를 알아야 한다.》

강물이 허리까지 치는 얼음구멍에서 응철은 이발을 땀땀 마주치며 기대어린 눈길을 보내었다.

영수는 자기가 이제 피할수 없는 곤경에 빠졌다는것을 느끼었다. 그는 주춤주춤 얼음구멍에 한발을 잠그었다. 어찌나 찬지 눈앞이 아찔해지며 숨이 딱 막히었다.

《안되겠어. 마음의 준비가 약하거든...》

응철은 영수가 다른 한발을 더 들이밀기전에 닥침 그를 들어올렸다.

앞장에서 강가를 떠나는 응철의 아래도리는 장작처럼 째째했고 걸음을 옮길적마다 와삭와삭 소리가 났다.

비록 한쪽 정강이만 얼음물에 잠그었었으나 영수는 응철의 말없는 실천에 대한 체험이 강해서인지 그날저녁으로 이야기글을 완성하였다.

그의 글을 보고나서 소조원모두가 기뻐하고 부모들도 못내 만족해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글은 어느 출판물 한귀퉁이에도 나가지 못하였다. 응철이 그런 《너그러움》을 표시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더우기 《소년신문》기자가 찾아와서 가져가겠다고 하는것을 응철이가 굳이 막아버리고 학교학생들앞에서만 발표케 한데서 영수의 불만은 한껏 커졌다.

영수는 의욕을 잃어버렸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문학소조생활에도 잘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응철은 영수의 부모들을 찾아가 진실을 납득시키느라 무던히 애를 썼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영수를 자기 아들로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영수가 쓴 몇줄 안되는 〈무지개 나라〉라는 동요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주는 행복을 진실한 감정으로 감수하고 그것을 표현해보려는 영수의 재능의 싹을 보았더랍니다.》

하다면 이 짝은 반드시 귀중하게 가꿔줘야 하며 열매를 맺고 향기를 풍기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수가 이 말의 진가를 다 알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다.

《선생님! 제 앞날을 두고 너무 걱정마십시오. 제 운명은 제가 어련히 책임지지 않으리요. 저에 대해선 상관하지 마십시오.》

마디마디가 응철의 살을 꼬집는 듯한 비틀린 소리였다.

(그렇지... 차라리 그들의 말대로 모든것을 포기해버리자.)

하지만 응철은 자기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던 가싶게 빠른 걸음으로 다시 영수의 학교로 찾아갔다.

응철은 교장선생과 영수의 담임선생과 다시 마주앉았다.

학교측은 처음에 어리둥절해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상급학교에 보내자고 애쓰는 제기는 많이 받았어도 상급학교에 가게 된 아이를 보내지 말자고 하니 말이다.

하지만 김응철의 설복은 간단한것이 아니었다. 상급학교도 좋지만 영수에게는 현실을 바로 알고 그에 열렬히 공감하는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것이 급선무라는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끝마다 강조했다.

그리하여 응철은 마침내 교원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게 되었다.

친아들처럼 그의 전도와 운명을 관심하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진심이 교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던것이다.

얼마후 영수는 XX탄광기계공장으로 배치되었으며 그닥 즐겁다고 말할수 없는 기분에 휩싸여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응철은 퇴근길에 영수의 작업장을 들려보는것을 중요한 일과로 삼았다.

영수가 탄광기계공장에 들어가 아직 한해도 채 보내지 못한 12월의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응철은 소년회관문학소조실에서 소조원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보아주고있었다.

이때 《찌르릉》전화종소리가 울리었다. 응철이 미처 수화기를 들새없이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응철선생님이십니까? 탄광기계공장입니다.》응철은 긴장해졌다.

《예! 제 응철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고요?...》

그는 한손으로 들었던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움켜쥐면서 어지간히 두려워지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소리를 기다렸다.

《영수동무가 그만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어떤 사고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기전에 가슴이 섬찍하였고 사금파리같은 예리한것이 아프게 들이박히듯했다.

수화기를 든채로 넋을 잃고있던 응철은 공장으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바지주머니에 두손을 깊숙이 찌르고 얼굴을 푹 숙이고 맥없는 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으면서 길가의 돌맹이를 멀리로 혹은 가까이로 차버리던 영수는 《영수!》하는 웨침소리에 화뜰 놀라며 우뚝 멈춰섰다.

영수는 《후》한숨을 내쉬며 뜻밖에 나타난 응철이의 꺼멥게 질린 얼굴을 힐끗 쳐다보다가 고개를 푹 떨구더니 한옆으로 획 바람처럼 달아나버리는것이였다.

응철은 뒤미처 달려나온 같은 작업반 동무들로부터 사고를 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그날 영수는 대학에 가있는 동창생으로부터 오래간만에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의 내용인즉은 현실속에 용약 뛰여든 영수가 못내 부럽다는것이였다.

《선반공 영수여! 그대 깎아놓은 쇠밥만도 무득히 봉우리를 이루었겠지...》

난 그대가 부럽네. 자기의 깨끗한 땀과 성실한 노력으로 조국에 진짜배기 보탬을 주고있으니까...》

그러나 친구의 편지구절은 영수의 기분을 오히려 잡쳐버렸다.

《흥. 모르는 소리. 한번 진짜로 당해보면 이런 멋들어진 환상같은 소리는 안할거야.》

영수는 응철선생의 《각본》에 따르는 자기의 《현실체험》을 이렇듯 불만스럽게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영수는 생각할수록 로동현장으로 자기를 《내동맹이친》 응철에 대한 원망으로 가슴이 끓어올랐다.

바로 응철을 것처럼 놀래웠고 영수자신을 추세를 가망이 없는것처럼 《폭 죽여》놓은 그 사고는 이 순간에 일어났던것이다.

《뿌드득》하는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영수는 와뜰 놀랐다.

그는 한순간 어찌할바를 모르고 찢찢매다가 스위치를 급히 잡아챘다. 하지만 선반기의 변속치차이발들이 깨어져나갔다.

이 일이 있은후부터 영수의 얼굴에서는 밝은 웃음을 거의나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럴수록 응철은 은근히 마음을 더 썼으며 더 자주 만났다.

《영수! 얼음구멍에 발을 넣던 때 일을 잊었니, 선반기앞에선 선반공의 진실한 마음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반공의 생활을 담은 글을 쓸 수 있겠니.》 이런 진정 어린 마음에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확실히 영수는 생각깊은 눈으로 응철을 대했으며 전보다 더 열성스레 공장일을 해나가느라 무던히도 애를 썼다.

×

박기성이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김응철이 정신이 드는듯 《아니 박선생,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두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좀 정신이 들었습니까.》

박기성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응철은 쏘파에서 일어나려고 옷몸을 움직거리었다.

《안됩니다. 아직은 더 안정해야 합니다.》

박기성은 김응철의 팔을 잡아 조심스럽게 도로 눕혀주면서 말했다.

《안정도 해야겠지만 난 한시각이라도 바빠 리영수를 만나봐야겠단 말입니다.》

김응철의 말끝은 왜 그런지 낮아졌다. 그것은 김응철이의 뚫어오르는 행복과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차고넘쳤기때문이라...

《선생님도 참...》

박기성은 왜 그런지 코마루가 쩡 울리고 눈시울이 후터워지는것을 어찌지 못하여 퍼런 피줄이 불긋불긋 살아있는 김응철이의 손을 꼭 쥐었다. 후대앞에 바치는 김응철이의 구김살없는 순결한 량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박기성의 귀가에는 김응철이 언제인가 소조지도교원모임때 한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그대로 쟁쟁히 울리었다.

그때 김응철은 한 문학소조원이 쓴 세련짜리 동요를 스쳐보아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학생소년회관은 무엇때문에 세워졌습니까? 나라에 돈을 쓰고 남아서 이처럼 훌륭한 집을 지어주었겠습니까? 나는 언젠가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문학소조원들이 쓴 작품들을 한편한편 보아주시면서 <이런 재간동자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는 우리 조국의 앞날에 대해 무엇을 걱정할게 있습니까. 정말 궁지스럽고 자부심에 차넘칩니다. 앞으로 이런 재능의 싹들을 더 많이 찾아 훌륭히 키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잊을수 없습니다. 저 자신이 작가로부터 문학소조지도교원이 된것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처럼 높고 깊으신 뜻을 받들고저 한것이였는데 어린 소조원이 썼다고 하여 또 변변치 못하게 썼다고 하여 소조원들의 작품을 성의없이 본것은 하나의 죄악에 가까운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김응철은 끝내 몸을 일으키고 쏘파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그의 큰 두눈에는 인간이 가질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감정이 가득 고여있었다.

《응철선생님! 리영수동무는 <4 세의 마음>이라는 단편소설을 언제 썼습니까?》

박기성은 방안에 차흐르는 침묵도 깨뜨릴겸 김응철을 것처럼 흥분시킨 리영수의 작품에 깃든 이야기를 듣고싶어 이렇게 물었다.

《그 소설 말이지요? 생각납니까? 금년 초봄에 내가 탄광에 나갔던 일이?》

《예.》

《바로 그무렵이었지요.》

김응철은 추억에 잠기고싶은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을 시작했다.

어느날 퇴근무렵이었다.

김응철은 당세포비서에게 말했다,

《비서동무, 저를 ××탄광기계공장 자체탄광으로 보내주십시오.》

세포비서는 흠칫 놀랐다. 그것도 그럴것이 환갑나이가 된 김응철이 젊은축들도 선뜻 나서기를 저어하는 탄광으로 자진하겠다는 리유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것이다.

《왜 그러십니까?》

《리영수가 그곳에 갔습니다.》

김응철은 세포비서도 이미 잘 알고있는 리영수문제라 별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대답했다.

《아니 리영수가요?》

《예! 얼마전에 자진했습니다.》

《그 리유는?》

《아마도 자기를 심각히 검토했던가 봅니다. 구실 못하는 자기를 찾아보았을 때 좀더 어려운 곳에서 단련하고싶었던거라고 생각됩니다. 난 영수가 이제야 제 설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탄광에서 꼭 좋은 현실체험을 할것이며 좋은 글을 쓸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런 때에 영수 결자리야말로 제가 서야 할곳이 아니겠습니까?》 세포비서는 응철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나온듯 그의 결심을 이미 굽힐수 없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터이라 말없이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는것으로 공감의 뜻을 표명하였다.

응철이 탄광으로 달려가 영수의 호실에 짐을 풀어놓았을 때는 이미 저녁해가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이 뜻밖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수는 응철의 마디 굵은 손을 짹 붙잡고 눈물이 글썽해서 말없이 쳐다보았다.

그 다음날부터 응철의 하루일과는 분과 초를 나누어가는 계산수와도 같았다.

처음 부닥쳐보는 갱일이라 몸시도 힘들어하는 영수의 작업복도 빨아주느라 또 탄광문학소조사업도 지도해주느라 어지간히 바쁜 응철이었다.

또 어떤 때는 영수가 불 참고서적을 구해오느라 수십리 밤길을 걷기도 하였다.

나이가 나이고보니 어지간히 힘이 들었다.

그러나 응철은 그런티는 조금도 없이 오히려 영수더러 《후회하지는 않느냐?》하고 자주 묻곤 하였다.

그때마다 영수는 《아닙니다.》하고 대답했다.

그럴 때마다 응철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영수를 바라보곤 하였다. 한해사이에 얼굴에서 사라질 줄 모르던 해사한 빛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과묵한 표정의 길쭉한 얼굴은 대체로 말보다 생각을 깊이 담고있었고 술진 눈섭아래 영채도는 두눈은 어른스럽게 어글어글했으며 때때로 듣는 목소리, 웃음소리도 확실히 굵어진것이었다.

어느날 저녁이었다.

김응철은 호실에 들어서서 리영수의 얼굴에서 근래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던 그런 의혹이랄가, 실망이랄가 한 어두운 그늘을 찾아보게 되었다.

(힘들어 저렇가? 몸이 아플가? 아니면 하는 일이 맞잡지 않는것일가? …)

요즈음에 응철이 자기 나이를 잊고 사는것도 들끓는 현실속에서의 리영수의 성장을 피부로 느끼는 기쁨때문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것일가?

그는 영수가 마주앉은 책상결에 가 앉았다.

《오늘도 경속보에 큼직하게 났더군.》

김응철은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속보에 이름자나 커서 뭘합니까? 석탄산이 커야지.》 리영수는 두손을 각지끼더니 툭툭 소리가 나게 손가락마디를 꺾으며 기분잡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야 물론 옳지. 그렇게 일하는데서 석탄산이 왜 안커지겠나? …》

김응철은 리영수의 얼굴표정이 부쩍 오르지 못하는 석탄생산량으로 하여 생긴 불만으로 어두워졌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았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영수는 손으로 턱을 고인 채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정말 체면이 없습니다. 당에서는 우리같은 3세, 4세들을 것처럼 믿고있는데 하는 일이야 어디… 선생님! 그래서 전 오늘 우리 소대 〈잔소리아바이〉와 한판 했습니다. 글썽 땀 때문에 석탄이 없는 3호갱에 우리가 그냥 붙어있자고 고집하는가고 말입니다…》

《잔소리아바이》라면 이곳 탄광의 좌상격으로서 김응철이도 알고있는 오랜 탄부였다. 근면과 성실로 못사람들의 말없는 존경을 받는 아바이인데 젊은 축들의 건성건성하는 일본새와는 한사코 해보는데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별명으로 불리웠다.

《그러니까 그 아바이의 고집에 문제가 있단 말이지?》

《예! 그 고집이란게 어찌 센지 하늘소 뉘탈통 같다니까요. 전 정말 속보에 이름이 나는것부터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입니다.》

《허, 그러고보면 그 아바이의 고집도 보통이 아닌게로구만. 그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김응철은 이렇게 말하며 그대로 생각에 잠기었다.

두사람의 담화는 여기서 흐리마리해졌다가 사흘후 같은 시간에 리영수에 의해 다시 펼쳐졌다.

방금 목욕탕에서 나오는 길인듯 목에 젖은 수건을 걸치고 방안에 들어서던 영수는 책상우에 비닐보를 펴고 거기에 올려놓은 큰 석탄 한덩이 하나를 들여다보고있는 김응철이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그게 뭡니까?》

리영수의 말은 혼하디혼한 석탄덩이를 무슨 일로 방안에 끌어들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어이구 수고했구만. 영수! 여기와 앉으라구. 난 지금껏 이 멋있는걸 나혼자 보는게 섭섭해하던 참이었지.》

그제야 영수가 들어선것을 알아차린 응철은 주름깊은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앞에 의자를 꺼내놓았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리영수는 앉을 생각도 잊은듯 의문이 담긴 눈으로 김응철을 바라보았다.

《글썽 앉으라는데… 영수 이보라구, 이게 바로 영수가 일하는 3호갱 석탄이야. 영수가 매일 캐는… 난 오늘 영수네가 흔히 〈잔소리아바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보고 이 〈기념품〉을 가져왔지.》

《예? 그럼.》

《그래 그래. 영수는 몰랐을테지. 그 아바이는 벌써 환갑이 돼오는 공훈탄부야. 또 탄광당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 영화 〈군당책임비서〉의 최관배로인 비슷한 분이지. 그가 아직도 막장일을 하는건 몇푼의 돈때문이지 아니야. 오늘 나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하지. 〈나도 압니다. 날 잔소리꾼이라고 뒤말을 한다는걸. 하지만 보시오. 이 막장만 놓고 보아도 젊은 축들은 자꾸 버리자는겁니다. 말하자면 탄이 팡팡 나오는 다른 갱으로 가자는게지요. 그렇지만 비록 양이 적기는 하지만 이 비게같이 반들거리는 석탄을 어떻게 버릴수 있단말입니까? 아닙네다. 그래서 안뵈네다. 석탄이야 석탄이지 어디 버릴게 있단말니까?자. 이걸 이걸 좀 보시우다.》

영수, 난 그 아바이가 부들부들 떠는 두손으로 받쳐드는 이 석탄덩이를 저도 모르게 금덩이처럼 받아들었지. 정말 가슴이 뜨겁더라 말이야. 우리 혁명의 1세, 2세들의 마음을 대변할만한 그 아바이야말로 우리 당이 바라는곳에서 다만 자기몸이 그대로 활활 타는 석탄이 되고싶어 그러는게 아니고 뭘겠나.》

리영수는 말이 없었다. 그는 마치도 이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석탄이라는 물건을 바라보는 그런 눈길로 김응철의 앞에 놓인 석탄덩이를 이

음으로 내려다볼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부위는 불그스레하게 상기되고있었고 어글어글한 두눈은 것처럼 가지고싶던 그 무슨 귀중한것을 찾았을 때의 그런 환희를 숨기지 못하고있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리영수가 움쭉 자리를 뜨며 남긴 말이 이것이었다.

이런 담화가 있는 얼마후부터 리영수의 생활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저녁밥숟갈을 놓기 바쁘게 《드르렁 드르렁》 꿈나라로 날아가곤하던 영수가 요새는 밤늦도록 탁상등을 켜놓고 열심히 무엇인가 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밤새도록 한본새로 앉아 깊은 심연속에 빠져있는것이였다.

응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왜 자지 않는가고 물을 때마다 영수는 아무 일도 없으니 먼저 쉬라고 친절하게 말하곤하였다.

어느덧 나날이 흘러 탄광동원기일도 끝나고 공장으로 돌아가게 된 어느날 저녁이였다.

그 저녁 영수의 눈치는 이상할정도로 초조하기도 했고 또 그 무엇인가 바라는듯도 싶었다.

한창 집을 꾸리고있던 영수가 머뭇머뭇하며 갑자르더니 흰 종이두루마리를 응철이앞에 내놓는것이였다.

무심결에 성큼 받아쥐고 종이말이를 편 응철은 그것을 눈앞으로 바싹 끄당겼다.

거기에는 영수가 정성담아 한글자 한글자 주옥같이 다듬어쓴 단편소설 《4 세의 마음》이라는 큰 글발이 확대되어 안겨왔다.

응철은 천천히 원고의 첫장을 번지며 내심 기쁨속에 가슴을 들먹이였다.

(그래서였구나, 밤잠을 자지 못한것이... 엉뚱한 녀석같으니...)

응철이의 마음은 꽃구름에 실려 진한 향기를 풍기는 열매동산을 찾아 멀리로 떠나는 동화의 주인공마냥 동등 부풀어올랐다.

응철은 하던 모든 일을 단념해버리고 소설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소설의 내용은 나어린 선반공청년이 동무들과 집단의 방조 속에서 조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성장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것이였다.

집으로 돌아온 응철은 그 무슨 귀중한 《보물단지》처럼 소중히 안고온 영수의 소설에 대한 추천서를 자자구구 생각담아 썼다.

그리고는 세대의 의무가 담긴 자기의 수표를 툭툭툭툭 박아서 현상모집부에 올려보냈던것이다.

×

바로 이 시각에 리영수는 회관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덧 응철이 있는 방문앞에서 멎어버렸다.

영수는 급해지는 마음을 애써 누르려는듯 한참 서서 가쁜숨을 태우고나서야 호실문을 조용히 밀었다.

가슴을 조이며 문을 열었던 영수는 한동안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응철의 《급병》이 방안의 웃음으로 대변에 일소된것이다.

《선생님!》

영수는 무작정 달려가 응철이앞에 꿇어앉았다.

《영수! 너의 성공을 축하한다.》

응철은 제자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는 호탕하게 웃었다.

《선생님!》 영수는 그만 응철의 널직한 가슴에 와락 안겼다.

두눈으로는 뜨거운 눈물이 겹잡을새없이 샘솟아내렸다.

다음순간 영수는 자기의 이마전을 살랑살랑 간지럽혀주는 촉감에 고개를 살며시 들었다.

그것은 선생님의 백발이였다. 오리오리 세여진 그 백발을 박기성도 젖어드는 눈을 습벽이며 바라보고있었다.

애국렬사비가 서있는 마을

리수덕

무릇 사람들은 자기가 태줄을 묻고 자란 정든 고향을 두고 생각할 때 가슴을 적시는 야릇한 향수와 함께 고향의 표상이 될만한 그 어떤 생동한 화폭을 제나름으로 머리속에 그려보는것이 일쑤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산천경개 아름다운 그 어느 산간마을어구에 초병처럼 서있는 아름다운 리느티나무일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땅이 꺼지게 금나락이 실린 아득한 벼바다우에 행복의 배처럼 두둥실 떠있는 아담한 문화주택마을일수도 있다.

고향을 두고 생각할적마다 나에게도 금시 손으로 쓰다듬어보고싶도록 방불히 안겨오는 화폭이 있으니 그것은 원한의 땅 신천을 지척에 바라보며 재령강의 지류인 서강기슭에 자리잡은 애국렬사비가 서있는 소박한 마을이다.

가렬처절하던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인민의 자랑찬 승리로 끝난지도 어언 40년, 그사이 내 고향마을은 참으로 놀라운 전변을 가져왔다.

내 철부지이던 그때, 갈게잡이에 여념이 없던 그 세월엔 밀물따라 썰물따라 바다의 잔물이 들고나던 서강이 오늘은 서해갑문호수의 기슭으로 변하여 나무리 넓은 벌에 관개수로 흘러들고 그 전엔 기와집 한채 변변한것이 없던 고향마을에 지금은 아담한 문화주택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양지바른 언덕우의 덩치큰 고등중학교 교사와 안골의 리병원과 탁아소, 유치원 건물들은 첫눈에도 얼마나 깊은 인상을 안겨주는 정겨운 화폭인가.

하건만 고향을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 애국렬사비가 매양 먼저 안겨드는것은 고향땅에 꽃피난 오늘의 행복을 위해 신념을 지켜 한목숨 바친 애국렬사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함께 세월이 가고 산천은 변해도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이 감행한 치렬리는 야수적만행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계급적원수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높은 자각이 늘 뇌리에 스며배어있기때문인것이다.

나는 얼마전에 고향땅을 찾을 기회를 가졌다. 그것도 그저 려행이 아니라 고향마을에 피어난 미거를 취재하여 소개할 임무를 띠고 떠난 길이었다.

정든 고향땅이 가까와올수록 나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하여 사뭇 흥분에 젖어들었다.

고향마을의 로세대 당원들이 새로 찾아낸 땅에 직심스레 농사를 지어 무려 10여톤의 알곡을

나라에 바쳤다는 소식이 바로 엿그제 신문에 났는데 과연 그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강둑길을 걷는 나의 눈앞엔 70고개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이며 전쟁전부터 처마를 맞대고 이웃에서 함께 살아온 향촌마을 로당원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안겨왔다.

나의 예상은 여불이 없었다. 전략적 일시적후퇴시기 구월산인민유격대에서 잘 싸웠고 한때 리당비서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평범한 당원으로 생활하고있는 진삼아바이를 통해 나는 그사이 마을의 여덟명 당원들의 투쟁이야기를 감명깊게 들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짐짓 그들의 놀라운 성과가 믿어지지 않았다.

한것은 로당원들가운데는 적들이 마을을 강점했을 때 다수확농민으로 전시 식량증산에 열성을 냈다고 하여 사형장에 끌려가 총상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로인도 있고 두 아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낸 죄아닌 《죄》로 원수놈들의 못매를 맞고 갇혀있다가 유격대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자주 병석에 눕곤하던 로인도 있었기때문이었다.

《로인님들, 참 용하십니다. 년로하시고 불편하신 그 몸으로 것처럼 많은 알곡을 내서 나라에 바치셨다니... 그 힘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문득 이렇게 말하자 진삼로인은 한동안 말없이 건너편 등성이우의 애국렬사비를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도 잘 알지만 우리고장이야 저기 신천땅 못지 않게 애국자들의 더운 피가 많이 스며있는 땅이 아닌가! 사실 우리 8명 당원들은 누구라없이 적강점시기에 놀들이 작성한 사형자명단에 들어있던 사람들일세. 저 애국렬사묘지에 복수를 부탁하며 눈을 감구 먼저 간 이웃들이 늘 우릴 지켜보구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한테 왜 힘이 생기지 않겠나.》

진삼로인의 진정어린 이 말은 그 어떤 효능이 높은 각성제처럼 나의 뇌리를 자극했다.

불현듯 나의 머리속에는 살인과 방화, 략탈과 파괴의 치렬리는 만행이 감행되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의 그 살벌하던 광경이 떠올랐다.

원수놈들은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파괴하라는 강도적론리 그대로 무고한 인민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때려죽이고 생매장하여 죽이는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톱으로 켜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등 온갖 소름끼치는 만행을 다하였으며 주민가옥들과 학교까지 불태웠다.

나라에서 땅을 거저 준 그 은덕이 고마와 애국미를 바친것이 《죄》가 되어 최월에 수족을

묵이운채 서강에 수장당한 앞집 곱단이 아버지, 어머니며 인민군원호사업에 극성이었다고 동네 방네 조리돌림을 당하다가 숨진 뒤집 아주머니, 《빨갱이네자식》, 소년단 분단위원장이었다고 어머니와 함께 생매장당한 소꿉시절의 친구 순남이...

추억은 추억을 불러 수난의 그 시절의 잊지 못할 화폭들을 끝없이 펼쳐가는데 근엄한 빛으로 담배만 빨고있던 진삼로인이 슬며시 일어나 옷방으로 올라가서 부시력부시력 시령을 뒤지더니 누렇게 색이 바랜 참지몽치를 내놓았다.

《자네 이게 뭘지 아나?》

나는 네겹으로 접혔던 참지를 펼쳐들었다. 한 자와 우리 글을 혼용해서 갈겨쓴 붓글씨가 망막에 비껴들었다.

《이게 옛날 지주놈들의 소작인명세가 아닌가요?》

《아닐세, 그건 적들이 우리 마을을 강점했을 때 작성했던 〈빨갱이〉 처단자명단일세.》

나는 가슴이 섬뜩해짐을 느꼈다.

원썬놈들이 남긴 이 저주로운 유물이 어떻게 여기에 남아있을가?

의아함을 금치 못하는 내 심증을 헤아렸던지 진삼로인이 침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지난해 여름 마을의 마지막 유물로 남아있던 황지주집을 헐 때 보장마루에 끼워두었던걸 찾아냈지,

적들이 강점했을 때 그 집은 〈치안대본부〉였으니까...

그 명단에 자네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있네.》

증오와 분노에 찬 눈길로 그 문서장을 뚫어지게 살피는 나의 가슴은 사뭇 흥분으로 떨리었다.

얼마나 악착한 원썬놈들인가, 《처형자명단》에는 마을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걸에 그들의 《죄목》을 적어놓았는데 그 태반이 조선로동당원이었다는것이 처단의 《구실》이었다. 그외는 애국미를 헌납했거나 전선원호에 모범이었다는것, 다수확농민으로 농민동맹표창을 받았거나 마을민청사업에 앞장섰다는것 등이 죄아닌 《죄》로 기장되어있었다.

결국 잔인무도한 원썬놈들은 《빨갱이》는 더 말할것도 없고 그 지지자, 동정자들까지도 씨를 말리려고 획책했던것이다.

《악착한놈들!》

나는 저도 모르게 부르짖으며 퍼들었던 그 문서장을 꾸겨쥐었다.

그날의 그 야수놈들-계급의 원썬, 민족의 원썬놈들이 아직도 저 남녘땅우에, 아니 지구촌의 곳곳에 살아있으며 또다시 재난의 불을 지르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있음을 생각할 때 북받쳐오르는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가만! 그건 아직도 쓸모가 있으니 이리 주게. 이긴 마을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데서 하나의 산 교양자료거든.》

진삼로인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그 문서장을 다시 퍼더니 옷방의 시령우에 얹어두는것이였다.

이윽고 나와 마주앉은 그는 저력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 지나친 로파심인지는 몰라도 아무 근심거리없는 우리 세상이지만 하나의 걱정은 있다구 보네. 아침저녁 때없이 애국렬사비를 바라보면서 살며 일하고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땅, 이 마을에 어떤 원한이 깃들어있는지 까맣게 잊고있거든. 농사군은 굶어죽어두 종자는 배고 죽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근본을 잊어선 안되는건데...》

진삼로인은 힘껏 빨아삼켰던 담배연기를 후하고 내뿜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원썬놈들이 숨겨놓았던 그 〈처형자〉 명단을 손에 쥐게 된 바로 그날, 우리 마을의 8명 로당원들은 격식도 없이 모임을 가졌지.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일어나 불같은 토론들을 했네.》

우리가 만약 계급적진지를 양도한다면 이제 원썬들이 또다시 마을에 기여들어 작성할 그 〈처형자〉 명단엔 온 마을의 남녀로소가 다 오르게 될게라고,

그러니 우리 로당원들도 우리 세상, 우리 사회주의를 지키는데 보탬이 될 무슨 일을 해나가자구 열변을 토했지.》

바로 이것이였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우리의 조국, 우리의 사회주의체도를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굳건히 고수해나가려는 드팀없는 계급적각오, 그것이 백성, 천성에도 비기지 못할 귀중한 애국미로 열매지고 준엄하던 전화의 그날처럼 살며 일해가는 고향마을 로당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농촌의 계급적진지는 굳건하다는 생각이 나의 가슴속 깊은곳에서 뜨겁게 고패쳤다.

나는 취재를 마치고 고향마을을 떠나던 날 새로운 충격을 안고 다시한번 애국렬사묘에 올라 마을을 굽어보았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려보던 고향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가슴속에 받아안은 감회는 여느 때없이 컸다.

고향은 제 품을 찾아오는 나를 늘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었지만 이번에 고향이 나에게 안겨준것은 참으로 소중한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뇌였다.

고향아, 내 비록 먼곳에 있어도 언제나 애국렬사비가 서있는 이 마을에 사는 그 마음으로 일해가리라.

아름다운 꿈을 꾸네

김시권

은하수 흘러서 밤은 깊어도
사색으로 이 한밤 지새우시네
아 당중앙창가의 불빛을 안고
조국은 아름다운 꿈을 꾸네

찬이슬 옷설에 맞으시면서
향도의 천리길 이어가시네
아 끝없이 새기시는 그 자욱 안고
조국은 아름다운 꿈을 꾸네

인민의 행복을 쫓피우시며
한평생 하루같이 바쳐가시네
아 미래를 펼치시는 그 사랑 안고
조국은 아름다운 꿈을 꾸네

아 친애하는 그이의 품속에서
조국은 아름다운 꿈을 꾸네

고향의 모래불

리정래

병사복을 입고 내 찾아온 고향
바다가의 하얀 모래불은
첫 아기 포단을 짓는
어머니의 살뜰한 마음
내 덩굴며 자란 이불인가

물장구 자맥질에 식은 몸을
따뜻이 품어주던 다정한 품이었지
물방울이 흐르는 알몸을 잠그고
두팔로 모래를 모아 가슴을 피이던
정다운 요람이었지

소년단야영기발을 넘어
수평선 노을에 희망을 그리며
물결에 몸을 잠그고 모래불에 덩굴며
고향의 이 바다기슭에서
나는 조국의 사랑을 익혔지

서리내린 잔디우에 엎드릴 때에도
따뜻한 추억이 정답게 들려오던 고향의 파도소리
어릴적 동심이 온몸에 서려들어

눈덮인 전호속에서도
마치 이 바다모래불에 안겨있는듯

비물이 허리치던 그 한밤에도
고향의 모래불 그 한알한알이
그처럼 소중해
못견디게 그리웠어라

철부지 그날의 정을 안고
내 오늘은 조국의 수호자
총을 잡고 이 땅을 안아지키나니
고향의 모래불이 조국땅의 한부분이듯
내 몸도 조국땅의 한부분이여라

아 고향의 모래불 모래불아
그 한알한알에
내 뜨거운 정이 스며있고
내 후더운 땀이 배여있어
그 어떤 진주보석과도 아니 바꾸리니
내 가슴의 피방울로 너를 적시며
지키리라, 내 고향의 소중한 모래불을

위원장어머니

제 1 부

문병익

(전화에서 계속)

잔치집 부엌

음식을 지지고 볶으며 한쪽에서는 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가느라 녀인들이 분주히 돌아간다.

열려진 방문으로는 화려한 잔치상을 마주하고 앉은 신랑신부와 그들을 축하하며 떠들썩하는 친척들과 마을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밖에 승용차가 와서 밟는 소리.

《에그, 인제야 저애 삼촌이 오는거웨다.》 하며 녀인 1 이 하던 일손을 놓고 바빠 일어선다.

《량부위원장이 귀가 꽤나 가렵던 모양이우다. 인제라두 나타난걸 보니...》 하며 녀인 2, 3 이 마주보며 웃는다.

부엌문이 열리며 은정과 탄실이 들어선다.

《수고들 합니다. 귀한 새 며느리를 맞아 얼마나 기쁘십니까?》

녀인 1 이 황황히 달려가 그들을 맞는다.

《어이구 바쁜 위원장이 다 어떻게, 량정사업소 지배인까지... 어서 들어오시우. 내 영철이 에미웨다. 내 그러지 않아두 위원장을 만나면 두귀잡구 절을 할려구 버려던참이웨다.》

《아니 그건 또 왜요?》

《왜라니요. 글썸 만날 시간이 바빠 쿵쿵 뛰는 위원장이 우리 애들을 차에 태워보내구 걸어서 읍엘 들어갔다니 세상에 그런 변이 어데 있수.》

《원 별걸 다 가지구 외우면서 그러니다. 위원장이라구 차만 꼭 타구 다니라는게 어데 있습니까. 더러 걷기두 해야 건강에두 좋답니다... 그래 뭘 부족되는건 없는가요?》

《없수다. 이전처럼 잔치를 진탕망탕 차리질 않구 간소하게 하니 우선 우리 녀자들이 편해서 좋아요.》

부엌의 음식준비를 돌아보던 은정의 시선이 한쪽에 주련이 놓인 기름병들에 가 멎는다.

《탄실동무, 아직은 상점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은 모양이구만...》

《그게 며칠 가겠나요.》 하며 탄실이 한숨을 쉰다.

《어떻게 하나 버겨보이라를 빨리 완성해야겠는데...》 하며 은정이 생각에 잠기는데 녀인 1 이 그들의 팔을 잡는다.

《아니 어서들 방으로 들어가시자구요.》

《우리 녀자들이야 부엌일을 도와야지요. 탄실동무, 우리 전이나 한번 부쳐볼가?》 하며 은정이 팔을 걸고나선다.

《아이구, 이거 정말 왜들 이러시우.》 녀인들이 당황하여 그들을 만류하는데 량수환이 방안에서 부엌을 내다본다.

《아니 위원장동문 부엌에서 뭘합니까?》

《호... 부위원장동문 모르시는구만요. 대사업에선 부엌을 차지해야 실속있는걸 얻어먹는답니다.》

《그래요?! 그럼 나두 부엌에 나갈가...》

녀인들이 까르르 웃는다.

이때 신랑신부가 술병을 들고 부엌으로 나오른다. 량수환이 그들을 내세우며 말한다.

《어이구, 이거 신랑신부가 위원장동무한테 술을 붓겠다구 나옵니다.》

《아니 애들이 나오지 말아. 이러단 잔치상이 부엌으로 나오구말겠다.》 하며 은정이 황황히 방으로 들어간다.

녀인들이 모두 그를 보며 혀를 찬다.

《에그 세상에 우리 위원장같은 사람이 또 어데 있을가...》

《그러게 위원장어머니 위원장어머니 하며 모두 따르질 않수.》

방안에서 박수소리가 터진다.

밤하늘엔 보석을 뿌린듯 못별들이 반짝인다.

은정의 집

아담한 단층집이다. 은정과 탄실이 승용차에서 내려 판자로 된 울바자 대문을 열고 들어간다.

방안에서 텔레비죤을 보고 앉았던 은정의 어머니 장봉녀가 지청구를 하며 일어선다.

《원, 출장을 갔다온 날에야 좀 일찍 들어올게지. 우리 위원장은 집에서 기다릴 사람 생각은 영안한다니까.》

은정이 탄실과 함께 방에 들어오며 말한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잔치집에 들렀다오느라구 좀 늦었어요.》

은정이 옷을 갈아입으려 옷방으로 들어가자 탄실이 장봉녀의 손을 잡으며 응석을 부린다.

《어머니, 나 저녁 얻어먹으러 왔어요.》

《아니 잔치집에 들 갔다온다면서?》

《어머니두… 잔치집에 먹으러 가나요 뭐.》

《안다 알아. 우리 위원장이 언제 한가해서 잔치집엘 다니겠니. 꼭 가봐야 할데니 갔겠지. 어서 상을 퍼구 앉아라.》 하며 장봉녀는 부엌으로 간다.

탄실이 부엌문가에서 밥상을 차리는 장봉녀에게 묻는다.

《어머니… 어머니 왜 위원장동무가 친딸인데도 늘 위원장, 위원장 하나요?》

《왜? 듣기가 거북한가?》

《아니 그런건 아니지만…》

《우리 탄실이가 지배인이지만 그런걸 모르는 걸 보니 아직 멀었구나.》

《아이참 어머니두… 묻는건 대답 많구 비판부터 하시네. 어서 말해봐요.》

《호호… 그 뭐 별건 아니야. 난 그저 옛날엔 숯구이막에서 먹을걸 못먹구 입을걸 못입으면서 자란 우리 은정이가 위원장이 된게 너무 장해서 집안에 들어와서두 탄 일에 눈팔지 말구 당에서 맡겨준 중한 책임을 생각하라고 그러는게야.》 하며 장봉녀가 웃는다.

《어머니 어찌면… 위원장동무, 여기 와서 어머니 말씀 좀 들어보랴요.》

《아이구야, 우리 위원장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 하며 장봉녀가 당황하여 손을 내젓는다.

은정이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

《우리 어머니가 뭐라시게…》

《아무것두 아니다, 배고프겠는데 어서 밥상이나 받아라.》

탄실이 웃으며 밥상을 받는다.

부엌문가에서 그들이 저녁을 먹는것을 대견스레 바라보던 장봉녀가 생각난듯 말한다.

《참 위원장, 남철이한테서 편지가 왔네.》

《그래요?! 어디 있어요.》

은정은 밥을 먹다 말고 텔레비죤 앞상에서 편지를 꺼내본다.

《에이구 급하기두 하다. 밥이나 먹구 불게지. 괜한 말을 했구나.》

은정이 편지를 읽다가 놀란다.

《아니 이 동무가?!》

《누구말이에요? 편지 나두 좀 보자요. 미래의 이 가시어머니 좀 보면 안되나?》

《미래의 가시어머니…》 하며 장봉녀가 껄껄 웃는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어머니? 이집 남철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구 오면 우리 영미하구 제격 잔치를 해야지요. 안그래요 어머니?》

《암 그야 그렇지. 하지만 사돈간에두 더러 감출건 감춰야 한다네.》

《에… 난 또…(능청스럽게 은정을 보며) 그런 편진가요?》

《아니 자 보라구.》 하며 은정이 편지를 준다.

탄실이 받아보는 편지의 내용이 남철의 목소리로 울린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군에 물길공사를 도우려 나왔던 군부대의 주영준아저씨가 생각나시지요…》

탄실이 편지를 읽다 말고 은정을 쳐다본다.

《아니 이 사람이 바로 정전직후에 우리가 육아원에 있을 때 자주 찾아오곤하던 그 공급소대장 아니예요?》

《응 그 사람이야.》 은정이 머리를 끄덕인다.

《그런데 어떻게 남철이가…》 하며 탄실이 다시 편지를 들여다본다. 남철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어머니, 며칠전 길가에서 우연히 그 아저씨를 만났어요. 이제는 귀밑머리가 희숙한게 퍼그나 늙으셨드군요. 저는 미처 알아보질 못했는데 아저씨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얼마나 반가와하는지… 군대에서 체대되어 지금은 석탄공업부의 부총국장으로 사업하고계신답니다.》

탄실이 환성을 지른다.

《어마나, 아까 량부위원장이 말하던 부총국장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만요!》

《그 사람이 글썄 우리 남철이 배치문제를 도와 주겠다고 했다면 나한테 편지 하라구 이렇게 써보냈구나.》

《당장 편지 하랴요. 그리구 우리 기름공장 보이라두 량부위원장 말대루 석탄보이라루 개조하구말자요.》

《그건 안돼.》

《그 사람이 부총국장인데 뭐 걱정할게 있어요.》

《탄실이, 우리가 버겨보이라를 기어이 성사시키자구 한건 국가에서 탄을 제대로 대주지 않을가봐 그런건 아니지 않아. 버겨를 때면 얼마나 좋니? 나라의 귀중한 석탄자원을 축내지 않으니 좋아, 수백리길이나 되는데서 석탄 실어올 걱정이 없으니 긴장한 철도수송에 도움을 줘, 게다가 버겨는 우리 군에 얼마든지 있으니 운수난방화를 하겠으면 하구 우리 마음대로 군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잖아.》

《글썄 그건 그런데 방인철연구사두 이젠 가버렸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하겠어요?》

《방인철연구사한테 내가 가보겠어.》

《그 동문 돌아오지 않을거예요. 아까 량부위원장이 있어서 차마 말을 못했는데…》

《왜?… 량부위원장이 뭐라고 했게?》

《도위생방역소에서 운영중지표쪽을 붙인 이튿날이었어요. 글썄 내가 량부위원장동무하구 보이랴칸을 돌아보는데…》

회상화면

량정사업소 보이라실.
량수환과 탄실이 말을 주고받으며 들어선다.
《당장 버거보이라를 들어내구 석탄보이라를 놓으라니까.》
《야 참, 부위원장동무두 답답은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던지 도위생방역소하구 사업을 해서 저 운영중지표쪽을 떼도록 해야지 애들 놀음이라구 뭐.》
《버거보이라는 글씨 안돼. 래일이나 모래 내 관리국에 올라가겠는데 여러말 말구 석탄보이라 신청서를 한통 만들어 나한테 주오.》
이때 보이라 안쪽에서 인기척이 난다.
량수환이 그쪽을 보며 소리친다.
《그 보이라연도에 들어간게 누구요?》
《예 접니다...》
이윽고 얼굴에 검댕이칠을 한 방인철이 나온다.
《아니 연구사동문 아직두 여기에 미련이 있어 그러오? 정말 량심이 없구만.》

《예?...》
《내 이번에 법무위원회에 불리워다니면서 알았는데 동문 이 버거보이라때문에 대학때 이미 쓴맛을 보았다면서?》
《아니 그건 ...》
《그때두 동문 어느 공장에 나가서 실험을 하다가 운영중지를 당하구 그 공장책임일군은 법적제재까지 받았다더구만.》
《그건 전혀 다른 문제때문에...》
《동문 우리한테 그 얘기부터 했어야지. 운영중지 당할걸 뻔히 알면서 일을 이렇게 벌려놓으면 위원장동무나 나는 어떻게 하라는거요?》
《뭐라구요?... 부위원장동문 그럼 제가 위원장동무나 부위원장동무를 일부러 골탕을 먹이자구...》
《좀 야박스러운 말같긴 하지만 결과야 그렇게 되질 않았소.》
탄실이 의아해서 량수환을 쳐다본다.
《아니 부위원장동문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무렴 연구사동무가...》
《지배인동문 모르면 가만 있소. 나두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요.》
《좋습니다. 부위원장동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 더 할말이 없습니다.》
방인철이 분을 참을수 없는듯 손에 들었던 공구를 던지고 힘하니 나가버린다.
《아니, 연구사동무...》

다시 은정의 집 방안

은정이 알겠다는듯 머리를 끄덕인다.

그날밤

은정이가 착잡한 생각에 잠겨 자기 방 침대옆 소파에 앉아있다.

그의 마음속 생각들이 화면으로 시야에 다가온다.

-보이라 《운영중지》표쪽이 붙은 전원스위치함.

-잔치집 부엌의 기름병들.

-량수환에게 하소연하는 탄실.

《야, 부위원장동무, 난 이거 정말 안타까와 죽겠습니다. 글썄 이제 상점들에 나간 기름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들 하겠나요?》

량수환의 목소리.

《위원장동무, 결심하십시오. 당장 기름공장두 문제이지만 앞으로 종이공장두 건설해야겠는데 공연히 사서 고생할게 있습니까?》

-다시 탄실의 목소리.

《그 사람이 부총국장인데 걱정할게 뭐 있어요.》

은정이 한숨을 쉰다.

《주영준... 그 사람이 어떻게...》

은정의 사색깊은 얼굴우에 펼쳐지는 회상화면.

눈보라치는 밤, 들길

허름한 솜동복을 입고 목도리로 머리와 얼굴을 푹푹 감싼 젊은 녀성이 걸어가고있다. 그의 손엔 자그마한 보따리가 들려있다.

기승을 부리는 눈보라.

그속을 뚫고 한대의 인민군대 후방마차가 달려온다.

《동무, 어디까지 가요?》

마차우에서 중위의 견장을 단 군관이 소리쳤다.

《삼일군에 갑니다.》

《뭐요?》 마차에서 중위가 뛰어내린다.

《동무, 올라타오. 우리가 가는데까지 태워다주겠소.》

《아이 일없습니다. 바쁘실텐데 가보십시오.》

《고집부리지 말구 타오. 삼일군은 아직두 60리길이나 되는데 그러단 얼어죽소. 자 빨리!》

중위가 무작정 녀성의 팔을 잡아 마차에 올려 태운다.

《쨌!》 하며 상등병이 채찍을 허공에 들었다놓자 마차는 다시 눈보라속을 뚫고 달린다.

《동문 무슨 급한 사정이 있는 모양이구만. 이런 밤중에 길을 떠난걸보니.》

《네, 우리 아이들이 입맛이 떨어져 밥을 잘 먹질 못해서...》

《아이들이요?... 아이가 몇이나 됩니까?》

《스물세명이예요.》

《뭐요?...》 중위가 리해가 안되는듯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상등병이 녀성을 돌아본다.

《가만 동무 삼일군육아원 리은정동무 아니요?》

《아이 군인동무가 절 어떻게...》

《맞지요. 하하... 사면팔방 다 떠돌아다니는 우리 마사원들이 모르는게 있는줄 압니까? 거기에

탄실이라는 꼬꼬만 체네두 있지요. 나이는 열네 살.》

《아이 어찌면…》

중위가 상등병의 등을 툭 친다.

《하, 이 친구 다 아는구만. 그런걸 난 아이가 스물세명씩이나 된다고 짹짹 놀랐지. 하하… 리은정이라고 했지요? 알고지냈시다. 난 대대공급소대장 주영준이요. 이 친구 상등병 박철이구.》

《…》

《그래 아이들 입맛 돌굴걸 좀 구했소?》

《네, 외삼촌네 집에 가서 된장을 좀…》

《아니 육아원에 된장두 없소?》

《떨어진지 한 보름되었어요. 말두 할줄 모르는 애기들이 어떻게 아는지 소금을 넣구 쏜 죽은 막도리질을 하면서 받아먹질 않아요. 그럴 땐 막 같이 불안구 울지요 뭐.》

《음…하긴 전쟁을 갓 겪구나서 나라형편이 어려울 때니 할수 없지… 그래 그 애들은 다 미국놈들때문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겠소?》

《네, 대부분 폭격에 무너진 집이나 방공호속에서 꺼낸 아이들이예요.》

《개놈의 새끼들… 동무, 우리와 함께 부대에 가서 오늘밤은 쉬고가요. 내 된장을 한도람통 주겠소.》

《아이 군인동무들거야 어떻게…》

《상등병, 마차를 전속으로!》

《알았습니다.》 상등병의 채찍이 다시 허공을 가르자 말이 기급을 해서 달린다.

칼럼길

《마차를 좀 세워주세요.》

《왜 그러오?》

《글쎄 좀…》

마차가 속도를 늦추며 멈춰서자 은정이 뛰어내린다.

《동무, 가자고 그러오?》

《네, 가야겠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래일아침 두 소금죽을 먹이겠나요.》

상등병이 걱정스레 하늘을 본다.

《이거 눈보라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데…》

《일없어요. 이젠 시오리만 가면 되는데요 뭐. 안녕히 가세요. 태워다줘 정말 고맙습니다.》

눈보라속에 멀어지는 은정의 모습을 감동에 젖은 눈길로 바라보는 주영준.

《거 정말 괜찮은 너동무인데…》

《그런데 불행한 너자이지요. 결혼한지 사흘만에 남편이 전선에 나갔는데 사망통지서를 받았지요.》

《뭐요? 그럼 자기 아이는 하나두 없단 말이요?》

《없지요.》

육아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에 《삼일군육아원》이란 간판이 붙은 작은 초가집이 있다.

함박눈이 내리는 마당가에서 은정이가 도끼로 나무를 채고있다. 그의 상기된 얼굴, 흐르는 땀.

어데선가 《언니!》하고 찾는 소리에 도끼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는 은정.

《아니 저 애가…》

골짜기 아래에서 머리를 제비꼬리처럼 쫓진 탄실이 가 혈레벌떡 달려오고있다.

《언니, 저기… 저기 군대아저씨들 와요!》

《뭐 군대아저씨들이…》 하며 은정이 골짜기 아래를 더듬는데 어느새 은정의 앞에 달려온 탄실이 가 성수가 나서 채잘댄다.

《글쎄 내가 집에 갔다오는데 〈동무, 여기 육아원이 어데 있소? 우린 동무네 원장동무의 초청을 받고 오는 길이요〉 하질 않겠나요. 언니가 저 군대아저씨들을 초청했나요?》

이때 마차가 굽인돌이에서 나타나 곧장 올라온다.

《어마나, 저 동무들이 어떻게…》

은정이 놀라서 빙빙해 섰는데 주영준과 박철이 탄 마차가 마당에 들어선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동무의 약속대로 우리가 왔습니다.》 주영준이 마차에서 뛰어내리며 말한다.

《아니 언제 약속을…》 하며 은정이 당황해하자 박철이 벌쭉 웃으며 나선다.

《우리 중위동지가 어제 부대에 들러서 된장 한도람통 가져가라구 했는데 그냥 오지 않았소?》

《아이 그야…》

《그래서 우린 원장동무가 우릴 여기로 초청하는걸로 받아들였지요.》

《어마나…》

《탄실이, 내 말이 틀림없지?》

《피 엉터리…》

《뭐 엉터리? 헛하…》 박철이 허릴 제끼고 웃어대는데 주영준이 은정에게 다가간다.

《은정동무, 이건 룡담이구. 사실은 우리 부대동무들이 육아원에 된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구 미국놈들때문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된장두 없어 못먹는데 우리가 어떻게 밥을 목에 넘기겠는가고 하면서 저마끔 부식물들을 실어주는바람에 이렇게 찾아왔소. 어서 우리 부대동무들의 성의를 받아주요.》

《고마와요, 중위동무!》 하며 은정이 돌아서 눈굽을 훔친다.

주영준과 박철이 마차에서 부식물들을 내리워 토방에 쌓는다.

그자리에 굳어진채 감동어린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는 은정의 볼우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다시 은정의 집 방안

은정이 머리를 가로 젖는다.

《아니야, 이제 손을 놓으면 버거보이라는 영영 못해...》

군당책임비서의 방

은정이 책임비서와 마주앉아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오간듯 책임비서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위원장동무, 어떻게 하나 방인철연구사동무를 꼭 다시 데려오십시오. 위원장동무두 말했지만 우리 군에선 연료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읍거리

량수환이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달리고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사를 일일이 받으며 알은체를 한다.

한 여인이 반기며 그를 찾는다.

《부위원장동지...》 그러나 량수환은 역시 별 쪽 웃으며 그의 옆을 지나간다.

《에그네, 부위원장 좀 봐, 아침 첫시간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만나자구 약속하구선...》

함께 걷던 여인이 묻는다.

《까만수첩에 적었니?》

《적지 않구. 탄 한차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자동차까지 얻어났는데 어찌니...》

《량부위원장이 원래 건망증이 심하단다.》

《어마나 난 또 그건 몰랐지...》

화학공장 정문앞

량수환이 자전거우에 앉은채 한쪽 발만 땅에 짚고 소리친다.

《지배인 있나?》

접수실에서 경비원아바이가 나온다.

《방금 손님하구 같이 나갔수다.》

《얼마나 했나?》

《지난밤엔 한 천장 나온것 같수다.》

《겨우 고거야? 기사장한테 바싹 다그치라구 하오. 래일 군부대에서 세탁비누 접수 온다구.》

《예, 알고있수다.》

《수고하우.》

량수환이 자전거를 타고 또 달린다. 그는 다음 공장에 가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몇마디 하고는 어데론가 급히 달린다.

그를 지켜보고 섰던 경비원이 중얼거린다.

《원 저리두 바빨가... 저러니 <한다리 부위원장> 이란 말을 듣지. 쯔쯔...》

가내반 국수바꾸는 집

살림집에 립시로 조직한 가내반이다. 탄실이 가부엌에서 여인들과 함께 국수를 누르고있다.

설설 끓는 가마안으로 가늘고 고운 국수발이 소담하게 내려앉는것을 보며 여인들이 감탄한다.

《에그 소담두 해라. 국수발을 보기만 해두 먹음직스럽수다.》

《량정사업소 지배인이 정말 수골했수다. 국수분들이 그저그만이우다.》

탄실이 웃으며 말한다.

《인사야 우리 행정경제위원장동무한테 해야지요. 지난밤에 우리 사업소에 나와 로동자들과 밤을 꼬박 새우면서 이걸 만들었다우.》

《에그 우리 위원장이야 더 말해서 뭘하겠소. 한평생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인걸.》

이때 밖에서 《량정사업소 지배인 여기 있소?》 하는 남자의 성난 목소리가 날아든다.

《에이구 량부위원장이 다 출동했수다.》

국수발을 보며 혀를 차던 여인이 반기며 문을 연다.

《아이 어서 들어오시우.》

《지배인 있는가말이요?》 자전거우에 앉은채 한발을 땅에 짚은 량수환이 소리쳤다.

기겁을 하여 목을 움츠리며 돌아서는 여인.

탄실이 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밖으로 나온다.

《지배인동문 도대체 어떻게 된거요? 아침 첫시간에 <석탄보이라신청서>를 네 책상우에 갖다 놓으라고 하지 않았소.》

《저... 위원장동무가 방인철연구사를 데리러 갔는데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가을배꾸기 같은 소리 하오? 위원장이 간다구 그 사람이 오는가?》

《그래두...》

고속도로로 갈림길

은정이 탄 승용차가 《해주 15KM》라고 쓴 화살표를 따라 방향을 바꾸어 달린다.

운전사 태봉이 말한다.

《방인철연구사 성미가 괴짜지요?》

《공명과 가식을 모르는 열정가이지.》

《그 친구 나한테 뭘했는지 압니까? 자기가 구상하는 버거보이라가 완성되면 우리 량정사업소에서 나오는 버거만 가지구두 군안의 23개 공장은 물론 읍지구 살림집 온수난방화까지 하구두 열이 남는다니요. 그런데 기름공장 하나두 돌리지 못하구...》

《그 꿈이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이지.》

도소제지거리

은정이 탄 승용차가 고층건물들이 들어선 중심거리를 지나 한 건물앞에서 멎는다.

차에서 내려 건물 현관으로 들어가는 은정.

차창소를 하던 태봉이가 건물의 어느 한 창문을 올려다본다.

사무실안

은정이 학자풍의 일군과 마주앉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동무가 휴가를 받았단 말인가요?》

《예, 어머니 약을 구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그닥 멀지 않은 바다가 마을에 그 동무의 누이가 사

는데 아마 거기에 용한 고려의사가 있다는것 같습니다.》

《방인철연구사의 어머니가 앓는가요?》

《예, 전쟁때 방공호가 무너지면서 허리를 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때없이 도지군하지요.》

《우리한테 와선 그런 애길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어머니두 어머니지만 그 동무자신두 요새 건강이 그닥 좋질 못합니다. 불면증두 좀 있구...》

《불면증이요?》

《자기의 온 넋을 바친 창조물이 버림을 받았는데 심리적충격이 크지 않을수 없지요. 하여간 우리 시험소의 립장은 본인의 의사를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연구사동무물 만나보구 다시 오겠습니다.》은정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가만, 그 동무 누이네 집이 어디라고 했던가?...잠간 제십시오. 내 정확한 주소를 알아보지요.》

《아니 제가 연구사동무의 어머니를 먼저 찾아보구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다가마을

산기슭의 아담한 소총주택마을앞에 승용차 한대가 서있다. 그옆에 서서 한 녀인이 가리키는 바다가를 바라보는 은정.

바다가 도래곶이

바위가 들쭉들쭉한 후미진곳에 주인 없는 낚시대가 걸려있다. 여기로 다가오는 은정,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손나발을 입에 대고 소리친다.

《방인철연구사동무...》

저쪽 바위밑에서 머리를 깎지끼고 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방인철이 놀라서 일어선다.

은정이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반긴다.

《아니 무슨 낚시질을 이렇게 해요? 낚시대 따로 사람 따로.》

《위원장동지가 여길 다 어떻게...》의혹에 찬 표정을 지으며 방인철이 다가온다.

《생사운명을 같이하던 연구사동무가 올라간다 말두 없이 사라졌는데 가만 앉아있을수가 있어야지... 그래 고기는 좀 잡았어요?》

《...》

은정이 호기심을 가지고 바다물속에 잠겨있는 줄을 당기는데 시꺼먼 팔뚝같은 물고기가 와들쩍하며 물을 통긴다.

《어마나 이걸 연구사동무가 낚았어요? 이게 무슨 물고기예요?》

《바다우레기지요.》

《무섭게 생겼구만요.》

《겉보기와는 달리 아주 온순한 고기지요. 사람두 결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질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려운 때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요.》

《전 그 말의 진가를 너무 늦게야 깨달은것 같습니다.》

《연구사동무가 그런 말하기엔 아직 이른것 같은데요. 참 연구사동무, 어머니가 허리병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 안했어요? 우리 삼일군에 있는 종달새온천이 그런 허리병이나 신경통 같은엔 아주 특효가 있는데 한번 치료를 받아봤으면 좋았을걸...》

《...》

이때 저쪽 바위우에서 식료품과 과일구력을 랑손에 무겁게 든 태봉이가 이쪽을 보며 소리친다.

《여, 연구사동무!》

《인철동무, 우린 아직 점심식사전이에요. 함께 저쪽에 가서 식사나 하세요.》

《전 먹고 나왔습니다.》

《누이한테서 다 들었어요. 아침에 나와서 여적 있다는걸... 마음이 아파두 식사야 제때에 해야지요.》

태봉의 짜증섞인 목소리가 다시 날아온다.

《야, 이거 좀 와서 받아주구레. 연구사동무.》

《가서 좀 받아줘요. 저러다 바다물에 빠지겠어요.》

방인철은 그제야 바위를 건너뛰며 뒤뚱거리는 태봉에게로 간다.

그를 보는 은정의 마음의 소리.

《연구사동무가 여간만 뒤틀리지 않았구나...》

바다우를 자유로이 날아에는 갈매기들, 쉬임없이 밀려와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

은정과 방인철이 바위우에 나란히 앉아있다.

《...나두 물론 동무가 마음을 쉽게 돌릴수 있으리라곤 생각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문 우리 삼일군에 처음 와서 나하구 약속하지 않았어요. 버거보이라를 성공하기전엔 절대로 삼일군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이예요. 그러구 말했지요. 연료터미우에 앉아 나라의 귀중한 석탄을 때는건 후대앞에 큰 죄악이라고...》

《약속이야 거기서 먼저 배반했지요.》

《연구사동무, 제발 그렇게 자꾸 엇뚜질만 하지 말구 나를 좀 도와줘요. 지금 기름공장이 한주일째나 멎어있어요.》

《먼길을 찾아오신 위원장동지한테 이렇게 말하긴 괴롭지만 전 이미 삼일군엔 두번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입니다.》

은정이 한숨을 쉰다.

《정 그렇다면 할수 없지요. 연구사동무, 우리 삼일군엔 다시 오지 않더라도 그 어디 가서든 동무의 그 구상만은 꼭 실현시켜주길 바래요. 그러면 가겠어요.》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난다.

말없이 멀어져가는 은정의 뒷모습을 보고선 방인철의 얼굴에 알릴듯말듯 경련이 인다.

역사적인물의 성격창조와 언어형상의 평이성

장편력사소설 《망이》(제 1 부)에 대하여

리상복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소설, 실화소설은 다 실재한 인물과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철저히 인간학으로 되어야 한다.》

서문을 대신하여

장편력사소설 《망이》(제 1 부, 김정민)의 첫째 지에는 리규보의 시 《농부를 대신하여》중에서 이런 구절을 인용하고있다.

비 맞으며 이랑에서 김을 땔 때엔
우리 모습 람루하여 사람갈지 않지만
잘사는 집 자식들 업수이 보지 말게
자네들이 부귀함도 우리의 덕이로세

다음장을 넘기면 1175 년 을미년의 다난다사 한 해를 펼쳐보이면서 이렇게 쓰고있다.

《무서운 전란과도 같이 국토를 불태우는 이 참혹한 재난속에서도 한나절 공원을 찾아 빈둥거리던 한가스런 개경의 어느 선비량반이 문득 말을 멈추고 읊었다는 시에

〈반년가월에 늪이 마르니
개구리 울음소리 간데 없고
조정에서 금선령(부채사용의 금지령)을 내리매
송악의 빙고(얼음창고)에는 겨가루만 날리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배부른 개경량반이 시흥을 돈구어줄 청아한 개구리소리와 삼복의 더운 땀을 식혀줄 시원한 빙수를 그리워할 때 당장 먹을것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시체가 되어 들에 깔리고 산에 널렸다. 참으로 보기 드문 대살년이였다.》

소설의 한두페이지에서 작가는 벌써 량반과 백성사이의 불상용적모순관계를 예리하게 드러내면서 작중인물들을 생활세계으로 이끌어가고있다.

참으로 장편력사소설은 천민과 량반사이의 모순과 갈등으로 뒤엉킨 착취계급사회의 본질을 예리하게 발가놓으면서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혀내었고 개성이 느껴지는 산 인간의 형상을 진실하게 강조하였다.

새책을 읽는것은 좋은 동무를 얻는것과 같고 책을 다시 읽는것은 오랜 지기를 만나는것과 같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의 이야기는 재미가 있어야 하고 끌려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소설의 이야기흐름은 사람의 마음을 조였다풀었다하면서 매혹과 감동의 연속으로 시종 견인력있게 엮여져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장편력사소설 《망이》(제 1 부)를 읽으면서 그런 심정에 잠기는것은 어쩔수 없다.

필자는 여기서 다만 력사적인물의 성격창조에서 이룩한 성과와 언어형상의 평이성측면에서만 느낀 점 몇가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역사적인물의 성격창조

거의 천년전에 활동한 망이와 같이 력사적으로 알려져있고 력사기록에 남아있는 인물의 사회계급적본질을 전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그 인물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성격화하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력사적인물을 성격화하는 문제가 그 인물의 긍정적측면과 제한성을 옳바로 찾아내는 문제와 직결되어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력사적인물에 대한 성격화에서 이런 창작실천상 제기되는 문제로 하여 작가는 고충을 겪었을 것이며 진지한 사색과 독창적인 탐구를 거듭하였을것이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탐구의 길을 걸어가는 결코 험치 않은 과정에서 작가는 드디어 만족할만한 즐거움을 끌어낼수 있었으니 그것은 력사적인물인 망이는 력사적사건의 직접적담당자로 되어야 한다는것, 력사적인물의 성격창조를 잘해야만 력사적사건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킬수 있고 아울러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도 담보할수 있었다는 것이였다.

이 과정에 작가는 또한 망이의 진보성을 옳바로 평가하고 그리는것이 곧 그 인물의 긍정적측면에 대한 일반화로 된다는것을 깊이 알게 되었고 이와 함께 현시점에서 그가 할수 없었거나 하지 못한것을 밝혀내는것이 곧 망이가 가지고있는 제한성에 대한 예술적일반화로 됨을 더욱 확인하였을것이다.

작가는 자기 힘을 믿는데서만이 무엇인가를 해낼수 있다.

총적으로 작가는 장편력사소설 《망이》(제 1 부)를 창작하면서 현대성과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주인공들의 성격창조에서 발휘되는 진보성과 제한성을 옳바로 찾아내었고 력사적인물의 성격창조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작가는 자기의 창작에서 지난날의 오랜 생활을 현대적으로 개작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역사적구체성속에서 당대 현실을 우리 인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진실한 생활을 찾아내어 보여주었다. 사실 이것은 역사물창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역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요구를 옹호하게 구현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있는 문제이다.

작가는 이 원칙적인 요구에 따라 역사적사실들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성격화함으로써 주인공망이의 열렬한 애국의 넋을 립체적인 구체성속에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어 그 형상의 묘를 뚜렷이 하였다.

장편력사소설 《망이》(제 1 부)에서는 1176년 ~ 1177년 서남지방 농민군의 투쟁중에서 망이를 중심으로 한 농민봉기군이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공주성을 점령하는것까지를 그리고있다.

력사기록에는 망이농민군의 활동이 공주성점령이후에 그 투쟁활동과 제한성, 불철저성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있지만 그전단계는 그저 간단히 언급되어있을뿐이다.

이렇게 볼 때 작가는 주인공 망이를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특질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이기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여있을것이다.

작가는 망이의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계급성의 원칙에서 그의 긍정면을 찾았고 진실하게 묘사하였다.

명학소의 산행계행수인 망이는 천성이 고지식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처사는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망이이기에 마을일은 물론 오치연의 집일도 성실한 마음 그대로 도와나섰다. 그리고 신답풀이논을 두고 홍경원의 거장이 터무니없이 걸고드는 야료에도 모든것을 참았으며 방축을 쌓아 홍경원쪽으로 쏠리는 물을 막겠다고 나선다.

그러던 그가 고비의 결혼식날 백태가 고비에게 저지른 죄행과 그것을 기화로 명학소 온 마을 어른아이 할것없이 모두가 량반놈들에게 머리를 깎아주는것으로 하여 그의 마음은 드디어 분노로 변한다. 특히 망이는 늙은 어머니 누리나의 삭발당한 머리를 보고 죄인처럼 머리칼도 없는 맨머리바람으로 나다니며 사람들의 수모를 받을것을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끓어올랐다. 아들 하나를 믿고 한생을 고생한 어머니를 늘그막에 머리칼마저 온전히 보존해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한스럽고 원망스러웠던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어찌할수 없어 그는 량반놈들의 요구대로 잉어 백마리 잡아 바치려고 강에 간다.

작품에 그려진 망이의 성격은 생활의 논리에 맞게 그 발전과정이 진실하게 그려지고있다. 망이의 성격에서의 굴곡은 생활적논리성을 타면서 그것이 내면심리의 변화과정과 결합되어 잘 묘사되고있다. 인간에게는 그에 고유한 생활의 논리, 성격의 논리가 있다.

망이는 아직까지 나라법을 믿으면서 상소문을 내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마을사람들을 구원하려

고 한다. 망쇠가 그것은 개구리잔등에 찬물끼얹기지 그놈들이 원논이나 꿈쩍일것 같은가고 하면서 자기들이 농사한 신답풀이논에서 벼를 베다먹자고 하자 망이는 제가 지은 곡식인데 상소문을 내어 허가받고 먹자고 하는것이다. 그러나 그의 상소문은 량반 백가신, 백태에게 여지없이 짓밟혔으며 그는 사정없이 매맞고 피투성이가 된다.

그는 이미 정쟁이의 살가죽이 벗겨지고 장판지의 살이 터졌다. 여태껏 놈들한테 받은 수모와 학대가 일시에 뇌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한마디로 짐승같은 생활이었고 짐승같은 취급이었다. 그래도 자기는 얼마나 사람답게 살고싶어했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가.

그의 머리에는 또다시 우렛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계룡산의 초적두령 달령성이 백태같은놈을 살려두면 백성들한테 우환거리가 된다고 한 말이었다. 망이는 자신이 지금껏 바람따라 흩어지기도 하고 덩어리지기도 하는 허망한 구름처럼 살아왔음을 깨닫는다. 뼈저린 후회로 가슴을 치는 망이었다.

사람의 성격이 순차적으로 생활론리성을 가지고 발전하여야 한다는것은 자연스러운 사실로 되고있다. 이것은 성격형성이 단번에 되는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정한 생활축적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 장편소설에서 망이를 비롯한 모든 인물들은 고유한 생활론리, 성격론리에 따라 그 성격형상은 생동하고 진실하게 흘러가고있다.

서늘이의 처참한 죽음, 고비와 을님이 당하는 불행, 누리나와 오치연이 당하는 고통... 인간생활에서 당할수 있는 불행과 고통, 학대와 멸시가 아무리 크다 한들 이처럼 가혹할수야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에 의하여 빚어진 엄연한 현실이었으며 눈물겨운 참상이었다. 드디어 망이는 결심한다.

량반들과 백성들, 그것은 물과 불이 어울려 살수 없는것처럼 공주성을 쳐서 백가신같은 량반호들을 없애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망이는 농민군과 함께 공주성을 점령하고 승리한다.

력사적사료는 역사물주제작품에서 성격형상과 생활반영의 기본바탕으로 되고있다. 눈으로 볼수 없고 생활로 직접 체험할수 없는 특수한 사정으로 하여 역사주제는 불피고 당시 제한된 사료에 의지하여 성격창조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료의 종합분석과 그에 기초하여 창조적구상을 무르익혀나가는 작가의 수고를 헤아리지 않을수 없게 된다.

작가는 또한 주인공 망이의 제한성을 예술적으로 성격화하는데도 많은 힘을 기울여있다.

망이의 제한성을 밝혀내는 대목은 여러곳에 있지만 초적두령 달령성을 만나 량반 백태를 살려주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망이는 초적두령 달령성에게 량반두 유만부동이었지 무턱대고 죽여서야 사람의 도리라고 할수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백태를 살려줄것을 부탁한

다. 그러자 초적두령 달령성은 도적이니 초적이니 하고 욕되게 부르는것은 량반놈들이 하는 말이라고, 의적일지언정 결코 도적은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버렸기에 우리도 세상을 버린거라고 한다. 그러면서 백태를 놓아주고는 내지금껏 살며 봐도 량반놈치고 사람같은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서 형님두 오늘을 후회할 날이 있을것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작가는 망이의 성격을 리상화하지 않고 당시의 역사적조건에 맞게 그 사상적제한성을 설득력있게 밝혀내고있다.

작가는 주어진 역사적사료를 일면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분석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역사사료들과의 긴밀한 연관속에서 고찰할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 필요한 역사사료들의 객관적진리성과 철저한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주관적편견에서 벗어나 정당한 견해에 기초한 형상체계를 옹계 세워나갈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건이나 인물들의 어느 한 측면만을 절대시하면서 본질적측면은 놓쳐버릴수 있으며 역사적사실을 외곡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력사소설작품이라고 하여 생활에 없는것을 아무렇게나 꾸며내서는 안되며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떠나서 성격을 창조해서도 안된다.

주인공 망이뿐아니라 망쇠와 고비, 달령성, 오치연, 울님, 누리나 등 인물들의 성격에서의 굴곡은 생활적론리성을 타면서 사상감정과 내면심리의 다양한 변화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있다. 실로 장편력사소설 《망이》(제 1 부)는 주인공 망이를 비롯한 모든 긍정인물들과 백가신, 백태를 비롯한 부정인물들의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파고들으로써 모든 인물들의 본질적특성을 다면적으로 진실하게 파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필자가 강하게 느낀것은 주인공을 비롯한 모든 인물들의 생활에 대하여 작가가 힘을 들여 깊이있게 파고든것은 단순히 여러가지의 이런저런 생활을 다양하게 보여주려는 그자체에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성격의 본질적측면을 그의 다면성속에서 부각하자는데 있었다는 것이었다.

신풀이논에 대한 홍경원의 부당한 행패, 백가신의 악랄성에 대한 망이와 망쇠, 춘정의 정신세계에 대한 생동한 묘사, 초적두령 달령성의 성격적특성에 대한 특이한 강조, 백가신과 백태의 행패로 명학소의 온 마을사람들이 삭발하게 되는 생동한 화폭, 그로 인한 망이의 계급적본노, 홍경원중들의 행동을 통하여 불교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생활적인 세부들, 상소문을 내는 망이의 계급적제한성을 보여주는 진실한 장면, 오치연의 정신적변화과정에 대한 묘사의 진지성, 생활의 변화발전에 따르는 울님의 성격발전에 대한 자연스러운 서술, 서술의 죽음으로 인한 망이와 고비의 성격의 급진적변화과정, 드디어 량반놈들과는 싸워야만 살아갈수 있다는 생활론리에 따르는 그들

의 폭동계획, 이 모든것은 작품의 종자와 인물들의 성격창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력사물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지난날의 사실을 통하여 그것으로 오늘의 사람들에게 진실한 생활사실세계에로 이끌어나가는것을 자기의 본성적요구로 할진대 우리는 장편력사소설 《리순신장군》의 하나의 세부를 함께 생각하게 된다.

이 장편력사소설에는 리순신장군이 운주당에서 마을의 박천세령감과 술을 먹는 장면이 있다. 박천세령감은 흰쇠불이를 모아가지고 병쟁기를 만들어 군수용으로 보태쓰라고 리순신장군을 찾아온것으로 하여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것이다. 리순신장군은 박천세령감과 같은 자리에 마주앉아 권커니작커니 하면서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가 하면 그의 요구와 청에 따라 노래를 부르고 춤까지 춘다. 그러다가 너무 취해 그자리에 쓰러져 잔다.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량반과 천민사이의 신분이 도무지 어찌할수 없었던 당대시대에 이와 같은 생활이 있을수 없다고, 이것은 역사적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억지라고 얼굴을 찌프린다.

이외에도 이 소설에는 리순신장군을 지나치게 리상화하면서 성격화한 세부들이 적지 않다.

력사자료에도 그렇고 당대 신분제도로 보아 우선 리순신장군은 애국적인 명장이기전에 철저한 량반관료로서 엄격한 성품을 지닌 범접하기 힘든 사람일진대 이것은 당대사회적전형으로 리순신의 성격을 옹계 형상하였다고 볼수 없는것이며 또한 박천세령감 역시 그렇게 무엄하게 행동할수 없는것이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보면서 독자들은 이 소설의 적지 않은 장면들을 잘 믿으려 하지 않고있다.

장편력사소설 《망이》(제 1 부)는 상대적으로 주체의 사회력사관에 의하여 선택되고 평가된 생동한 일화들과 사료들이 작가의 풍부한 환상력과 능숙한 형상수법을 통해서 적절히 도입된 작품이라고 당당한 자부를 가지고 말할수 있다.

작품에서 나오는 명학소 천민들이 머리를 깎는 장면과 망이를 알아보는 백가신의 모습, 중이 술을 마시며 털도 안난 새빨간 참새새끼 몇마리를 냉큼 집어삼키는 세부들 통하여 불교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생동한 장면, 등장장치를 하려 간 망이를 병신이 되도록 때리는 백가신의 악랄성을 보여주는 진실한 세부 등 많은 장면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생활의 본질이 체현되어있는 뜻깊고 의의있는 이 모든 생활세부들이 장편이라는 큰 그릇에 맞게 간결하고 명백하게 부각되고있으며 그것이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창조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있다는것을 실감있게 말해주고있다.

또한 작품은 망이를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창조에 이바지하는 풍속세태, 습관 등 민족의 성격적특성들이 오늘의 시점에서 매우 선명하게 집약되

여있다. 이것은 이 장편력사소설이 다른 장편력사소설에 비해 일본전진으로 되는것이라고 응답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게 된다.

언어형상의 평이성

시대의 본질을 깊이 체현하고 현시대 인간들의 미감에 적극 부합되는 언어문제를 구사하는것은 력사소설창작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력사소설의 언어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을 결합하는 문제는 더없이 의의있다.

현대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의 결합,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일관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문제로서 그것은 력사소설의 언어형상창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구나 이 문제가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것은 언어의 평이성을 보장하는데서 우리 작가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제로 되기때문이다.

력사적현실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그 시대의 언어생활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평이하게 반영하는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장편력사소설 《망이》(제 1 부)를 보면서 새롭게 느끼게 되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묘사방법과 형상수법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는 점이다.

작가는 장편력사소설의 문체를 현대적미감에 맞는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언어생활의 변화발전을 잘 고려하여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형상하는데 탐구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작가는 종래의 일부 작품들에서 써오던 어둡고 침침하던 문체와는 달리 표현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독특한 밝은 양상의 문체를 씀으로써 봉건사회의 암흑상을 실감있게 묘사하였다.

다시말하여 마치 밝은 양상의 색조를 가진 언어문제를 쓰면 어둡고 침침한 봉건시대의 사회상을 그리는데서 형상의 통일성을 기할수 없는것처럼 여기던 종래의 관념을 버리고 능란한 언어문제를 쓰면서도 얼마든지 봉건사회의 암흑상을 진실하게 드러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장편력사소설에 쓰인 언어표현의 평이성을 놓고보자.

명학소마울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되어있다.

《충청도땅을 적시며 흐르는 고마강(금강)의 지류인 버드내가에 자리잡은 명학소는 수백호를 헤아리는 큰 마을이었다. 동쪽으로 계족, 매봉산들이 막아섰고 서쪽으로는 버드내건너 유성촌뒤에 우산, 도덕, 백운의 련봉이 병풍처럼 중중첩첩히 둘러섰는데 그 너머로 명산이라 일컫는 계룡산의 빼죽한 주봉이 허리에 구름을 두르고 솟아있었다. 마을앞을 흐르는 버드내가 갑내와 합쳐 고마강으로 흘러드는 지점까지는 기름진 벌이 꽤 넓다랗게 펼쳐졌다.

마을은 백학이 날아에는 수려한 산천이라고 어느 풍류객의 식자를 덕입어 명학소라는 이채로운

이름을 얻었지만 그 이름조차 관청의 호적에나 올랐을뿐 향간에는 그저 〈개끼부락〉이라고만 불렀다. 이를테면 머리를 깎이운 천민들의 부락이라는 말이었다.》

이 묘사속에 명학소마울이 한눈에 안겨온다. 참으로 현대적미감에 어울리면서 당대사회의 농촌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풍경묘사라 할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현대적미감문제는 단지 작품에 담겨진 생활내용에서만아니라 그를 반영하는 언어문체의 평이성을 통해서도 달성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주인공 망이와 망최의 다음의 초상묘사를 보자.

《망최는 턱끝에 맺히는 비물을 손으로 털어버린후 망이와 걸음을 맞추었다. 그는 아무런 우장도 없이 긴 머리칼을 베수건속에 되는대로 밀어넣은것이 첫눈에도 무척 성급하고 결쾌스러워보였다. 그런 성미는 특 빼여진 이마며 그 이마밑에 깊숙이 자리잡은, 어딘가 매눈을 련상시키는 감매사나운 눈초리에서도 느껴졌다.

그에 비하면 망이는 진중하고 온화한 편이었다. 구레나룻이던인 둥그런 얼굴에 총명해보이는 부드러운 눈빛, 한마디로 말하여 덕스러운 모색에 인정미가 풍기는 젊은이었다. 이처럼 얼굴모색은 판판 달랐어도 어금버금한 키며 나이, 엇비슷한 이름이며 늘 단짝으로 붙어다니는 그들을 부락에서는 형제로 여겼다. 아닌게 아니라 그들은 친형제나 다름없이 자별한 사이였다.》

참으로 이런 초상묘사에서 외모에서 차이뿐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행동과 생활에서 벌어질 성격상차이까지도 예상케 하는 언어구사가 짚된 실감있는 묘사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 초상묘사에서 우리는 거기에 배여있는 민족적정서와 향토적체취가 풍기는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언어의 평이성은 력사주의적요구와 현대적미감을 살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백가신과 그 아들 백태의 초상묘사는 또 어떤가.

《그들 부자는 모색이 엇비슷했다. 둘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얼굴색이 창백한데 얇은 입술과 커다란 귀가 특징적이였다. 그들의 귀는 마치도 먼데서 울리는 소리를 들으려고 손을 귀가에 오그려붙인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차이가 있다면 아들인 백태는 둥그스름한 보기좋은 턱을 가진 반면에 아버지인 백가신의 턱은 샅날처럼 앞으로 들린 넘적한 주걱턱이였다. 이 턱으로 하여 백가신은 더 드세고 탐욕스러워보였다. 그리고 한창 젊은 나이인 백태는 기골이 장대하면서도 균형잡혔으나 이미 황혼기에 들어선 백가신은 등허리가 약간 구부정했고 양어깨가 우로 솟아있었다. 백가신은 웃는법이라곤 별로 없었고 어쩌다 웃을때조차 입은 벌리지 않고 흥흥 코소리만 냈다.》

악착한 량반통치계급에 대한 얼마나 실감있는 묘사인가. 이것은 주로 묘사시점을 숨씨있게 처

리한것과 함께 미묘한 색채감에 치밀한 관심을 기울인것과 관련된 언어의 평이성에서 찾아보아야 할것이다.

풀무령감에 대한 묘사 역시 매우 재치있게 되어있다. 작가는 이것으로 풀무령감전체를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는 묘사를 하고있다.

《...풀무령감은 외양부터가 좀 우스운 편이지만 행동거지며 말너름새도 여간 구수하고 익살스럽지 않아 썩 재미있는 로인이었다. 그는 입을 쉴새없이 놀리고 또 입심이 좋아서 〈입풀무〉라는 별명을 달고 다녔다. 말인즉은 야장간집에 풀무가 돌이 있는데 하나는 숯불속에 바람을 보내는 바람풀무고 다른 하나는 그 힘든 야장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설을 늘어놓는 대장쟁이 입풀무라는것이였다. 한쪽에서는 바람풀무가 풀떠덕거리고 다른쪽에서는 입풀무가 주절대고... 그래서 불일도 없으면서 심심풀이로 야장간을 찾아오는 축들이 많았다.》

력사소설의 언어문제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을 보장하기 위한데서 이 장편력사소설의 언어문제의 평이성을 보여준 긍정적모범은 여기서도 찾아보게 된다. 작가는 작품에 쓰게 될 낱은 말들은 될수록 피하면서 시대색깔이 두드러지게 인물의 외모를 개성적으로 그려내고있다. 실로 작가는 시대어를 살려쓴다고 하여 당시에 쓰던 낱은 말들을 다 그대로 쓰지 않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오늘의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언어문제를 활용하고있다.

작가는 이런 식의 문체를 통하여 지난날의 생활을 당시의 언어로 반영한 고전소설과 우리의 력사소설 언어문제에서의 본질적차이를 뚜렷이 하면서 그 평이성을 보장하고있다.

마을의 녀인 범잔녀의 성격일면을 보여주는 다음의 대사하나만 더 보기로 하자.

《〈이 녀석 빈둥거리지 말고 여기 와서 돌캐는 걸 거들어다구.〉 그 소리에 어평돌이는 고개를 뻗 돌리며 어처구니 없다는 투로 코웃음을 쳤다.

〈그런 잔돌은 녀인들끼리 하라구요.〉

〈뭐라구? 허허... 주제에 수캐라구 다리들고 오줌 싸겠구만〉 하고 빈정거린 범잔녀는 안짱다리를 뚝 벌려선채 허리에 손을 얹고 다시 호령질 했다

〈말뚝을 삶아 먹었느냐? 썩 이리 오지 못해?〉

〈나참〉 어평돌이는 기막히다는 표정이였다.

〈행수가 시켜서 나무 찍으러 가니 똥방늘지 마시우〉 이렇게 대꾸한 어평돌이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그냥 내려갔다.

〈쌍눈으로 태어난 죄에 치마두른 죄로 코흘리개한테서까지 업심을 받아야 하니...〉

결쾌스러운 녀성 범잔녀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사이다.

사실 력사소설창작에서는 해당 시대에 특징적인 표현과 말투도 잘 살려써야 한다. 그래야 당대 사회의 현실감을 시대감이 나게 그려내는데 이바지하기때문이다.

말투는 주로 토의 활용 특히는 말들의 이음과 맺음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우에서 인용한 대사와 말투들은 효과적으로 쓰여 당시의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재치있고 함축된 대사, 평이한 언어로 성격을 집중적으로 표현해주는 대사는 사실상 인물의 성격창조에 크게 이바지한다. 이런 묘사와 대사는 이 소설에 그 얼마나 많은가.

특히 력사소설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쉽게 리해할수 있도록 글을 만들어야 한다는것은 력사물주제작품 창작에서 나서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력사소설의 언어가 제아무리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이 원칙적이고도 근본적인 요구로부터 벗어날수 없다.

작가는 이 력사소설을 쓰면서 서술이나 묘사, 대화 할것없이 모든 글을 기본상 현대문으로 쓰면서 작품의 력사성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시대어와 언어표현, 당시의 말투, 문장들을 그와 결합하고있다.

이 력사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것은 언어구사능력문제는 작가의 기초적인 문제인 동시에 자격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가고 생각하게 된다.

문학어의 체계내에서 시대어구사만 보아도 그러하다.

해당한 시대를 정확히 반영하는 그 시대의 시대어를 잘 살려쓰는 문제는 더없이 중요하다.

이 소설에서 시대어를 씬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더 잘 리해할수 있도록 뜻을풀이를 하고있는것은 지난 시기 력사소설에서 본 시대어의 구사에 비해 볼 때 일보전진이라고 할수 있다.

《여러 켄례의 목화(가죽신)가 놓여있는》, 《고려전국의 5 도량제(고려시기의 행정구역)에 걸쳐》, 《그러니 도첩(중의 증명서)을 받지 못한》, 《통통한 객사정(출장내려온 중앙관리들의 접대를 맡은 관리)은》, 《비록 량방집 녀인들처럼 화려한 비단옷에 몽수(얼굴가리개)는 쓰지 않았어도》, 《친척(사공)노릇을 하던》, 《상원달(정월 대보름달)빛이》 《초지일관(처음 먹은 뜻을 관철)하기전에는》, 《복두를 쓰고 참상관(왕을 수시로 만날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들만이 있는》, 《그속에서 번쩍거리는 은병(고려시기의 은으로 만든 돈)이 나오자》, 《문하시중(정부수반)이 된 정중부는》 등 많은 시대어표현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또한 이 력사소설에는 다양한 어휘표현수단들 즉 직접비유, 숨은비유, 해학과 야유 등 대상의 성격에 어울리는 각종 비유법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성구속담들도 능숙히 활용되고있다.

레하면 《배부른 량반토호들에게는 금수강산 일지라도 배끓는 백성들에게는 적막강산일 따름...》, 《사랑에 취하면 장님이 되고 마는가》, 《〈뭐라구? 허허... 주제에 수캐라구 다리들고 오줌 싸겠구만.〉 하고 빈정거린 범잔녀는 안짱다리를 뚝 벌려선채...》, 《이성지합은 백복지원(이성

의 결합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구...》, 《파자는 반치요 파치는 천치(자식자랑하는것은 반쯤머저리요, 처자랑하는것은 완전머저리)라는 말은 있지만...》 등 수많은 문장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싶은것은 력사소설에서 작가의 언어는 규범적이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력사소설창작에서 언어구사의 인민성원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닐수 없다.

력사물창작에서 소설가의 언어는 어휘문법, 문체론적규범까지를 지킬줄 아는 정확하고도 규범적인 언어이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개성적인 언어문체의 다양성으로부터 심리정서적인 표현, 색채에 이르기까지 예술적언어수단을 훌륭히 리용할수 있을것이다.

장편력사소설 《망이》(제 1 부)는 언어형상의 평이성, 규범성뿐만아니라 간결성, 명료성까지를 포괄하는 언어구사의 인민성원칙을 옹계 구현한 좋은 작품이다.

우화시

초불과 길가의 조약돌

김선지

어느날 밤 길가에
초불이 나타났네
그 무엇인가를 비쳐주며
가물가물
사람들이 초불을 들고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찾고있었네

이를 본 길가의 조약돌
초불을 비웃었네
-자신을 태우면서
남을 비쳐주다니
초불의 운명
오늘 저녁을 넘기기 어렵겠군
나처럼 영원한 존재도 못되는 초불
생각만해도 가련하단 말이야

그 순간 누구인가
-찾았다! 하고 소리쳤네
그러자 모두들 환성을 올렸네
-길가에 떨어진 보석을 찾은것은
초불의 덕일세

그러니 귀중한 초를 아껴야겠네
어서 불을 끄라구

이때 한사람이
막돌쪽으로 다가갔네
-어이쿠
그만 자리에 주저앉았네

길가던 사람들 모여들었네
-자네 웬일인가?
-난 그만 어둠속에서
막돌에 발을 채웠네
-그놈의 막돌을
길가에서 어서 집어던지라구
저기 저 웅덩이에말이야

그말 들은 조약돌
몸이 오싹해졌네

- 내 운명이 초불보다 먼저
이 시각에 끝장이 난단 말인가
저 깊은 웅덩이에 처박히게 되다니

나를 찾아주세요

신혜영

언제나 날 찾아주세요
새 일감 생기며는 맡겨주세요
넘쳐나는 힘 어데 쓰겠나요
랄랄랄 나를 찾아주세요

언제나 날 찾아주세요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설래요

나를 불러줄 때 제일 좋아요
랄랄랄 나를 찾아주세요

언제나 날 찾아주세요
오늘도 래일도 찾아주세요
내 한생 위훈속에 살고싶어요
랄랄랄 나를 찾아주세요

그 시절의 추억

김송남

길지 않았다
룡남산기슭의 그 나날은
그래도 때없이 떠오른다
대학기숙사에
체크트렁크 펼쳤던 그 시절은

본학부도 통신도 아닌
재직반 학생
대학에선 우리를 《양성반》
이라 불렀고
어쩐지 《양성》이란 말 맘에
안들어
우리는 제멋대로 자기 학급을
《작가반》이라 이름하였다

하기는 우리들속에
벌써 큰 작품을 낸 사람도 몇명
이제는 년로하여 우리결을 떠
나간
40대의 그들은 듄직했건만
20대의 우리들은 저만 잘난체

대학의 규률밖에 날 때도 많아
싫은소리 들은적 몇번이던가
담배 피울 장소를 가릴줄 몰라
제정된 식사시간 지킬줄 몰라

누구는 점심참
소설책에 몰두하다
오후강의 그만에야 지각을 하고
어데서는 론쟁이 도수를 넘어

그만에야 서로서로 어성이 높
아지고...

허나 형형색색 그모두를
하나의 모습
하나의 자세로 정돈시키느
오직 하나의 위대한 뜻이
여기서 우리를 기다려주었거니
오래 가지 않았다
우리의 혼잡은...

하기야
처음 모여와 인사말 나눌 때
부터
그하나만을 얼마나 아쉬워했
던가
언제나 뵈고싶던 친애하는 그
이께서
그 전해에 벌써
종합대학을 떠나신것을

아침저녁 그이를 뵈우며
그이를 모시고 배울 행운은
놓쳤건만
여기서 혁명의 첫걸음 떼신
그이의 웅건한 뜻을 받아안으며
얕은 여울갈던 우리 마음도
점차 깊은 출렁임을 안았다
룡성도로 이야기 어은동의 이
야기에

때로는 밤깊도록 눈곱이 뜨거
웠다
명절이면 이때보다 더 즐거웠
으랴
룡남산의 노래를 처음 배운
그 나날
스승으로 모시고
수령으로 받들어 갈
위대한 인간의 빛발을 받으며
우리의 눈이 그 시절에 열렸거니

그때부터야 그 누가
《양성》이라는 말을 나무뻗으랴
그 어디나 그 언제나 가득차
넘치는
향도의 빛발아래
인간정신의 존엄높은 기사로
우리 당의 동행자, 방조자, 조
언자로
그모두가 오늘같이 자라게 되
였으니

아, 고마워
나의 대학이라 불러찾노라
친애하는 그이의 뜻으로 우리
를 길러준
룡남산기슭의 해빛밝은 교사여!
그 시절은 길지 않았어도
우리 한생을 이미 결정해주었어라
내 운명의 은혜로운 요람이여!

고개들어 조국의 하늘아래

김남주 (남조선)

우방의 이름으로 긴
평화를 위한 유엔군의 명목으로 긴
뭐다뭐다
보호다 뭐다 협력이다 뭐다
웬수작 개수작 같은 이름으로 긴
이 땅에 허리꺾인 내 땅에

이방인의 군대가 들어와있는 한
들어와 총을 메고 이 도시 저 도시를
활보하고있는 한
나는 아니다 고개들어 조국의 하늘아래
직립보행의 독립이 아니다

흰둥이건 까둥이건
또 무슨 색깔의 알록달록한 인종이건

이 강토 산과 들을
남의 나라 병사들이 밟아대고있는 한
한포기의 풀이라도 밟고있는 한
나는 아니다 고개들어 조국의 하늘아래
우리러 떳떳한 인간의 얼굴이 아니다

벗이여 너와 나 치욕으로 살지 말자
식민지종속의 배부른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주린 창자 자유로 채우며
직립보행 독립의 나라로 일어서자
칼에 얼굴이 굽히고
도끼에 뿌리가 찌히고 외세충알로
몸뚱이가 온통 벌집투성이인
그러고도 삭풍에 의젓한 이 땅의
상수리나무여

우리 나라 역사유적 소개

평양성

평양성은 고구려시기인 552 년~586 년 사이에 쌓은 수도성이다.

성의 둘레는 약 16km 이며 그 성벽의 총연장 길이는 약 23km 이다. 성의 성벽은 모란봉을 북쪽끝으로 하고 서남쪽으로 울밀대, 만수대의 마루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통강언덕을 따라 안산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서남쪽으로 보통강을 따라 뻗어나갔다. 보통강과 대동강이 합치는 목에 이르러 성벽은 대동강기슭을 따라 상류쪽으로 거슬러올라 대동문을 지나 청류벽을 타고 전금문, 부벽루를 지나 모란봉에 이르렀다. 이것이 평양성의 바깥성벽이다.

평양성안은 성벽들로 가로 막아 내성, 중성, 외성, 북성 등 4 개의 부분성으로 나누었으며 북성의 북쪽에는 철성을 두었다.

평양성은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기술로 쌓은 성이다. 평양성 성벽은 곳에 따라 통선을 따라 쌓

기도 하고 평지에 쌓기도 하였으며 또 습지에도 쌓았는데 지대적조건에 맞게 성쌓는 방법을 서로 달리하였다.

평양성에는 많은 성문들을 냈다. 내성, 외성, 중성 할것없이 성마다 동, 서, 남, 북 네개의 성문을 비롯하여 크고작은 성문들과 암문, 수구문 등이 있었다. 지금도 고구려의 성문자리들에는 대동문(내성의 동문자리), 칠성문(내성의 북문자리), 보통문(중성의 서문자리), 전금문(북성의 남문자리), 현무문(북성의 북문자리)등 성문들이 있다.

고구려인민들은 나라를 지키는데 큰 의의를 가지는 평양성축성에서 독자적인 축성기술을 적용하고 애국적열성을 발휘하여 평양성을 중세기성에서 본보기로 만들었다.